

'자비와 행함 하나 되어 회' 송묵 스님
"아이들 미래가 불교의 미래입니다"
A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1월 28일) · 주간

제922호 2013년 1월 9일 수요일

스스로 다지는 맹세가 없으면
마부가 없는 말 같아 갈 곳을 모른다.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 목적을 이룬다.
「마하지관」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사업 풍성

2월부터 다례재, 전시회 등



한국불교의 최고 학승이자 대강백인 탄허 스님〈사진〉 탄신 100주년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화 된다.

탄허 스님의 주석처였던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탄허 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한 학술, 교육, 문화 사업 등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선양 사업은 오는 2월 24일 월정사 적광전서 열리는 탄신 100주년 다례재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 맞춰 탄허 스님 증언집과 유묵집도 발간된다. 4월 26일에는 한국불교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기획연재 14면**

가장 눈길이 가는 기념사업은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유묵 특별전이다. '한국근대고승유묵-오대산 월정사 한암 · 탄허 선사'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은 4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11월 11일까지는 12월 15일까지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9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순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대사업으로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틱낫한 스님을 초청해 월정사 문수선원에서 '세계평화와 화합 명상학교'를 진행하며, 교육사업으로는 화엄강좌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월정사에서 열린다. 문화사업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6월 2일 탄허 스님 열반 30주기에 맞춰 추모 다례재가 월정사 적광전서 열리며, 선서 함양 전국 휘호대회 및 전시회가 진행된다. 세계평화와 나눔의 치유 음악회도 10월 12일 경내에서 열린다.

탄허 스님 100주년 선양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이번 100주년 선양 사업을 통해 스님의 사상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어려운 이웃 · 특기생 교육 지원

사찰 · 개인 등 50여 불교장학회

"어릴 적 가난했던 환경 탓에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지만, 경제 양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작은 사찰인 정릉 영각사 주지 홍진 스님이 동국대와 조계종에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부하며 남긴 말이다. 출가 전 가난했던 환경에 귀동냥으로 글을 깨쳤던 이 스님은 1980년대부터 서울에서 작은 포교당을 하며 의정부 광동고 등에서 불교계 학생들의 학업을 후원했으며 1998년에는 운영하던 장학회를 확대, 자비장학회로 이름하고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회가 풍요로워 졌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학업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홍진 스님의 말이 귓가에 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원재단 20여년간 7억원

화엄장학회 매년 50명 도와

장학재단 활성화 위한

불자들 의식 전환 필요

현재 불교계는 그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신도간 소통 및 결속력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젊은 불자의 외면이다.

이웃종교인 기독교는 해방 이후 두가지 방향에서 매진해 신자들 사이로 파고들 수 있었다. 고령층에는 의료사업이며 젊은층에는 교육 · 장학사업이 그 방향이었다.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기독교의 수많은 미션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장학재단에서 후원 받은 인재들이 사회 지도자급으로 활동하며 다시 젊은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에 들어 사회지도층 불자 비율이 신도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게 된 이유는 단적으로 이같은 인재양성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직업군이 날로 다양화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들이 나오지만 현재 모든 면에서 미흡하다. 동국대, 금강대, 위덕대 등 3개 종립대학과 20여 개 남짓의 중고등학교 만이 불교계 교육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장학사업도 5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단위사찰과 개인 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불교계 교육과 장학사업이 확대 되려면 무엇보다도 불자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불교의 미래가 젊은 불자 양성에 달려있으며 장학사업은 그 핵심이다.

광덕 스님으로부터 어려울 때 도움받고 불자 학생들을 배출하겠다는 원력 하에 수십년간 학생들을 지도한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장학사업이 확대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젊은 동량을 키워내겠다는 불자들의 원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1월 3일 대구 동화사에서 계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종도들이 화합하고 정진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화합 · 정진해 佛法을 만방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신년하례법회

"사부대중은 화합하고 정진해, 부처님 심인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3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계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한해 동안 정진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하례는 종정 진제 스님의 헌향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헌다, 불법승 삼보에 각 삼배를 드리는 통알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역직에 종사하는 스님들은 공심의 자세로 행과 위의가 반듯이 하고, 모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몸소 나누고 실천하는 자비행을 보여줘야 한다"며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정진해서, 부처님의 심인법이 사해오호에 널리 유포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럽에 이어 미국인들이 생활명상 하기를 즐겨함을 보며 간화선법의 세계화가 도래했다"며 "간화선을 통해 세계인들이 행복의 길을 갈수 있도록 대중들은 정진하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종정 스님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받들어 종도와 화합하고 부처님의 심인법이 널리 퍼지도록 정진하겠다"며 "종도와 불자는 물론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지혜로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2013 현대불교 새 연재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기2557(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새 연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면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해수 관음도량, 구산선문, 삼국유사 속 그 절 이색 템플스테이 등 테마를 통해 사찰의 정취와 주변 볼거리를 생생히 전한다.

불국토 경주 남산을 오르다
본지와 신라문화원은 공동 사업으로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진행한다. 매월 1회 씩 총 12회에 걸친 답사를 통해 신라인들의 탑파신앙부터 불상 조성, 설화 등을 면면히 소개한다.

108선원 기행
의왕 청계사가 진행하는 108선원순례를 동행하며 한국불교 선수행 현장의 곳곳을 소개한다.

14면 불교와 미학
서울대 미학과 강사이자 조계종 교수 아사리 명법 스님은 불교와 미학의 관계를 조명해 불교가 가진 미학적 가치를 전한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증언 – 방산굴의 무영수
유불선을 회통한 화엄학의 대가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을 앞두고 있는 증언집 〈방산굴의 무영수〉를 미리 맛본다. 지인들이 증언하는 탄허 스님의 삶과 수행을 따라가 본다.

15면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가 연재된다. 〈전심법요〉는 배휴 거사와 황벽선사의 문답기록으로 선문의 귀한 자료이다. 선수행자들은 이 책을 통해 중도 정견을 확립했다.

18면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사회
우명주 박사는 불가촉천민출신으로 인도 초대법무부장관을 지낸 암베드카르가 인도에서 사라진 불교를 어떻게 부흥시켜 '신불교'로 자리잡게 했는지 살펴본다.

21면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 잡기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이 사찰건축의 구석구석 용어를 바로잡아주며 독자들에게 불교미술의 지평을 넓혀준다.

24면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1921년 개원한 선학원은 근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 성지이다. 93주년을 맞은 선학원의 역사를 되짚고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27면 마음산업– '신행 · 포교 지도' 바꾼다
현대불교신문은 신년특집기획 '마음산업 & 불교'를 주제로 국내 · 외 마음산업을 점검했다. 그 기획으로 '마음 · 명상' 코너에 격주로 국내 · 외에서 진행되는 마음수행 현장을 소개한다.

28면 불전 속 신이한 이야기
부처님말씀에 가려 드러나지 않은 비유나 전생담 등 신비한 고사들을 찾아 소개한다.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부산연꽃모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옥 보살의 신행일기로, 불자로서의 고민과 소감 등을 진솔하게 전한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장 김진선 前 지사 선임



김진선 전 강원도 지사〈사진〉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월 4일 취임준비위원장과 9개 분과 23명의 인수위 명단을 모두 발표했다.

평소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관동대 행정학 명예박사 강원대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청와대 지방행정특별보좌관, 중국인민대학교 객좌교수, 제34대 강원도 도지사, 동국대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즐거운 병영 생활 마음수련 지침서!



어떻게 2년을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나를 억압하는 시간이 될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지 그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을 보냅시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1법당 300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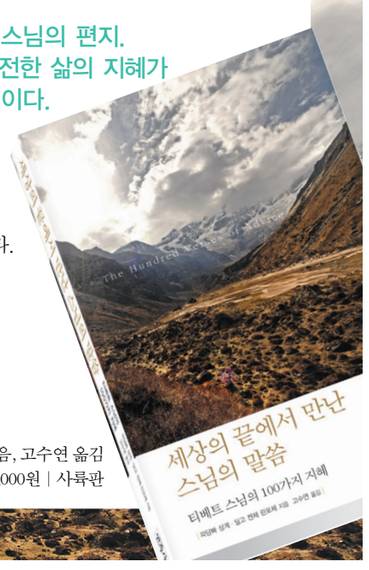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온전한 삶의 지혜가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해가지면 시드나니,
뭇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게 · 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256쪽 | 13,000원 | 사륙판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현생의 목표는 잊어라,
대신 다가올 인생에 집중하라.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목표이니라.

현생의 좁은 안목에서, 자신의 건강, 장수, 안락을 주된 목표로 삼아 다르마를 수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패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생명체의 미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생명체의 미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탕에 깔린 의도가 무엇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결국 그것이 다르마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수행을 시작할 때, 근본적인 의도와 생각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르마를 수행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응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발 물러나 나 자신을 무수무변의 생명 가운데 하나로 바라본다면, 개인적 욕구나 공포가 하찮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생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는 거의 모든 것들이 고통을 안겨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할 때 존경 받거나 열심히 공부한 대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존재들에게 가르침을 펴고 그들을 붓다의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완전히 순수한 생각을 유지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남아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전통불교문화 보존 · 발전 토대 '촛점'

2013년 정부 불교계 예산 어떻게 반영됐나?

2013년도 정부 예산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예산을 살펴보면 전통불교문화 전승, 보존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는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올해 종무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07억 9700만 원으로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사업에는 264억 6천여 만원이 책정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105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110억 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20억 원)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7억 원)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 해외전파 조사 및 구축(5억 원) ▷가산불교대사림 편찬(5억 원) 등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불교전통문화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억 원) ▷호국불교 의승군연구 및 서산대제(3억 원)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1억 2천만 원) 등이 책정됐다.

종교화합과 교류 지원에는 51억 8천여 만원이 계상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2억 6천만 원이 줄었다. 종교문화시설건립사업 예산에는 135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됐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건립에 10억 원이, 안동 종교타운 건립에는 7억 원이 투입되며, 선학원이 추진하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에 29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밖에도 금산사 뇌묵당 처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 4억 5천만 원이, 군위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에 16억 원이 신규 · 증액 편성됐다.

템플스테이 예산은 지난해 200억 원에서 올해 185억 원으로 7.5% 삭감됐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지원비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해 195억 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또한 진관사 부지에 건립 계획 중인 전통

아카이브 구축, 가산 대사림 등
불교문화 전승에 예산 투입
전통사찰 방재에 110억 책정
낮은 집행률 숙제… 보완 필요

음식체험관 조성사업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5억 원이 지원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의 2013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는 2,13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보다 130억여 원이 증액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또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23억 원, 직지금속활자 복원 2억 원, 광역특별회계로 오대산사고 전시관건립 2억 원 등을 지원한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



지난해 실시한 봉은사 방재시스템 시연회. 조계종 문화부는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받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는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안은 올해와 동일한 200억 원이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불교계에 대한 올해 국고 지원은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건물 불사가 아닌 아카이브 구축과 가산대사림 편찬, 의승군 연구 등 전통불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존 ·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투명한 집행이다. 실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예산심사에서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27.5%의 낮은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문방위는 "2013년 약 100개소의 전통 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지만 낮은 실집행을 고려하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국회 자료는 지난해 9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현재 사업 대상 사찰 82개 중 55개 사찰이 방재예측 시스템 구축을 계약해 67%의 계약률을 기록했고 31개 사찰은 시스템이 준공돼 38%의 준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낮은 준공률에 대해서는 "방재예측시스템 구축 예산 가운데 40%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사찰 자부담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음종, 복지 사업 다시 기지개 펴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올해부터 복지사업을 재정비해 다시 펼친다.

관음종은 최근 산하 복지법인인 서울복지원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고, 법인 자산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이사진은 관음종 중진 스님을 비롯해 교육계, 법조계 인사 등 7인으로 구성했으며, 전문 회계사를 감사로 영입했다.

관음종 서울복지원은 2000년 10월 이미 법인 등록을 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법인 재산으로 기증된 부동산 역시 농지로 묶여 있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것도 그동안 정상 운영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관음종은 서울복지원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말 농지로 묶인 토지를 내놓고 새로 법인 자산을 출연했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 서울복지원 전용 사무공간도 마련했다.

관음종 총무원장이자 서울복지원 대표이사인 홍파 스님은 "이제는 종단이 복지사업을 하지 않고는 포교를 논할 수 없는 복지포교 시대를 맞았다"며 "종단의 복지사업을 향후 서울 복지원에 집중시킬 계

서울복지원 이사진 7인으로 재구성
편부모 가정 지원 사업 등 추진

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새롭게 출발하는 첫 해인 만큼 큰 욕심을 내지는 않고 서울복지원이 안정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질 것"이라며 "올해는 종단 복지사업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서울복지원은 지역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편부모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복지원은 지역내 편부모 가정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중이다.

홍파 스님은 "도움 줄 곳이 있다면 어디든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 사업이 체계화되고 확대되면 국제 구호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복지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재원 마련. 종단 예산이 투입되고 독지가들의 출연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정기 기부자가 확보돼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파 스님은 "무엇보다 종도와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종회 등 종단의 공식석상을 통해서 종도들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말사 주지 인사

1월 2일 구인사서 임명장 수여



도정 스님 무원 스님 월도 스님

천태종은 1월 2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전국 말사 주지 인사를 단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천태종 서울 사무소 격인 관문사 주지에는 현 총무원장 도정 스님이, 부주지에는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임명됐다. 또한 부산 삼광사 주지에는 前 총무원장 직무대행인 무원 스님이 임명됐다. 다음은 주요 사찰 주지 명단이다.

△서울 명락사 주지 덕해 스님 △서울 삼룡사 주지 갈수 스님 △대구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 △대구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인천 황룡사 주지 세운 스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중, 고등과정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발원지이며 청소년 인성교육의 20년 전통인 **골굴사** 부설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교는 검정고시를 대비한 교과학습지도와 다양한 전통문화 실습과 선무도, 승마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성을 치유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수탁교육지정 시설)

▶ 모집대상 및 기간
• 중등과정 20명, 고등과정 10명
• 2013년 1월 ~ 2월 중 수시로 개별상담



▷ **학교특성** 선무도를 비롯한 전통무예 수련과 승마교육
• 템플스테이 외국인 연인원 7천명과 원어민 영어교사가 함께생활
• 선무도 승단후 (약1년) 공연단 참가시 장학금 지급
• 선무도 사범, 법사로 육성 · 국내,외 지원으로 파견
• 동진출가 발심자나 결손가정 자녀는 학비전액 무료

▷ 전 화 : 070-8870-0246, 054)775-1689
홈페이지 : www.golgusa.com,
cafe: daum.net/sunmudoschool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단법인 선무도대금강문, 선무도화랑사관학교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소규모 장학재단 저금리에 규모 위축

불교계 장학불사 발전 현황과 과제는

불교계에 다행인 것은 IMF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불교 장학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난이 지속되며 늘어나고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주 대상이다. 현재 불교계에 운영되고 있는 장학단체는 대략 50개 수준으로 현재 규모면에서 손꼽을 수 있는 장학사업 단체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성준장학재단, 행원문화재단 등이다.

불교계 장학사업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4년 조계종이 실시한 동국대 종비 장학생과 故이한상 씨가 설립한 삼보장학회가 시작이다. 1970년대 서울 도선사와 봉은사, 부산 내원정사 등 대형사찰 중심의 장학단체들이 생겨났다.

1972년에는 금오문도회가 금오장학회를 설립해 스님들의 교학연구를 지원하는 등 승가 장학사업도 본격화됐다. 이후 1990년대까지는 장학사업이 명맥 만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대형 장학재단이 속속 설립됐다.

재가불자 신행모임인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회비로 조직한 길상화장학금이 이해부터 운영됐다. 특히 길상화장학금은 신도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매년 6500만원씩 지금까지 총 450여 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에게 6억 여원이 전달됐다. 우수 학생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는 청호불교문화원 청호장학금을 비롯해 탄허불교재단 보문장학금, 탄허 · 만화 스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조계종성찬회 성찬회장학금,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이 설립한 성준장학재단 등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2년에는 정대 스님과 모친 최은수 씨의 출연자산을 기반으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설립돼 학술연구단체, 불교학 신진학자, 불교계 단체 자녀 장학금 등 매년 1억 7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산 확보 안정이 숙제

불자들 공감대 형성으로

장기적 후원회원 늘려야

90년대 이후에는 조계종 외의 종단들과 NGO단체들의 장학사업 참여도 본격화됐다. '우리는 선우' 향산장학금, 대불련 총동문회의 대학생지원장학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의 청소년교화연합회 등 포교단체들과 단위사찰의 장학사업이 지속돼고 있다. 봉은사, 불광사를 비롯해 운문사, 성불사 등이 대표적인 장학 사업을 펼치는 사찰들이다. 이중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은 2001년 3억원을 출자해 벽담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소장 학자들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는 장학금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행원문화재단은 올해로 22년째 행원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시상금액만 6억여원에 달한다. 이 밖에 불이회의 불이상,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의 소장학자 지원사업,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의 학술사업 공모 등이 있다.

종립학교에서도 장학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동국대는 우수학생을 선발해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재학중인 스님들에게는 등록금 감면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금강대는 전액 장학금에 학업 장려금과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그렇다면 불교계 장학사업의 과제는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장학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찰과 독지가들의 원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은정빌딩의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은정불교문화재단 등 대형 재단 외의 대부분의 장학재단자산이 저금리,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어 외부 후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1978년 화엄승가장학재단으로 출발해 1992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화엄종장학회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매년 4800만원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5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양위찬 화엄종장학회 관장은 "종단 출연자산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찰 후원을 따로 받고 있다"며 "투명한 운영 등으로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장학재단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장학금	(02)719-1855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은정장학금	(02)515-9351
금오문도회 금오장학회	(043)543-3615
내원정사 석암장학회	(051)242-0691
봉은사 서산사명장학회	(02)511-6070
불광사 불광장학회	(02)413-6060
도선사 청담장학문화재단	(02)993-3161
성준장학재단	(033)462-6969
운문사 법계장학회	(054)372-8800
성불사 벽담장학회	(02)400-5915
신광사 선도장학회	(055)644-0723
일념장학회	(051)816-9500
연등장학재단	(054)383-8032
행원문화재단	(02)586-6521
한국불교대관음사 사랑의장학금	(02)6456-7228
맑고향기롭게 길상화장학회	(02)741-4696
청호불교문화원 청호장학회	(02)515-3021
탄허불교문화재단 보문장학회	(02)445-8486
연꽃마을 유당장학재단	(02)719-2735
우리는선우 향산장학회	(02)2278-8672
불이회 불이상	(02)2014-6616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장학회	(02)720-1963
동국대 불자청년지도자 육성장학기금	(02)2260-3114
동국대 정각원 연등장학회	(02)2260-3016
동국대 수불장학금	(02)2260-3891
동국대 경주캠 불교특성화장학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전법	(054)770-2114
중심도량 장학프로그램	(02)2011-1891
조계종 체육인불자회 체육장학금	(02)733-7277
천태종 원각불교장학금	(02)723-1559
화엄종장학회	(032)466-7523
신라문화장학재단	(02)413-0795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성장 동력 마련"

불교문화사업단 2국 1실 체제로… 정원도 확대

한국불교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를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재를 확대 개편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최근 조직을 1국 5팀에서 2국 6팀 1실로 체제를 확대 개편했다. 정원도 기존 28명에서 3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번 체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국과 프로그램, 상품 관리를 위한 사업국으로 조직을 세분화했다는 것이다. 사무국은 총무 · 기획 · 홍보팀으로 구성되며 사업국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문화진흥팀으로 나눠진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사업단 특성상 많은 비중을 가진 언론 홍보, 마케팅 분야를 강화하고 팀제 운영을 통한 전문화 프로그램과 연구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수익사업을 비롯해 기존 콘텐츠들을 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진흥팀과 필요한 종책들을 조산 연구하는 상설 연구실 신설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조직을 세분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문화진흥팀을 나눈 것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실에 대해서는 "상근, 비상근 체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이나 새로운 불교문화 정책들을 프로젝트별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종교인들, 박 당선인에 '쌍용차 해결' 촉구

인수위에 제안서 전달

종교인들이 구랍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노 · 사 · 정 · 종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구랍 28일에는 논평을 내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쌍용자동차 문제의 사회통합적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발송했다.

종교인들은 제안서에서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상징하는 쌍용차 문제의 국민 통합적 해결을 위해 인수위가 이 문제를 주요 국정의제로 채택하고, 대통령 취임 이전에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정종 협의기구' 구성,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종교인원탁회의는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대선 이후에만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는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진영 간 대결문화가 고착돼 대화가 단절된 데 따른 고립과 절망감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박 당선인이 경제단체들을 찾아 고통분담을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상생과 사회통합의 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절박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쌍용자동차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33대 집행부 마무리에 최선"

주요종단 2013년 시무식

불교계 주요 종단들이 불기2557년 계사년 신년 시무식을 열고 한해 업무를 시작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일면,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자승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마무리되고, 34대 총무원 집행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한 핵심주요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 부서 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불교 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조계종은 1월 2일 2013년 계사년 시무식을 열고 올해 종무행정에 들어갔다.

호계원장 일면 스님은 새해덕담을 통해 "주인의식을 갖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으며,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종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불교를 만들어나간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혼자 100걸음을 걷는 것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이 자성과 쇄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고종과 관음종 등도 1월 2, 3일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종무행정 업무에 들어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

광주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12월 27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심의 확정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불교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조계종 등 불교계에서도 공원 지정구역 내 전통사찰 등과 함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변화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구역 내 전통사찰은 증심사, 원효사, 약사암, 석불암 등이다.

조계종 사회부는 지난해 7월 25일 해당 사찰 주지 스님 및 본사인 송광사 등과 함께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고 공원지정구역 내 전통사찰을 현장답사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국립공원 추진에 따른 변화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해 국립공원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멘토 스님들 '힐링',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순위 1위 혜민 스님의 '멈추면…'

지난해 140만부로 베스트셀러가 된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국립 도서관 이용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은 2012년 한 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 80권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종합순위 1위는 SNS 스타 혜민 스님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선정됐으며,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철학 · 종교와 생활 · 과학 서적 이용 부문에서도 스님들의 저서가 강세를 보였다. 법륜 스님의 〈방황해도 괜찮아〉와 〈스님의 주례사〉는 철학 · 종교 8위와 생활 · 과학 2위에 선정됐으며, 동경대 출신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생각 버리기 연습〉도 철학 · 종교 부문 10위에 올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2년 화두가 '힐링'과 '청춘'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한 이용자 통계를 집계한 것이다.

신중일 기자

불기 2557(2013)년 연수교육 안내

○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연수교육이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단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기 2557(2013)년 연수교육 강좌는 이전의 연수교육 강좌와 차별화를 두고 경전과정, 교양과정, 사찰경영과정, 전법과정, 순례과정 등 5개 과정의 총 43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강좌와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교육대상**

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②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③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스님들께서는 본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찰 주지스님들께서는 매년 개설된 강좌 중 1개 강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기간 및 시간**

① 일반연수과정 : 2박 3일, 12시간 이상 (30점 부여)
② 사찰경영지도자과정 : 4박 5일, 25시간 이상 (60점 부여)
③ 순례과정 : 4박 5일, 6박 7일, 10박 11일 (30점 부여)
④ 자원봉사과정 : 12시간 이상 (30점 부여)
– 자원봉사활동은 시간과 상관없이 1년에 30점 부여
⑤ 인증과정 : 12시간 이상 (30점 부여)
– 교육시간과 상관없이 한 인증과정에 30점 부여

■ **교육장소**

①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② 기타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경주, 부여 등)

■ **접 수**

① 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마곡사 인근)
② 기타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경주, 부여 등)

■ **신청 방법**

① 교육신청은 조계종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에 접속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의 '연수교육신청' 코너를 클릭하거나, 위 연수사이트 주소로 직접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스님들은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교육은 강좌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고,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교 육 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수교육 안내책자의 교육과정 안내에 별도표시)

① 승납 10년 미만 스님 : 10만원 감액 (수강료 50% 지원)
② 승납 10년 이상 스님 : 5만원 감액 (수강료 25% 지원)
③ 단, 실습이 동반되는 과정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10년 미만인 스님들에게 교육비 5만원을 지원하며, 순례과정은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2과목 이상 수강시 드렸던 중복할인 혜택은 2013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 입금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교육비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현장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 우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화 : 02)2011-1807~8, 1810 / 팩스 : 02)732-4926

불기2557(2013)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13년 연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과 정	강 좌 명	강 사	일 정	장 소
경전 과정	경덕전등록 – 혜능에서 임제까지	지안스님	3월 4일 ~ 6일	전통불교문화원
	화엄경 법성게	해주스님	3월 14일 ~ 16일	전통불교문화원
	아비담마 길라잡이	각묵스님	4월 1일 ~ 3일	전통불교문화원
	정토신앙의 세계	보광스님	5월 2일 ~ 4일	전통불교문화원
	도겐의 정법안장이야기	보광스님	9월 12일 ~ 14일	전통불교문화원
	선문촬요 – 간화결의론	현봉스님	9월 23일 ~ 25일	전통불교문화원
	맛지마니까야의 이해	환성스님	10월 7일 ~ 9일	전통불교문화원
	능엄경 – 삼요품	혜거스님	10월28일 ~ 30일	전통불교문화원
	재미있는 계율이야기	자현스님	11월 11일 ~ 13일	전통불교문화원
교양 과정	동의보감의 세계 – 몸과 우주, 삶의 비전	고미숙	4월 4일 ~ 6일	전통불교문화원
	주역의 세계	성태용	4월 11일 ~ 13일	전통불교문화원
	우리 차 만들기	여연스님	4월 26일 ~ 28일	대흥사 일지암
	5개의 키워드로 읽는 현대 한국사회	이언오	4월 29일 ~ 5월 1일	전통불교문화원
	자연과학이야기 – 뇌과학과 마음	장현갑	5월 20일 ~ 22일	전통불교문화원
	도자기 만들기	김영길	5월 27일 ~ 29일	경기도 여주 (신륵사 집결)
	역사로 읽는 기독교이야기	백찬홍	6월 3일 ~ 5일	전통불교문화원
	동양고전에서 리더를 만나다	구본형	6월 20일 ~ 22일	전통불교문화원
	서양고전에서 리더를 만나다	황광우	7월 3일 ~ 5일	전통불교문화원
	선불교와 노장사상	강신주	9월 2일 ~ 4일	전통불교문화원
	티베트불교의 향기	양오영	9월 23일 ~ 25일	전통불교문화원
	수행생활과 커피	강귀영	9월 27일 ~ 29일	전통불교문화원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고운기	10월 1 일 ~ 3일	전통불교문화원
	수행과 요가	정경스님	10월10일 ~ 12일	전통불교문화원
	영화로 세상읽기	곽재용	10월24일 ~ 26일	전통불교문화원
	진화론과 현대사회	최종덕	10월29일 ~ 31일	전통불교문화원
사찰 경영 과정	사찰경영지도자과정 1차	교육원	2월 26일 ~ 3월 2일	전통불교문화원
	사찰경영지도자과정 2차	교육원	8월 26일 ~ 30일	전통불교문화원
	사찰경영지도자과정 3차	교육원	10월14일 ~ 18일	전통불교문화원
전법 과정	순례지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생애	정창권	3월 22일 ~ 24일	전통불교문화원
	불교생활의례	화암스님	5월 6일 ~ 8일	전통불교문화원
	동사섭	용타스님	6월 3일 ~ 5일	전통불교문화원
	청소년 명상지도과정	김남선	6월 14일 ~ 16일	전통불교문화원
	국제구호사업과 불교	묘장스님	6월 25일 ~ 27일	전통불교문화원
	감성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	불교방송	6월 28일 ~ 30일	전통불교문화원
	비움과 소통으로 모바일 세상과 만나기	김범진	9월 6일 ~ 8일	전통불교문화원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흥선스님	9월 9일 ~ 11일	전통불교문화원
	신도상담과 코칭	김종명	11월14일 ~ 16일	전통불교문화원
순례 과정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	지안스님	4월 12일 ~ 22일	인도/네팔지역부처님 8대 성지
	경주남산 불적답사	신라문화원	4월 17일 ~ 19일 10월10일 ~ 12일	경주남산일대
	보광스님과 함께하는 일본 고찰순례	보광스님	8월 28일 ~ 9월 1일	고야산,나라,교토,오사카 등
	고우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순례	고우스님	9월 9일 ~ 15일	구화산,여산,우민사,경덕진,황산 등
	백제불교 문화답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9월 11일 ~ 13일	공주,부여,익산 등
자원봉사 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51곳	자세한 내용은 연수교육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23곳			
인증과정	교육원 인증 24개 과정			

일 주 문



국제교류협력센터 준공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월 17일 캄보디아 따께오주 쌈닷뽀안 마을에서 창원시와 함께 국제교류협력센터를 준공한다.



포교사고시 2월 17일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월 17일 오전 9시 서울 동국대와 대전 보문고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제18회 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



사찰음식 연구소 기공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구랍 23일 '화엄교육장'과 '사찰음식 연구소' 기공식을 봉행했다.



불교스카우트 모집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1월 31일까지 불교스카우트 단원을 모집한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대집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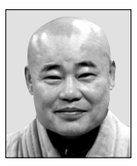
코칭템플스테이 무료진행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멈춤 & 도약'을 주제로 휴학생 및 구직 젊은이를 위한 일대일 코칭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진행한다.



스마트 힐링 선수련회 개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2월 1~3일 화엄사 일대에서 스마트 힐링 겨울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정초 산림기도 봉행

순천 조계사 주지 무상 스님은 2월 12~18일 웅진당에서 계사년 새해 맞이 정초 산림기도를 봉행한다.



룸비니합창단 30주년 음악회 열어

대구 은적사 주지 허주 스님은 구랍 24일 대구 프린스 호텔에서 '룸비니 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자비의 교복 나누기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북 스님은 구랍 24일 대남 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 학생 60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 상품권을 전달했다.



장애인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선교종 종정 혜종 스님은 구랍 26일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제9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법회'를 개최했다.

수륙재 원형보존·현대화에 '최선'

어산 어장 동주원명 스님 경제어산 무형문화재 지정



송암 스님에게 사사 받아
50년간 어산 원형보존에 힘써
지난해 전승원 교육기관 인정
인재양성과 콘텐츠 개발 매진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야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오로지 50년을 어산(범패)에만 전념해왔습니다. 선풍이 주축을 이루는 조계종에서 이런 원력을 세워 실천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원명 스님이 1월 3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京制魚山) 지정 및 보유자로 인정됐다. 스님은 지난 50년 동안 경제어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왔다.

"경제어산은 서울경기지역 불교의식에서 쓰이는 소리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이기에 그 보존 가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죠. 이번에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만큼 이를 알리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의 전통 재의식은 어산을 바탕으로 진행하는데 이를 크게 범음(梵音)과 범패(梵唄)로 분류한다. 이는 1973년 범패란 명칭으로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87년 영산재라는 용어로 재지정 됐다.

스님은 독보적인 최고 어장이었던 故 박송암 스님에게 경제어산을 사사받았다. 특히 스님은 경제어산의 결정체인 안채비 소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륙재를 송암 스님으로 전수받아 지금까지 전통을 보존해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선풍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조계종 스님으로서 소리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은사 스님이었던 대은 스님의 뜻에 따라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 "1964년 벽응 스님에게 경제어산을 처음 배웠어요. 그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님네들이 재의식을 배우는 것은 당시의 필수 항목이었죠. 이후 저희 은사 스님께서 송암 스님에게 저를 맡기셨어요. 저는 스님의 결정 따라 봉원사에서 송암 스님에게 전수를 받았어요. 아침 7시면 스님이 그곳으로 오셔서 매일 10~20분을 가량의 소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밤 10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소리를 전수를 받았어요"

특히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은 학계와 정부에서 경제어산이 불교재의식을 넘어 전문적인 소리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불교문화 전승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이에 스님은 경제어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륙재 원형 보존과 현대화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수륙재를 하려면 3일이 걸립니다. 우선 이에 대한 원형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간소화 시켜 현대인들에게 맞는 수륙재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죠"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불교전통의례 전승원은 지난해 조계종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스님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수륙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스님은 "영산재가 태고종의 산물이라면 수륙재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후학 양성은 물론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환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재가불자 양성평등의식 향상되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양성평등 가이드북 발간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친 부처님 말씀 새기며 서로가 차이를 인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지난해 12월말 지원금 전달 양성평등 가이드북인 〈부처님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실천하기, 어렵지 않아요〉를 펴냈다.

이 가이드북은 평소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남녀차별적인 인식들을 살피고 부처님이 강조한 평등으로 유도하는 지침서다.

김영란 소장은 "부처님은 남성에게 예속된 삶을 살았던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출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평등주의자"라며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여성의 성불을 말한 내용을 발췌해 불자들이 새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 가이드북에는 양성평등의 개념, 그리고 차별의 요인이 되는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불교의 성평등 사상 및 신행활동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사례를 실었다.

김영란 소장은 "많은 여성 불자들이 국내 불자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많은 차별을 느낀다고 한다"며 "이번 지침서에는 그런 불편사례 리스트를 만들어 싣고 다 같이 공유하면서 생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이 설명하는 불편사례는 사찰 법당 자리를 두고 남녀를 차별한다거나, 종단의 주요 직무를 비구 스님만 맡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지침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관점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처한 상황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점들을 짚어보는 내용도 마련했다.

김영란 소장은 "양성평등 가이드북의 최종본이 나오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신도들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지침서를 통해 재가불자들이 생태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한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인천불교총연합회 신년 하례법회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덕해)는 1월 4일 구월동 인천불교회관 4층 대법당에서 '인천시민 안녕 및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 덕해 스님(황룡사 주지)을 비롯하여 명예회장 일초 스님(삼계종 총무원장), 탄공 스님(보화정사 회주), 경원 스님(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등 인천불교 지도자 스님 등이 참여했다.

회장 덕해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온 인천불교총연합회가 앞장 서 인천 발전과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호국불교조계종 합동 가사불사 점안



(사)호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유심)은 구랍 8일 총무원인 부산 초량동 관음정사에서 합동 가사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유심 스님, 종회의장 일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임원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법회에서는 종단 각 사암별로 불사한 가사를 총무원 대법당인 관음정사에서 합동 점안했다.

총무원장 유심 스님은 축사를 통해 "가사불사는 공덕 중의 공덕이며 이를 받는 수행자는 항상 그 중함을 알아 중생을 위로하며 먼저 내 마음을 밝혀 바로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051)468-5657 노덕현 기자

동국대, 신춘문예 당선자 6명 배출

동국대가 올해도 신춘문예 당선자 6명을 배출하면서 문학 전통을 이어갔다. 동국대는 2013년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서 6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동국대는 1월 1~2일 발표된 중앙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발표에서 △동아일보 단편소설 부분=송지현(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한국경제 장편소설 부문=최지운(문예창작학과 졸업), △동아일보 문학평론 부문=임세화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과정), △조선일보 문학평론 부문=이선희(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 석사과정),△서울신문 문학평론 부문=유인혁(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세계일보 문학평론 부문=기 혁(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재학) 등 모두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노덕현 기자

출강 및 통신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대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교육원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051-466-1959)·제주교육원(☎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새해 포교결집대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금정산의 첫 해맞이를 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1월 1일 범어사와 통도사, 동화사를 순례하는 포교결집대회를 개최했다. 범어사에서 열린 법회에서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신년 법문을 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부산서 열리는 '정전 60년 평화법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30여 단체 3천여 참가대중이 통도사를 참배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불자들 한마음으로 '한반도·세계평화' 기원

조계종 포교원, 새해맞이 포교결집대회…1월 1일 범어사

2013년 계사년 1월 1일 새벽 3시,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금정산 범어사 설법전에 전국 불자들이 운집했다. 입추에 여지없이 빽빽이 앉은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했다. 법당에 들어오지 못한 불자들은 문 밖에서 추위를 이기며 함께 기도 삼매에 들어갔다. 매서운 동장군도, 상념도 불자들의 신심을 흔들 수 없었다.

이들은 모두 '2013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포교·신도단체 새해맞이 포교결집대회'에 참가한 불자들. 전국 30여 포교단체가 참가한 이날 결집대회는 범어사와 통도사, 동화사를 거쳐 회향하는, 순례의 길로 꾸며졌다.

새벽 4시, 새해 범어사에서 첫 예불이 시작되고, 이어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은 법회의 막이 올랐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태양 같은 부처님 법 더욱 빛나고, 진리의 수레바퀴 항상 구른다(佛日增輝, 法輪常轉)"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계사년 신새벽에 태양처럼 빛나는 부처님을 맞이하는 이 자리는 지혜와 자비가 중중무진 화엄법계의 거룩한 현장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환하게 피어나는 한송이 꽃"이라며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멈추고 전쟁을 중지하자는 협정을 한 지 어언 60년이 된 해로 이제는 가슴 아픈 전쟁과 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은 범어사와 함께 부산에 있는 UN묘지에서 수륙재를 거행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 평화기원 학술행사와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전쟁에 참여한 UN참전국을 비롯해 전쟁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영가들을 추모하고 서로간의 화해, 용서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립과 경계의 벽을 넘어 한 본래 자리를 확인해 안락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3000여 불자들 운집
범어·통도·동화사 순례
금정산 첫해 보며 소망 빌어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역시 정전 60주년 세계평화 법회를 통해 불도(佛都) 부산의 발전을 이끌 것을 천명했다.

수불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부산에서는 '정전 60주년 한반도와 세계평화 기원법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의 뿌리인 부산 불교계의 전 사부대중은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이번 행사를 기필코 여법하고 장엄하게 치러내야 한다"며 "부산 불교와 한국불교는 이 법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힘찬 도약의 날개를 펴게 될 것이다. 한국불교의 중흥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덕담도 잊지 않았다. 수불 스님은 동참 대중들에게 "바쁜 일정에도 부산 범어사의 새해맞이 포교결집대회에 동참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새롭게 떠오르는 계사년 첫 황금햇살처럼 상서로운 가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바란다. 함께 한국불교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앞장서자"고 덕담을 전했다.

이날 참가 사부대중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발원문도 발표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대표로 낭독한 평화발원문을 통해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이념적 대립으로 분단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고, 지구촌 또한 분쟁과 대립으로 사람들을 멍들고 있다. 그것은 깊이를 모르는 큰 슬픔"이라며 "분열과 대립에서 화합과 통일로, 경쟁에서 상생으로, 너와 나에서 우리로, 한 물결이 돼 흘러갈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밝혔다.

금정산의 새해 정기를 한 몸에 받은 불자들은 두 번째 법회 장소인 영축총림 통도사로 걸음을 재촉했다.

화엄산림법회가 한창인 통도사에는 1000일기도 회향과 입재식이 겹쳐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9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시작된 두 번째 법회. 참가 대중들은 스님들의 법어를 차분히 경청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세계는 한송이 꽃과 같고, 우주는 한 집안"이라며 "한국 사회는 많은 갈등과 배타심들이 상존하는데, 종교인이 그런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선 안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세계평화, 인류공영, 생태계 보호 등 대사회적 명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불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문이 끝나자 참가 대중은 지원 스님의 인솔 아래 보궁기도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 통도사를 참배한 이들은 경건하게 합장한 채 불탑을 돌며 행렬을 이어갔다.

포교결집법회는 동화사에서 종정예하를 친견하는 것으로 회향했다.

동화사 통일대불 설법전에서 거행된 종정예하 친견법회에는 결집법회 1200여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동화사와 대구지역 불자 등 200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정전 60주년 평화 법회 예정
한국불교 위상 강화 기원
참가자 "신심 고양 뜻 깊어"

이날 진제 종정예하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법은 신심이 있는 자만이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며 "신심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삼생의 업장을 녹이니 법을 바로 듣고 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 번의 연이은 법회에서 포교원은 '지구촌 빈곤아동 돕기 모금'을 진행했으며, 불자들의 자발적 동참도 이어졌다. 향후 기금은 UN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발원하고 신심 고양, 나눔까지 챙길 수 있었던 이날 법회에 대한 불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은영(광주 운암동, 44세)씨는 "흥청거리는 일반 행사보다 의미있는 해맞이 행사일 것 같아 불자인 언니를 따라 가족과 함께 오게 됐다.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길 기원했다. 불교가 생활 속에 늘 가까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덕중(서울지역단 포교사단, 56세)씨는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 중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범국민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취지여서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며 "사찰에서 일어나는 각종 훼불과 방화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간 평화와 가람수호에 앞장서는 포교사가 될 것"이라고 신년포부를 밝혔다.

김진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40세)씨는 "전국에서 모인 신심깊은 불자들을 위해 떡국 봉사로 새해 첫날을 맞아 무척 뿌듯하다"며 "부산 불자의 한 사람으로써 2013년 부산 범어사에서 준비하는 '정전 60주년 한반도와 세계평화 기원법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의 불자들도 부산을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해맞이 행사에는 지원 스님(포교원장), 송묵 스님(포교부장), 법상 스님(포교연구실장), 중원 스님(용주사 포교국장), 혜안 스님(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을 비롯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고원영 서울불교산악회장, 계영석 포교사단서울지역단장, 강상구 언론인불자회 회장 등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범어사=박경수 부산지사장 동화사=손문철 대구지사장

평화 발원문

시방세계에 상주하시는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계사년 해맞이 법회를 마련하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드리오니
자비로서 섭수하여 주소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모든 잘못을 참회하고
합장 발원하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같은 말, 같은 정신, 같은 육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이 뼛속까지 사무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가족 또한 종교적, 이념적 분쟁과
대립으로 그 뼈아픈 상흔이 사람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를 모르는 큰 슬픔입니다.

이 세상의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시는 부처님!
세계는 하나의 꽃이요 만물은 한 뿌리일진대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원하오니
분열과 대립에서 화합과 통일로
경쟁에서 상생으로
너와 나에서 우리로
한 물결이 되어 흘러 흘러갈 수 있도록
자비광명 비추어 주옵소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 자 격 : 1. 2013년 봄 수계자까지 가능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모집인원 :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준 비 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 2013년 1월 15일(음력 12월 4일)~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 2013년 1월 31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홍륜 · 주지 일진

2013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 모집대상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3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 ○○명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율주 홍륜 · 주지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법 통해 지속 수행 가능 큰 장점

(觀法)

한마음공생실천과정 10주년 맞아

자신의 일상을 공부재료로 삼아 생활 속에서 체득해 나가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인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이 10주년을 맞았다.

인간관계 · 건강 · 가정 · 경제 등 개인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거쳐간 사람들만 벌써 854명이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반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공부를 되짚어보고 수행력을 증진시켜 실생활에서 닥치는 경계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힘을 기른다.

알코올중독 아버지와의 문제, 남편과의 갈등, 트라우마로 인한 대인공포증 환자 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비밀을 갖고 있는 이들도 공생실천과정을 거치면서 "어디에서든 당당하고 자유롭게 걸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마음과학원은 2012년 10월 6일 한마음공생실천과정 20기를 모집하고 12월 22일 회향식을 겸한 졸업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2주간 7개 팀으로 나눠 교육받은 35명의 교육생들이 자신들의 교육과정 기간 동안 체험하고 느낀 것을 개그와 율동, 상황극 등으로 발표해 참석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좌).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일반인들과 나누기 위해 2005년 11월에 열린 제1회 마음공부포럼(우).

12주간 하루일상을 공부재료로 삼아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매년 3 · 9월 교육생을 모집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비용은 10만원으로 다른 명상수행 프로그램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지원 자격은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마음공부에 관심있는 종교를 초월한 남녀노소 모두가 대상이 된다. 교육생들은 가족 · 직장생활 · 인간관계 · 건강 · 경제 · 사회 · 지구문제 등 생활 속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가장 절실한 공부재료를 한 가지 고른 뒤 팀을 배정받는다. 각 팀의 구성원들은 모두 같은 주제를 공부재료로 삼은 도반들로 모이게 된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4~8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 모여 '일체의 경계를 무조건 용광로에 넣기', '진실하게 맡기기' 등 매주 주어지는 실천과제를 일상에서 실천한다. 이후 실천에서 느꼈던 점, 의문점 등을 매일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www.hansi.org)에 일지로 작성해 도반들과 공유하고 토요일마다 다른 팀원들에게 내용을 발표한다. 혼자서 수행하다보면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온 · 오프라인으로 공유하면서 이러한 의문점은 해결된다.

한마음과학원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팀원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만드는 주체가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 문제의 해결법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12주 동안 교육생들은 서로 수행 점검을 해주고 가족 · 친구처럼 교류한 뒤 12주차 마지막 날 졸업발표회 통해 자신들이 교육기간동안 체험하고 느낀 것을 개그와 율동, 상황극 등으로 발표해 다른 팀원들과 공유한다.

12주간 수행으로 당장의 고민거리가 100%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이 처한 문제도 새롭게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힘을 키운다.

수료생 심정희(51 · 여) 씨는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궁극적인 문제는 나에게서 왔고 나를 찾는 일인데 그 '나'라는 것이 주인공을 찾는 것임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진덕(43 · 남)씨는 "예전 같으면 상대방을 원망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짜증 섞인 상황을 만든 것도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내 자신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보편 · 객관적인 수행방법론 '한마음공생실천과정'

한마음선원의 연구 · 교육기관인 한마음과학원은 2001년 인문 · 사회 · 자연 · 의학 · 공학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기획팀을 구성해 1년여 동안 국내외 유수 수행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며 오로지 '실천'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02년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이 탄생됐다. 한마음과학원은 2002년 10월 첫 기수를 모집하고 2012년 12월까지 20기의 총 8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마음과학원 김용환 기획조정실장은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면 주로 개별적인 경험과 체험 중심이 대부분이었다"며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이와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좀 더 보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불법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전체 3개 교시로 진행됐다. △불교와 과학 △마음법의 도리 등을 통해 불법(佛法)이 과학적 진리와 탐구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주인공 관법의 원리와 이치, 실천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후 3교시는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 직접 적용해 실천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그러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2004년부터 좀 더 생활 속 불법수행을 실천 · 체험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수업은 특강 형태로 전환하고 철저하게 배운 바를 자신의 삶과 생활에 적용 · 실험해 보는 것에 역점을 뒀다.

한나무인성교육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남녀노소, 직업 · 학력에 제한 없이 마음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여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특화된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 스스로 주인이 돼 자성을 밝혀 나가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초 · 중등 교사들이 주축이 돼 2004년부터 6년간의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초 · 중등용 교재인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 刊)를 2010 · 2011년에 발간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가정에서 아버지 입장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마음을 닦아 나갈 수 있는 '한마음 아버지마당'이 개발됐으며 학부모, 청소년, 직장인 등 입장과 처지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연구 · 개발 중에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호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10년여 동안 운영돼오면서 점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기 시작했다.

BBS 불교방송이 2011년 '마음, 인생을 바꾸다'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2주간 대담 형식으로 소개해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불교TV는 기획뉴스로 수 차례 다루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소개했다.

이런 성과로 초기 불교신자 및 선원 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했던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2012년 12월 20기 과정을 마치면서 불교신자와 일반인의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불교 신자들만 공부하는 수행프로그램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누구든 쉽게 참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한마음과학원은 "기존의 염불, 경전암송, 진언 등의 전통적 불법 수행 이외에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공동체 속에서 언제든지 쉽게 불법 공부를 한마음 관법(觀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불자뿐만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모바일환경 맞는 프로그램 필요

세상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환경이 오프라인의 실제 환경과 버금가도록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환경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불법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향후 온라인을 통한 실천수행 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한마음공생실천과정도 수행자 중심의 이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등을 바탕으로 모바일, 온라인 실천수행프로그램으로 거듭 연구 · 개발될 필요가 있다"며 "불교계에서는 수행 · 교육 · 실천프로그램 제공자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온 · 오프라인 인프라 관련자들이 하나로 만나지는 생태계 구축에 연구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031)471-692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풍경소리 명상문화강좌 개강

사진 · 독서 등 대중위한 응용명상 마련

전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법음을 전하는 풍경소리(대표 혜자 스님)가 2013년 명상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11개 강좌들은 명상과 심신치유를 바탕에 두고 사진 · 독서토론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대화형 독서토론과 명상을 결합한 '나를 찾는 소셜리딩'과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마음과 주변 관계를 돌아보는 '나와 당신을 만나는 사진교실', 어른들을 위한 놀이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어른이 놀이터'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심리학적 방법들로 마음을 훈련하는 '자기성장 셀프코칭'과 '자기성장 감성코칭', 공감능력을 키워 아이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엄마를 위한 공감대화법'도 함께 추가됐다.

5년 여간 풍경소리 화가로 활동하고 현재 '마음그리기 교실(동양화)'을 운영하고 있는 박준수 화백의 새 강좌 '미술 쌩초보교실(드로잉반 · 소묘반 · 인물화반)'은 수준별 개인지도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미술의 문턱을 낮추었다.

이밖에 풍경소리 학교의 대표강좌인 '솔개교실'은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애명상과 힐링요가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되며 '마음챙김(Sati) 명상교실'은 명상문화의 보급을 위해 무료로 운영된다. 강좌 세부안내는 풍경소리 홈페이지(www.pgsori.net)을 참고하면 된다. (02)736-5583

이나은 기자

힐링 필요한 청년들 모여라!

청년불자 위한 법륜 · 혜민 · 정목 스님 토크콘서트

청년불자들의 삶과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서울 · 경기지역 불자청년회는 '토크콘서트 두런두런'을 마련하고 멘토 스님으로 떠오른 법륜 · 혜민 · 정목 스님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은 1월 12일 오후 5시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청년 불자들의 현실과 나아갈 바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아자~ 힘내자!'를 주제로, 유나방송의 정목 스님은 2월 23일 오후 5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탁월한 안목의 소유자, 당신을 위한 아주특별한 명품콘서트'를 주제로,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3월 23일 오후 5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청년 불자들을 위한 즉문즉설-이제 우리차례다'를 주제로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서울 · 경기지역 불자청년회측은 "힐링 열풍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교청년회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웃종교의 훼불사건, 불교계의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불교청년회를 지켜온 청년불자들도 힐링이 필요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가희망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입장료는 1회당 만원이고 선착순이다. (02)735-3724(두런두런행사위원회)

이나은 기자

초기불교 교리 수행체계 강좌



김재성 교수 강사로…20주 과정

초기경전을 직접 읽으면서 초기불교를 이해하는 수업이 20주 과정으로 열린다.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는 1월 7일~6월 3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7시 서울종로 삼청동 '명상의 집 자애'에서 '초기불교의 이해 - 붓다의 말씀에서'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초기불전을 통해서 초기불교 교리와 수행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초기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삶, 세계관, 수행자들을 위한 가르침 및 수행 등을 배우게 된다. (070)8616-4837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 북 교 구 종 무 원

부곡·화명·속초복지관 우수기관 선정

보건부 발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101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201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우수기관을 101곳 선정했다. 사진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사진왼쪽)과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이 문제행동을 위해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은 1월 3일 '2012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결과'와 최우수 기관 38개소, 우수기관 6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101개 기관 중 7곳이 가톨릭·개신교 단체가, 2곳이 원불교가 운영하는 시설이었으며 불교계 시설은 5곳으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3개 분야 3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2010~11년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품질평가는 공통지표(기관운영, 인적관리, 이용자영역, 서비스제공) 4개영역과 개별 서비스별 지표 및 이용자 만족도 등 6개 영역을 종합평가 하는 것으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와 이용자 설문을 통해 진행된 만족도 평가가 병행됐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선)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를 통해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미술, 언어, 놀이, 인지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선 사회복지사는 "언어의 이해나 표현의 문제로 인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언어 능력 및 기술의 향상능력을 증진시켜 원활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며 "미술치료에서 미술의 다양한 것을 활용하면서 만다라 그리기를 통한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파란나라'를 운영해 종합적인 원스톱(one-stop) 재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 상담과 전문평가진단 및 판정을 통해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교육을 제공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화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란)은 '문제행동 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2009년부터 시행했다.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 및 가족의 발달을 돕는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복지관은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은 저소득 아동들을 상담하면서 바우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장치료를 받게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연)은 영동권중에서 가장 큰 아동발달센터인 속초아동발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계숙 팀장은 "속초아동발달치료센터는 2007년부터 전문상담치료사가 아동을 상담해 장기간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용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담하는 등 시설 이용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울산동구사회복지관(관장 차성근)은 연화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상의 문제와 증상들을 평가와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미술·언어치료를 도입해 개별·집단치료와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제공기관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에서 이번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12개 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하고, 상위 30% 기관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우수기관 마크가 새겨진 현판을 수여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시 우수기간을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종사자 처우개선,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고령자기업 '플러스카페' 오픈

종로 복지관, 서울시 최초 공공기관에 유휴공간 활용



서울시 종로구청 1층에 마련된 '플러스카페'

서울시 최초로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곳에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파는 카페가 문을 열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월 8일 서울시 고령자기업 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플러스카페(Plus cafe)'를 오픈했다.

종로구청 1층에 마련된 '플러스카페'는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종로구청이 부족한 창업지원금을 추가 보조했으며, 향후 운영과 관련해 임대료 및 각종 세금할인 등의 지원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모두의 삶에 도움(Plus)이 되자'는 의미를 지닌 '플러스카페'는 지난 가을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7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며, 착한소비를 위한 공정커피를 사용함으로서 바쁜 직장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이번에 오픈하는 '플러스카페'는 서울시와 종로구청,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착한소비를 지원하며, 특히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서울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 스님)이 '2012년 성북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턱 넘어 행복한 새봄마을' 사업의 무장애업체 1호점의 문을 열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무장애업체 1호점 탄생

성북구 기부업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시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문턱넘어 행복한 새봄마을' 사업에서 무장애업체 1호점이 탄생했다고 지난 12월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취약계층의 삶의 반경을 넓히고 지역 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디딤돌 기부업체와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복지관은 성북구보훈회관 봉사단체와 함께 성북구 내 300여 개의 디딤돌 기부업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성북구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딤돌 기부업체 25곳과 근린생활시설 4곳에 경사로가 설치됐으며, 현재 무장애업체를 인증하고 있다. 이 중 무장애업체 1호점으로 인증된 '갈비명가이상'에게 지난 20일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아내에게 간 기증 받은 남편의 사투

생명나눔, 1월 선정환자 장상택씨

1994년 통신회사를 다니며 성실히 근무하던 장상택(40·남)씨는 건강검진을 받다 간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다. 그러나 20대 젊은 나이에 경제·시간적 여유가 없어 특별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이후 장씨는 결혼 후 2007년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장상택 씨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명은 복막염과 간경화. 그 동안 여러 번 건강 악화 신호가 있었지만 참았던 게 화근이었다.

아내는 젖먹이 아이를 업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남편 간병을 했다. 몸 추스를 새도 없이 간병과 육아에 고생하던 아내는 2008년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은 몸이 아프면서도 안정을 취하지도 못한 채 간병하는 아내를 보면 미안해서 자꾸 목이 메었다. 온 몸으로 치료에 매달렸지만 점점 나빠졌다.

그 동안 생활비라도 벌려고 어린 아이를 이모에게 맡긴 채 마트 일용직으로 일하며 남편을 간병하던 아내는 큰 결단을 내렸다. 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가망이 없는 남편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한 것이다.

장상택씨는 아내의 기증으로 지난해 10월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다. 간 절단면과 위장이 유착되어 2차 수술을 하게 된 것. 당장 수술비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다 일정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오랜 입원과 간이식 수술비로 불어난 대출금이 5200만 원, 앞으로 수술비와 치료비는 3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막막하다.



장상택씨(40·상세불명의 간경화) 부부

세 식구가 건강하게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안양시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800명 모집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은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안양시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분야는 각 유형별 20개 사업단으로 800여 명의 노인을 모집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증명사진 2매, 이력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월 18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안양4동·박달2동·석수2동 주민센터등로 문의하면 된다. (031)455-055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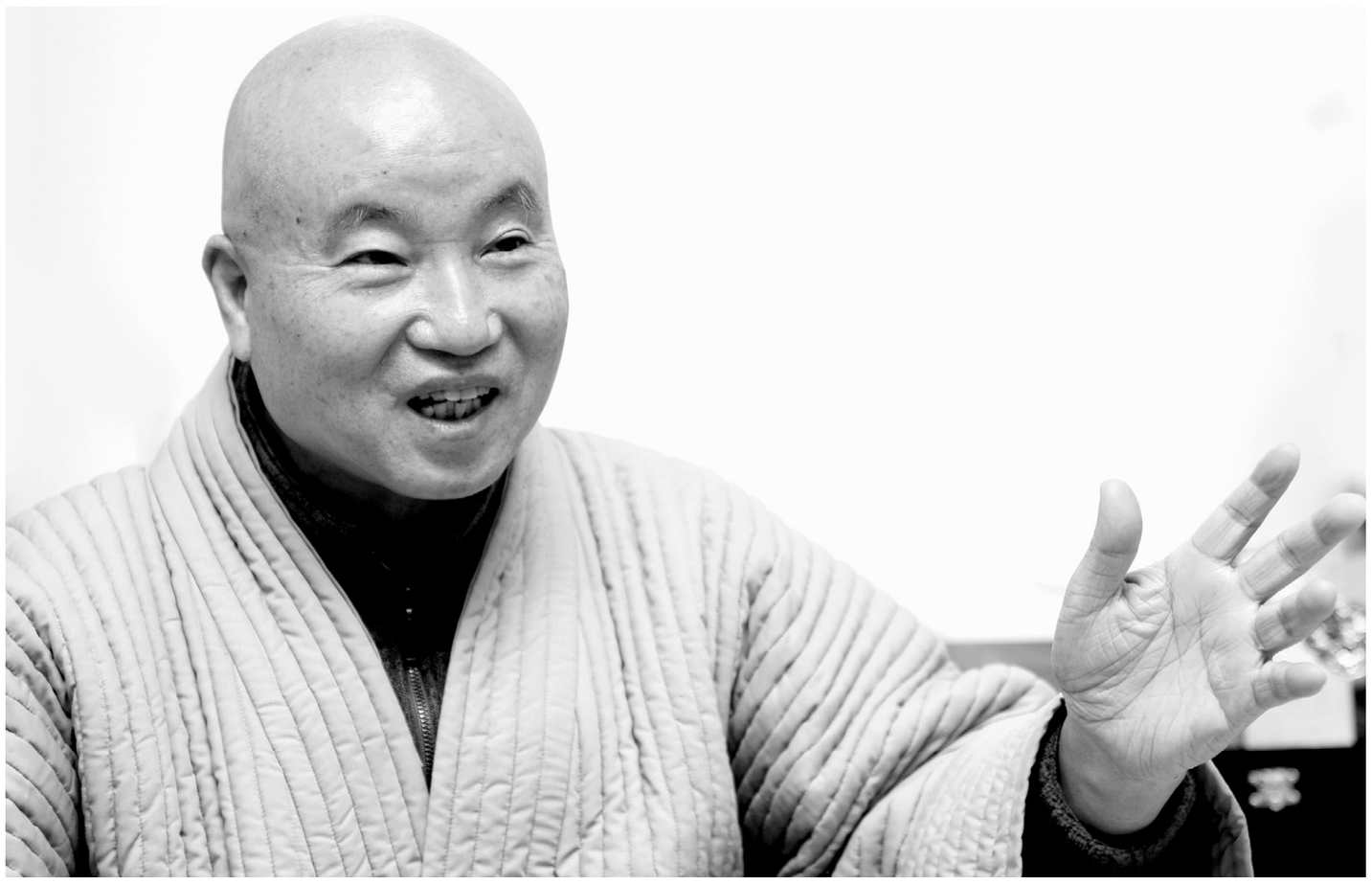
“금생에 닦으면 그 공덕 내생에도 이어져”

통도사 화엄산림법회-광명각품 보살문명품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한 생각 돌이키면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깨닫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하고 닦는 습관이 필요하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듯 무심히 닦고 노력하는 삶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통도사 화엄산림 법회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불법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법산 스님은 … 15세에 남해 화방사로 출가한 법산 스님은 1967년 경남대 전신인 마산대 종교학과에 입학하면서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故) 서경수 동국대 교수의 권유로 1969년 인도철학과에 입학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중론’을 전공했다. 1985년 6월 중국문화대학에서 ‘보조선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다음 해인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날마다 좋은날이라 하는 건 날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말하는 겁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맑고 밝고 깨끗한 기운이 펼쳐 나와야만 항상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고 꿈도 뒤숭숭하고 어깨도 찌뿌둥하고 허리도 한 짐 짊어진 거 같고 그러면 자버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몸에 끄달려 오늘 분위기를 망쳐서 되겠느냐 일어나기로 한 생각 바꾸면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의 의미가 때때로 한량없는 법 속에 갇혀 있는 거 같지만 그 속에서 한 생각 깨어나라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담겨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 용기를 내어 일으키면 날마다 삶의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즐겁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해가 뜰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입에 넣으면 껄끄러운 보리밥도 꼭꼭 씹으면 단맛이 배져 나옵니다. 잘 삼키면 힘이 솟아 나오게 돼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모두가 훌륭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항상 24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바꿔나가게 되면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광명각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훤하죠. 밝은 빛을 깨우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로 법문을 하려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강의를 하러 오기도 전에 벌써 이 공간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깨달음의 성품이 다 들어 있는데 개인이 코팅으로 가려 놓고 막아 놓아서 그것을 벗기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꽁꽁 앓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걸 확 치고 나오면 되는데 가려진 커튼을 걷지 못하고 닫혀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방광불화엄경〉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다니는데 두 발을 의식하면서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발은 디뎌 놓는데 마다 광명이 납니다. 가는 곳마다 자꾸 설법을 해주는 모습이죠. 32상 80종호 모습에는 광채가 납니다. 밝은 광채가 난다 해서 금인이라 해요. 금으로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언설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입은 금으로 돼 있습니다. 금쪽 같은 말씀만 해주시죠. 참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발을 옮겨 놓아서 가는 곳마다 빛이 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합니다.

일체 세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세간이라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때 묻은 마음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빨간색을 묻혀 놓고 파랗다고 하고 파란 것을 묻혀 놓고 빨갛다고 합니다. 노란 안경 낀 사람하고 파란 안경 낀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저마다 깨달음의 성품 있지만
장벽 때문에 알아보지 못해
스스로 수행하며 닦고 깨달아
회향할 수 있는 마음 가지면
밝고 맑은 지혜 되살아나

빨간 데 걸리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란데 걸리게 됩니다.

새겨진 정보와 지식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고 고집을 쓰고 꽁꽁 거기에 묶여 가지고 사니 답답하고 고생스럽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 법이 더 절실합니다.

마음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는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이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번뇌망상이 없어져요.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하고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 살기도 없어지고 부글부글 끓는 원한도 없어져버리죠. 그러면 온갖 고통도 사라져 버립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려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상에 걸림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걸려듭니다. 거기에 가능한한 걸리지 말고 사는 게 좋습니다. 자꾸 자꾸 수행을 해나가면 빨리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닦으면 밝아집니다. 해 뜨면 차차 밝아지듯이 말이죠. 내 마음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고 가는 것같이 말입니다.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도 깨쳤다고 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소리 하면 그건 가짜에요. 어두운 동굴에 불을 들고 갔으니 밝아졌을 뿐입니다. 맛이 있으면 그냥 맛있는 겁니다. 번뇌망상이, 나를 옥죄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마음이 아름답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동요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본래 몸과 마음도 이와 같으니 수승한 지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야의 지혜는 걸림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잘 배워서 깨달으면 훤하게 밝아서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분별심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불가사의한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되지 않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참선하고 〈금강경〉 읽고 있는데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될 날이 있습니다. 금생이 안 되면 내생, 내생이 안 되면 내내생에 될 겁니다. 금생에 열심히 닦고 나면 그 공덕은 내생에도 이어집니다. 어제 목욕을 잘해 놓으면 오늘 깨끗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반드시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집착 않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모두가 밝고 명랑하게 깨달으면 다 밝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가장 급한 것은 내 마음 닦는 게 중요합니다.

염불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권해보십시오. 학교에 가서도 자면서도 관세음보살을 늘 염불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걱정 근심 번뇌 망상 게으름이 줄어들어요. 공부도 잘돼요. 물론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히 참된 진리의 법을 알아차리면 크고 밝고 빛나는 내 마음의 밝은 생각이 그대로 피어나게 됩니다.

구름이 끼면 오늘 해가 없다고 그럽니다. 해가 없는 게 아니죠. 구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구름만 걷히면 밝은 태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만 없어지면 반야의 지혜는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일체의 지혜를 갖고자 하면 회향심을 잘 일으켜야 합니다.

회향심은 돌이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돌려주는 마음이죠. 세상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울에 비치면 거울에 얼굴이 있습니다. 거울에 담겨 있는 내 얼굴을 내가 봅니다. 눈곱이 끼어 있는지 넥타이가 비뚤어졌는지 거울이 가르쳐 줍니다. 본래 가진 것이 아닌데 되돌려줘요. 거울이 돌이켜주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즉 지혜 있는 부처님 같이 성스러운 사람은 생명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모든 법을 돌이켜줍니다.

회향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도 주고 추운 사람한테도 옷도 주죠. 보시도 회향입니다. 거울은 무한 보시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온갖 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보시를 더 잘해야 합니다. 또한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써야 환영받습니다. 잘 쓰면 환영받고 칭찬받고 남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생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늘 회향할 수 있는 공양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부처님과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됩니다. 일체 법에 잘 순응해서 잘 알게 되면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신통력이 나투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면 법의 성품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시방에 법을 구하여서 변함이 없습니다. 닦는 바 공덕이 전부 만족하게 됩니다. 옳다 그르다 차별 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처님의 견해에 들어서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밝고 맑아서 지혜가 내 마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광명 깨달음의 지혜로 훌륭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불국사, 고려 · 초선 초 양식 복원”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 경계展’에서 가치 재조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반에 신라 건축문화의 정수로 불리고 있는 경주 불국사의 복원 40주년을 맞아 불국사 복원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한양대박물관(관장 이희수)은 2월 23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境界 · 警戒)전’을 개최한다.

일반에는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700~774)이 지은 통일신라시대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축과는 모습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었다. 광화문과 숭례문의 복원 당시에도 복원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불국사는 임진왜란 때 전각 대부분이 소실됐다. 현재의 불국사는 40년 전인 1970~197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복원한 것.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자금과 기술력이 집약됐지만 공사가 진행될 당시 신라시대 사찰 양식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복원은 고려와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토대로 진행됐다.

전시전에서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의 경북 순시 당시 정부 주도로 진행되게 된 부분부터 시작해 불국사 복원공사의 과정이 상세히 공개됐다.

40년 전 복원공사 기록인 일간 및 월간 공사일지를 비롯해 복원 청사진, 정부 공문서 등 자료와 당시 공사 사진들이 전시됐다. 또 박정희 · 육영수 대통령 부부의 시찰 장면 등도 공개됐다. 이는 당시 공사 현장감독이었던 유문용 씨가 한양대 측에 일괄 기증한 것들이다.

전시장에는 복원사업을 진행한 김정기 · 김동현 前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이 진행한 구술간담회 내용이 실려 있다.

1970년대 불국사 수리복원 총책임자였던 김정기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증언은 불국사가 다른 양식으로 지어졌음을 뒷받침한다.

김 前 소장은 “당시 신라 목조건축의 실상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때문에 복원팀은 남아 있던 석단 · 석교 등을 제외하고 고려 중기~조선 초기까지의 양식을 혼합해 불국사를 재건했다. 다시 말하면 불국사에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의 모든 양식을 모으게 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40년전, 신라사찰 건축 고증 부족
“복원은 원형 충실해도 현대 창조물
잘못된 양식은 차기 복원 과제”
문헌자료 입체영상화…현재의 8배



1910년대 불국사 모습(왼쪽 상)과 1973년 복원공사 모습(왼쪽 하)과 현재 모습(오른쪽)

그렇다면 불국사는 신라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관련 전문가들은 양식이 당시 현대식으로 일부 진행된 바는 있지만 신라 건축문화임은 맞다고 입을 모은다.

배원정 한양대박물관 수석학예연구사는 “복원이 아무리 고증을 통해 원형에 충실해도 결국 현대의 창조물 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잘못된 양식은 차기 복원의 과제”라고 말했다.

고건축의 실체가 확실히 규명될 때까지 복원을 미루고 그대로 보전하는 유럽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상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제라는 것.

그렇다면 불국사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문헌자료에 의하면 원래의 불국사는 그 규모가 현재의 8배인 2000여 칸에 달했다고 한다.

박물관 측은 국내 복원전문가와 협력하여 고서의 기록을 토대로 불국사의 웅장한 모습을 삼차원(3D) 입체영상으로 복원 제작, 55인치 대형화면을 통해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문화재 복원을 위한 여러 개념을 소개하면서 복원대상의 선정, 복원의 기준과 방법론을 생각해보는 코너도 마련했다.

문화재가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옛 공법, 옛 공구로 고증을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차이다. 전통 건축 복원의 숨은 논란을 관객 앞에 끌어낸 이번 전시는 국내 고건축사와 대중을 소통시키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냈다. (02)2220-139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tip. 문화재 복원 관련 개념

문화재 보존(Conservation)은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복원(Restoration)은 후대에 덧대어 진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구성요소를 재조립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보다 이른 시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보전(Preservation)은 퇴락의 속도를 늦추고 현 상태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문화재청, 불교문화재 11건 보물 지정

전등사, 청련사, 용문사, 봉선사 불상 괘불 등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11건의 불교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785호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江華 傳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17세기 전반에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지에서 활동하던 수연(守衍) 스님이 수화승(首畵僧, 우두머리 조각승)으로 참여해 1623년에 조성한 불상이다.

보물 제1786호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江華 傳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은 지장보살상과 그 좌우에 무독귀왕, 도명존자, 시왕(十王)과 귀왕, 판관, 사자상, 동자상, 인왕상 등 명부전의 권속 총 31구의 상을 포함한다.

보물 제1787호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江華 靑蓮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예전부터 청련사의 주불로 예경(禮敬)되었던 것으로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1232년에서 127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 제1788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출토유물 일괄(南楊州 水鍾寺 八角五層石塔 出土遺物 一括)’은 시기를 달리하여 왕실에서 발원 납입(納入)한 것으로 조선시대 초기와 후기의 왕실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로 발원문과 명문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물 제1789호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安城 靑龍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은 임진왜란 이후 대형 소조불상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보물 제1790호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은 고려후기, 14세기에 크게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금동보살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상이다.

보물 제1791호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驪州 神勒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조성자와 조성 시기(1610년)가 분명하다. 인일(仁日)이라는 새로운 조각승의 이름이 확인된다.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종좌상

보물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南楊州 奉先寺 毘盧遮那三身掛佛圖)’는 비로사나삼신불(毘盧舍那三身佛)과 권속을 그린 괘불도이다.

보물 제1793호 ‘가평 현등사 동종(加平 懸燈寺 銅鍾)’은 아담한 크기로 종신(鍾身)을 여러 개의 구획선으로 나누고 그 안에 연잎무늬, 당초무늬, 파도무늬 등을 화려하게 새겨 넣어 장식을 강조한 범종이다.

보물 제1794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九]’는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剌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해설한 것을 세종 31년(1449)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번역하여 세조 7년(1461)에 완성한 것이다.

보물 제1795호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불좌상 복장전적(安城 淸源寺 乾漆阿彌陀如來佛坐像 腹藏典籍)’은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2, 40, 41(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12, 40, 41)〉 3첩과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6)〉 1첩이다.

노덕현 기자

율리 영축사지서 통일신라 금당지 발견

울산박물관, 쌍탑일금당식 가람 배치 확인

‘율리 영축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당지가 발견됐다.

울산박물관(관장 김우림)은 1월 13일 울주군 영축사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동탑에서 서쪽으로 43m 떨어진 곳에서 서탑 기단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쌍탑 양식은 통일신라시대 지어 진 사찰들의 공통점이다.

울산박물관 측은 “쌍탑의 중심축에서 북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평면 방형 16.4×16.4m)의 금당지가 확인돼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쌍탑일금당(雙塔一金堂)식 가람 배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울산박물관은 지난 10월15일부터 영축사의 사역과 규모, 가람 배치 등 통일신라시대 울산 불교문화의 기초 연구 자료와 무너진 석탑의 복원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동탑과 서탑은 탑의 영역을 표시하는 지대석인 탑구(塔區)가 확인돼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천군리 삼층석탑의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 지방 사찰 중에서도 사격(寺格)이 높은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금당지 남쪽에서 석등 1기가 확인됐으며, 8세기 비석편 1점과 금동불상 2점, 석탑 상륜부 복발편과 보륜편 1점을 비롯해 이곳이 영축사지임을 나타내는 ‘靈鷲’(영축)명 기와 등 다량의 기와가 확인됐다.

김우림 관장은 “금당지, 석탑, 석등, 중문지 등의 가람배치 확인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울산지역 불교문화 연구에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판단하며 통일신라시대 울산 불교문화의 위상이 뛰어났음을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울산박물관은 앞으로 탑지 하부 조사 및 사역 범위 확인 등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해 영축사지의 전모를 밝힐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천태불교 논문 공모

원각사상硏, 2월 20일까지

천태종 종학연구기관인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이 2월 20일까지 천태불교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 주제는 불교학, 불교사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로 응모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응모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천태종 홈페이지 천태학자료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선정된 논문은 2013년 5월 말로 예정된 천태불교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천태학연구 제16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02)3460-5226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제4회 원효학술상 공모

2월 28일까지 접수…3개 주제 중 택일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4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동 · 서양 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중 1개다.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야 하며,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것에 한한다. 저서는 ISBN 등록본 이어야 한다. 접수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수상작은 전임강사 이상 교수 부문 저술상 1000만원, 논문상 700만원, 박사과정 후 비전임교수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원, 석 · 박사과정 학생 금상 300만원,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4월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5월 중 개최된다.

한편, 원효학술상은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2009년 제정됐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전북지역, 새해 포교 사업에 전력

금산사…청소년 · 일요법회 활성화

전북지역단…전북대 병원불자법회

전북불교시민연대…사찰음식문화원

천천클럽…외국인 근로자 지원나서



전북불교시민연대는 지역특색인 음식문화를 통해 불교문화를 전파할 예정이다. 부설기관인 자연음식문화원(원장 백희정)이 전주중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요 사찰과 포교 신행단체들이 계사년 새해 계획을 확정하고 적극적인 전법과 포교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금산사(주지 원행)는 새해 어린이, 청소년 대불련, 청소년 법회 활성화 와 교구내 주요 사찰에서의 일요법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재 교구내 일요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전북불교회관, 송광사 등 9개 사찰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청소년층을 주요 타켓으로 하는 일요법회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 교사 불자법회를 개설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불련, 청년회 법사단을 구성해 지도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대중포교를 위한 지역별 순회법회를 개최해 신도회 결성과 지역 불교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원일 금산사 사무국장은 "지역 교계 실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우선 일요법회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군 장병들과 어린이 청소년 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전법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도 기존의 장례식장 염불봉사, 소년원 법회, 군법당(35사단, 임실 탄약창, 7공수 여단, 부사관학교)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 전북대학교 병원 법당개원을 위해 병원불자법회를 활성화한다.

주정기 단장은 "기존의 포교활동 외에 군 포교활동 등 젊은층 포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이라고 말했다.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유지원 외)는 올해 기존의 사찰음식문화원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색인 음식문화를 통해 불교문화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연사찰음식 강좌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증설하고 중앙중학교의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에 사찰음식강좌를 추가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전하게 된다.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의 활동과 연계해 지역 청소년 불자 조직을 확충하고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 도법 스님을 초청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포살법회를 불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강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전주 천천클럽은 완주 산업단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시로 방문해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 도우미 역할을 진행한다.

전주 참 좋은 우리절(주지 회일)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청년회원들이 함께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최근 발족한 사단법인 착한벗들을 통해 다문화가족사업을 불교저변인구를 늘리는 포교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거사 바라밀봉사단

미얀마에 도서관 건립 기증

2000권 책보관 도서대여 진행


성거사 주지 혜공 스님(맨 뒤 왼쪽에서 세 번째)와 바라밀봉사단은 미얀마 레객짜웅 학교학생들에 도서관을 기증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얀마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시골학교에 불교계의 온정이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성거사(주지 혜공)와 바라밀봉사단(단장 이춘기)은 지난 1월 3일 미얀마를 방문해 양곤시 흘라잉따야 41번가에 위치한 레객짜웅학교(교장 더윤윤윈)에 도서관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도서관은 10여 평의 조적식 벽돌 건물로, 이곳에는 향후 2000여 권의 미얀마 책들이 보관되어 아이들을 위한 장서 및 도서 대여 공간으로 사용된다.

혜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든 공간이지만, 앞으로 미래 미얀마를 책임질 큰 재목들을 키워낼 공간으로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서관이 기증된 레객짜웅 학교는 부족한 학교시설로 인해 1200여 명의 학생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공부하는 곳으로, 양곤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주변의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이다. 당초 순례객들은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장 더윤윤윈 씨의 요청으로 도서관을 지원하게 됐다.

더윤윤윈 씨는 "한국불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완공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성거사와 바라밀봉사단은 도서관 지원에 이어 향후 책걸상, 미얀마도서, 학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거사 순례단과 바라밀 봉사단원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 바간, 혜호 등의 불교유적지들 답사했다. 미얀마=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생명나눔 '나눔의 날' 행사

2012년 결산 및 봉사자상 시상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지난 12월 27일 '2012 나눔의 날' 행사를 갖고 회원, 자원봉사자, 나눔의 집에 대한 시상과 1년 결산을 갖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을 비롯해 회원, 자원봉사자 200여명의 참여했다.〈사진 아래〉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 집에서 모아진 환우치료기금 전달식과 자원봉사자상(가수 주권기,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박규열, 전남대학교 정요셉, 광주숭의고등학교 윤정우)이 전달됐다.

이어 공로패(이연순), 감사패(감사 박도영)가 전달됐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따듯한 관심과 사랑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환우들에게 큰 기쁨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해넘이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소원을 담아 기도정진에 임했다.

금산사, 임진년 해넘이 법회 봉행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 법회가 지난해 12월 31일 김제시 심포항에서 열렸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원감 보연 스님 등 지역 사암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전주, 익산, 김제의 불자 300여 명이 동참해 임진년 한해 신행활동을 마무리 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해넘이 법회는 임진년 한해 동안 쌓인 업장을 소멸하고 계사년 전북불교 발전을 기원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흐린 날씨탓에 해넘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불자들은 각자의 소원을 담아 기도정진에 임했다.

원행 스님은 임진년 한 해동안 불자들의 전법활동과 신행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고 "계사년 새해에도 뜨거운 신심과 열정으로 정진하는 참 된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에서는 새해 아침 모악산 정상에서 새해맞이 산행도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승·재가단체 이웃들에 온기 전해

조계종승보회 · 자비신행회, 연탄 · 난방유 전달



조계종 광주승보회와 자비신행회는 독거어른들을 위한 자비의 연탄을 전달했다.

예년에 없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승가단체와 재가단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의 온정을 전달했다.

광주 조계종승보회(회장 일명)와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지난 12월 27일 독거노인과 청소년 가장 세대에 '힘내라 우리이웃, 자비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연탄 1만장과 난방유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500여 만원 상당의 자비의 연탄은 승보회 소속 사찰과 일반불자,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마련한 것이다.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은 "올해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욱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겨울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달의미를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사회를 위한 나눔의 첫발

참좋은 우리절, 다문화복지사업 법인 설립

전주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일)은 전북지역 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착한벗을 설립했다.

'통합을 넘어 융합으로, 행복한 열린 다문화사회를 위한 나눔' 을 모토로 창립된 사단법인 착한벗들은 전북불교계 최초로 다문화가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불교저변인구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24일 전주 웨딩케슬 컨벤션에서 개최된 창립식에는 마하이주민협의회 상임대표 도제스님,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불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립된 사단법인 착한벗은 새해부터 다문화쉼터 운영과 더불어 사찰음식을 소재로 한 "마음담은 생활문화요리"와 불교명상, 연극, 미술 등을 활용한 "힐링마당" 등 문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인슐린 개발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집중!
식물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문의 : 080-598-9832

희소식
기적의 나무 모링가
(MORINGA)
모링가는 적어도 49가지의 천연식물성 영양소 합성물 부작용이 없는 240가지의 노화방지체, 36가지의 항염증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자연 그대로의 것들이다.
모링가는 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분자 집합체인 피이토케미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출처 : Faizi et al 1992)
장(腸)은 인체의 거울이다.
쾌변(숙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쾌변(숙변)할 수 있지요!!!
맥스모링가로 대장(大腸), 소장(小腸), 쾌변(숙변)
체지방 감량(비움) 해독작용 영양 발란스!!!
변비와 설사의 교대증세 산성체질이나 질병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선 시킬 수 있다.
www.maxbio.co.kr
사무실 02)875-8858 / 공장 031)534-9835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 모집 중)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모집인원
● 35명(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신라문화 정수 황룡사 복원 본격화

경주시 1월 중 연구센터 착공


경주 황룡사지 복원 조감도. 경주시는 올 1월 연구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황룡사 복원에 들어간다.

홍보 · 연구 기능 동시 수행

2014년 12월 완공 예정

전체 복원은 30년 간 추진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황룡사 복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올 1월 중 황룡사지 내에 '황룡사 연구센터'를 착공한다. 황룡사 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시 · 관리 · 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될 황룡사 연구센터를 위해 경주시는 2007년부터 설계와 부지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연구센터는 황룡사지 내 3만3천446㎡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909㎡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14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연구 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지방비 포함 150억 원이 투입됐다.

1층에는 홍보영상관, 학예 연구실,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2층은 전시실, 관람 발코니, 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또한 센터 내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제작 중인 황룡사 목탑 10분의 1 축소 모형도 전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황룡사 연구센터는 장기간 소요되는 복원사업의 비전 제시 및 홍보로 복원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황룡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주시의 황룡사 전체 복원사업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총 4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황룡사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을 끝냈으며, 2015년까지 복원에 대한 심화 연구와 함께 기본 ·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진행된다. 황룡사 전체를 복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290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1500여억 원은 높이 72.9m인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하는데 쓰인다.

또한 이 시기 황룡사 9층 목탑과 함께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나로 알려진 5.7m 규모의 장육존상과 불상을 봉안하는 금당도 복원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마지막 단계로 동 · 서강당, 남회랑 등 황룡사 주요 부속건물을 복원한다. 특히 황룡사 동쪽 일대의 왕경유적지에는 스님들의 거주시설과 템플스테이, 명상센터, 불교미술공예관 등 시설이 들어서며, 황룡사 진입로를 중심으로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쇼핑거리, 숙박 · 음식을 판매하는 신라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시청 대외협력실에 황룡사 9층 목탑 1/20 모형 상륜부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상륜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전통기법으로 조성했으며, 높이 73.9㎝, 황동재질에 순금 도금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황룡사 복원사업의 한 부분인 9층목탑 모형제작의 성과를 일반에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번 복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증 자료를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둠속에 보배 찾는 등불 돼야"

중산혜남 스님 전승강맥 전수법회

혜능·상락 스님 전강제자로 전수받아


중산혜남 대강백 전등강맥 전수법회가 1월 3일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포교원 람림학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상락 혜남 혜능 스님 순.

중산혜남 대강백 전등강맥 전수법회가 1월3일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포교원 람림학당에서 개최됐다. 전등강맥 전수법회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불교의식으로 전강법사인 통도사 전계대화상 중산혜남 대강백 스님으로부터 의천혜능 스님(람림학당 원장), 교해상락 스님(법주사 산내 암자 관음암)이 전강 제자로 강맥을 전수받았다.

이날 행사는 혜남 스님(통도사 전계대화상), 덕진 스님(울산사암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혜남 스님은 법어에서 〈화엄경 왕복서(華嚴經 往復序)〉를 인용 "캄캄한 어둠 속에 보배가 있다해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불법이 아무리 좋아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법문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비록 텅 비고 비어 자취도 끊어졌지만 '의천(義天)'의 별빛이 찬연히 빛나고, 담담하고 담담하여 언설의 길 없지만 '교해(教海)'의 파랑은 호한하도다"며 두 제자에게 전법게를 전수하고 '의천', '교해'란 법호를 내렸다.

이날 전법게를 전수받은 혜능 스님과 상락 스님은 "온갖 장애를 여의고 이제 불일증휘와 법륜상전의 큰 서원을 발하여 부처님의 전승강맥을 받으니 물러남이 없이 정진하여 성불할 것"이라고 전법의 큰 원력을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생명나눔, 100원 희망콘서트


생명나눔 콘서트중 피아노 연주 장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스님)는 구랍 26일 부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제7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개최했다.

생명나눔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장기기증운동을 통한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로 본부장 원범 스님(부산 선암사 주지)을 비롯 시민불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부산본부장 원범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부자'라며 '100원 불씨 콘서트의 따뜻한 마음들이 난치병 환우들에게 큰 희망으로 전달되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2012년 생명나눔 활동 보고와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에 이어 올 해의 100원 희망저금통 수여자로 이아진(7세, 女)양을 선정했다.

이양은 선천성 퇴행질환을 앓고 잃으며 이날 행사에 모금된 100원 희망저금통은 총 300여만원으로 향후 전달할 계획이라고 주최측은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보시함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세모(歲暮)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있어 마음이 훈훈해진다. 자선냄비에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보태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나보다 살기 각박한 사람들의 삶을 걱정하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교에서의 보시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때부터 있어왔다. 죽림정사를 지어 공양한 빔비사라왕이나 기원정사를 보시한 수닷따 장자는 보시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큰 재물을 보시하여 부처님이 안락하게 수행할 수 있고,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린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이들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 부처님께 보시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아 부처님께 아주 작은 촛불을 공양함으로써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린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아름다운 보시의 표상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사찰에 가면 이곳저곳에 보시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시를 원하는 이들이 쉽게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것이다. 야외에 설치한 보시함은 돌로 만든 것이 많고, 법당내부에 설치한 보시함은 대부분 나무로 만든다. 보시함이 언제부터 우리 사찰에 도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단지 스님들께 직접 보시금을 드리던 것을 아무도 모르게 부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보시함을 만들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시의 마음을 주변이 알지 못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보시함은 사찰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러 절에서 이 보시함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거나, 보시함을 너무 크게 만들어 보는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크기도 그렇지만 '보시함'이라는 글자를 너무 크게 새기고, 커다란 자물쇠를 보이게 달아놓아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물론 부처님을 모신 곳에 일일이 보시함을 놓고, 보시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고, 그것이 보시함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쓰고, 보시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물쇠를 달아 놓는 것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보시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자비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계사년 새해에는 보시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행하여지듯이 보시함도 꼭 있어야 할 곳에 작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지나치게 화려한 불전함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인천 ㅂ사찰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선운사

주지법만

사부대중 일동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선운사 성보박물관
백파사상연구소
미당시문학관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세계무형문화 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원사

주지 마일운
부주지 최원허
총무 조고담
교무 전지암
재무 김미산
기획 이동훈

봉원사 대중일동

■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번지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미타도량 성불사

주지 종명

성불사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615-1번지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http://www.seungbulsa.com



양양 낙산사와 함께 동해의 대표적 해수관음도량인 등명낙가사는 동해의 해돋이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신라시대 창건 당시 '수다사'로 불렸던 등명낙가사는 서울의 '정동'에 위치해 있다.



인간문화재인 유근형 옹이 3년 6개월간 청자로 구운 오백나한상.



'모래시계'를 촬영한 정동진역의 모래시계 소나무.



등명낙가사 주변의 지도

푸른 물감 풀어놓은 동해에 온갖 번뇌 내려놓자

① 동해안의 대표적 해수관음도량…정동진 등명낙가사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날이면 동해의 이름난 일출 명소엔 인산인해를 이룬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이중 매스컴의 시혜를 톡톡히 입은 곳은 분명 정동진이다. 고현정이 주연한 〈모래시계〉로 일약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동진은 서울의 정동 쪽에 있는 '진(津)'이라는 뜻이다. 진은 나루나 나루터를 의미하는 말이다. 정동진의 인기와 더불어 함께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아 둔 사찰이 있다. 바로 등명낙가사다.

겨울 바닷가 인근의 사찰은 각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파도 소리뿐인 한적한 바다와 고즈넉한 절집이 어우러진 정취는 한겨울 해변의 냉기를 단숨에 잊게 만든다. 한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 교차점이 되는 요즈음 자신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 계획을 세우는 장소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검푸른 동해가 어깨에 닿을 듯이 지척에 펼쳐지는 강원도 7번 국도를 타고 가다 정동진역 가기전 오른쪽에 자리 잡은 사찰이 바로 그곳이다.

일주문이 자못 웅대하고, 널찍한 주차장이 눈에 확 뜨일 정도로 규모가 있는 사찰이다. 동해안의 해안 사찰 중 양양 낙산사에 버금 갈 정도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등명낙가사의 일주문을 지나가면 눈에 들어오는 작은 돌기둥 하나가 있다. 사각의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그 돌기둥에는 '정동(正東)'이란 글자가 당당히 새겨져 있다. 이 글자는 정동진이 한양의 정 동쪽이 아니라 실상은 등명낙가사가 정동쪽이라고 시위하는 듯하다. 그렇다. 서울의 정동 쪽은 정동진이 아니라 바로 등명낙가사인 것이다.

낙산사와 함께 동해의 대표적 해수관음도량인 등명낙가사는 멀리 신라시대까지 그 연원이 올라간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선덕 여왕 때 자장 율사가 지었다고 하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수다사'였다. 자장율사가 북쪽의 고구려와 동쪽의 왜구를 견제하기 위해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절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확인된 바 없는 전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연원이 사실이든 아니든 동해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는 사찰의 고즈넉한 향기는 일주문을 지나는 순간 온 몸을 휘감고 돈다.

등명낙가사에는 절의 폐쇄와 관련된 슬픈 전설이 전해져 온다. 고려를 쿠데타로 뒤집고 등장한 조선 왕실은 숭유배불이란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행한다. 그리고 그 정책의 희생양을 부지런히 찾고 있었는데, 바로 등명낙가사가 걸려든 것이다. 등명낙가사가 한양의 정동 쪽에 있어 궁궐에서 먼저 받아야 할 태양의 기운을 먼저 받는다는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그 결과 등명낙가사가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등명낙가사에는 절의 폐쇄와 관련된 전설이 2개 더 전해진다. 하나는 임진왜란 때 왜병들의 방화에 의해 불태워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역시 조선 왕실과 관계가 있다. 조선 시대 어느 왕이 안질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그래서 점술가에게 물어보니, 한양의 정동 쪽에 있는 어느 절에서 쌀뜨물을 동해로 흘려보내 용왕이 놀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왕은 특사를 파견했고, 특사가 와서 보니 절 앞바다가 뿌옇게 변해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찰을

해맞이 일품 명소로 자장율사가 창건

일주문 돌기둥엔 '정동' 알리는 글 새겨져

세계 유일 청자 오백나한상 나한전 봉안

철분 함유된 등명약수 부인병 효험 입소문

폐쇄했다고 한다. 이 전설 안에도 '숭유배불'이란 이데올로기가 교묘하게 숨어 있다.

등명낙가사는 지난 1956년 경덕스님에 의해 재창건 되었다. 절에는 몇 가지 볼거리가 정갈하게 숨어 있다. 그 중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오백나한이다. 이는 인간문화재이자 도예가인 유근형 옹이 3년 6개월의 각고끝인 1977년에 심혈을 기울여 청자로 구워 완성한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청자 나한군집이다. 나한들 하나하나의 표정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중생들 군상과 같이 모두 달라서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오백나한전에 가서 참배 한 후, 영산전과 극락보전을 찬찬히 둘러보는 것을 잊지 말자. 특히 극락보전 옆 오솔길을 따라가면 만월보전이라 쓰여진 약사전이 나타나는데, 이 곳에서 동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장관은 가히 일품이다. 어찌 그리 동해의 물이 푸르고 청청한지. '블루(Blue)'라는 색깔이 주는 이중성을 유감없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약사전 앞이다.

약사전 앞에는 5층 석탑이 하나 외롭게 서 있는데, 원래 자장 율사는 똑같은 석탑을 세 개 세웠다고 한다. 그 한 기가 약사전 앞에 세워졌고, 또 하나는 약수터 옆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절이 바라보는 동해안에 세웠다는 것이다.

솔직히 등명낙가사에서는 사찰의 오래된 향을 느끼지는 못한다. 예전에 조성된 모든 흔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잔잔하게 마음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없다. 그러나 그런 그리움과 향은 없어도 동해를 바라보는 넉넉한 품새만은 느낄 수 있다. 그 넉넉한 품새는 일주문을 지나가기 전에, 붉은 기운을 발하는 약수터에서 발견 할 수 있다.

등명낙가사를 둘러 본 사람은 반드시 이 약수를 먹어 보아야 한다. 이 약수를 처음 먹어 본 사람은 시큼하면서도 톡 쏘는 맛에 약간 비위가 상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약수는 철분을 다량 함유한 탄산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 색깔도 약간 붉은 빛이 감돈다. 그러나 맛은 다소 이상해도 몸에 좋은 약수임에 틀림없다.

동해의 숨겨진 사찰, '등명낙가사'. 진정한 정동의 지위를 가진 이곳에서 푸른 물감으로 채색된 동해를 바라보며 작은 위안을 삼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으리라. 등명낙가사와 함께 가볼만한 곳으로 하슬라아트월드와 썬크루즈가 있다. 또 헌화로, 안보등산로, 통일공원도 둘러볼만 하다.

등명낙가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가는길 & 묵을 곳 & 먹을곳

▲**가는길** (승용차)영동고속도로 강릉 IC로 나온다 – 강릉시청 교차로에서 정동진 방면 우측 방향–농산물 도매시장, 제18전투비행단, 단오문화권 방면으로 좌측 방향–동해, 정동진, 통일공원 방면 우측 방향으로 오다 오른쪽에 위치

▲**묵을곳** 해돋이 모텔(평일 4만원), 썬크루즈 호텔(033–610–7000, 평일 8만원), 하슬라아트뮤지엄호텔(033–644–9411, 평일 22만원) 등이 있다.

▲**먹을곳** 큰 기와집(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033–644–5655)은 한옥 분위기의 널찍한 기와집에서 맛보는 전복해물수제비가 일품이다. 이 외에 매콤달콤한 해물오징어볶음이 추천 메뉴다. 또한 정동진 토속 음식인 섭 전문음식점인 바다마을 횟집(033–644–5747)도 유명하다. 메뉴는 섭죽, 섭 해장국, 섭 칼국수 등이 있다.



생태사회와 불교

전통 세시풍속서 찾는 생태적 지혜

땅을 기반한 사회가 생태 지속 가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인 통진두레놀이를 계승 보존하는 단체인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시연〈사진 왼쪽〉과 겨우내 산새들의 양식으로 남긴 까치밥〈사진 오른쪽〉. 인간과 자연의 협동, 조화로움을 추구했던 이 같은 생활 풍습들은 생태 사회를 위해 복원돼야 할 과제다.

24절기, 자연과 생명변화 살핀 지혜
정월 중요시해 다양한 세시풍속 만들어
인간끼리 조화 추구하는 것이 '생태'

우리의 세시풍속과 24절기

예전엔 새해에 새배하러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녔고, 대보름만 되면 쥐불놀이도 하고 깡통을 돌리는 불놀이하느라 날새는 줄 몰랐다. 또한 호두, 땅콩, 밤 등 부럼을 깨뜨려 먹으며 무사태평과 건강을 기원했고, 오곡밥을 만들어 먹곤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의 변화를 기념하는 의식이 남아 있을까 싶다. 불행하게도 거의 사라졌다. 국정공휴일과 기념일 외에는 오히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같이 상업화된 무국적문화만 횡행할 뿐이다. 불교에서 그나마 정월초하루 법회와 동지 법회등 전통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사말은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어른들이 "잘 지내셨습니까?"라고 인사를 건네오면 우리는 의례 "덕분에 잘 지냅니다"라고 답인사를 한다. 내가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은 바에야 자주 만나지도 않은 그의 '덕'을 언제 볼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을 깊이 돌아보면 직접 만나지 않은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만든 쌀, 채소, 건물, 자동차, 도로, 사회체계 등 덕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 아니 돌과 바람, 구름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삶이 생명과 사람 '덕분'임을 깨닫고 항상 절기가 변할때마다 자연과 이웃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의 전통에는 달이차고, 해가 길고 짧아지며, 날이 추워지고 따뜻해 질때마다 계절 변화와 자연 주기에 깊은 의미를 두고 이를 기리는 다양한 의식이 있어 왔다. 그중 하나가 24절기다. 입춘이 되면 집집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을 써놓고 길하고 경사가 많기를 기원했다. 입춘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움직이고 물고기가 얼음밑을 돌아다니는 절기'라 했고, 경칩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오는 날', 낮이 길어지는 춘분은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날', 입하는 '청개구리가 울고 지렁이가 땅에서 나오는 절기'로, 백로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제비가 돌아가며 뭇새가 먹이를 저장하는 절기'라 했다. 입동, 대설, 소설, 소한 대한까지 24절기는 이렇듯 일일이 자연과 생명 변화를 살펴 자연과 어울리게 살려는 지혜가 만들어낸 문화였던 것이다.

이중 정월에 1년중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있고 보름 때까지 각종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성주대접(城主待接)이라 하여 차례를 지내고 난 뒤에 약간의 음식을 마당 한편이나 집밖에 내놓아 짐승들을 먹게 했다. 그리고 동해지역에는 '어부슴' 풍속이 있다. 이는 자신에게 올수 있는 나쁜 액을 물고기들에게 작은 시주를 해서 푸는 것이다. 사람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짐승과 생명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자신이 안락한 삶을 살수 있다는 연기적이며 윤회적 인 자연관이 반영된 풍습인 것이다.

정월에 가장 많은 전통의 세시풍속

우리는 2013년 새해를 맞았다. 해는 매번 떠오르는 어제의 것과 다를바 없지만. 새해를 기뻐하고 남다르게 맞는 이유는 바로 삶과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싶은 뜻에서 일 것이다. 물론 자연의 이치로 보면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는 똑같지 않다. 뜨는 시간이 달라지고, 하늘에 떠있는 각도가 달라진다. 그것이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만들고 계절을 만든다. 이뿐아니라 계절과 기온, 우주의 기운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정월을 남다르게 생각했고, 농사 짓지 않는 이 기간 동안 풍년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을사람과 정겨운 덕담을 나누는 마을 축제인 동제를 지내기도 했다.

우리 전통속에는 정월이 되면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었다. 설날이 있고, 정초. 입춘, 12지일, 대보름등이 있었다. 이때가 되면 설빔을 했고,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다니고, 성묘도 하고, 복조리를 팔기도 했으며, 세화를 그리고, 토정비결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과수나무 돌 끼우기,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입춘첩붙이기, 오곡밥 먹기, 안택고사, 부럼 깨물기, 귀밝이술 마시기, 더위팔기, 대보름 달맞이, 줄다리기, 석전, 답교, 기세배, 별가릿대세우기 등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풍속이 있었다.

특히 정초 십이지일(正初十二支日)이라고 하여 정초부터 12일동안 십이지 동물의 날로 정해 의미를 새기며 기념하였다. 예를 들어 자일(子日)은 쥐의 날로 쥐불놀이 행사를 하여 쥐의 피해를 없애려 했고, 축일(丑日)은 소의 날로 정해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쉬게 하며 영양가 있는 것을 삶아 먹이는 등 12지로 대표되는 동물을 살피는 것을 첫해 무엇보다 먼저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동제라는 마을제사를 지냈다. 동신제, 서낭제, 당제, 대동굿, 풍어제 등 지역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마을에서 모시는 봉신에 따라 산신을 모시거나 마을을 지키는 거목. 신목 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조상의 원혼을 달래며 풍년을 기원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금기, 속담과 속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예로부터 내려오는 생활의 지혜가 담진 잠언을 '속담(俗談)'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밥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 '세숫물을 많이 쓰면 저승 가서 그 물을 다 마셔야 한다', '우물가에 밥알을 떠내려 보내면 3대가 빌어 먹는다'는 등의 옛말은 속담과 달리, 금기를 통해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효과를 갖는데 이를 '속신(俗信)'이라고 한다.

'금기(禁忌)'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말한다. 자연에 대한 금기는 자연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생각으로 함부로 하지 않게하는 교육효과와 자연에 대해 조심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강제한다. 예를 들면 '흐르는 물에 오줌을 누면 아이를 못낳는다', '비벼 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마시면 체증에 걸리지 않는다', '물을 많이 쓰면 가난뱅이가 된다', '쌀을 밟으면 발목이 비틀어진다', '등에 새끼없는 메뚜기를 잡으면 어머니가 빨리 죽는다', '경칩날 개구리를 죽인 사람은 죽어서 눈알없는 개구리가 된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밤에 거미가 내리면 근심이 있다.', '나무를 많이 때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다', '큰 나무를 베면 일찍죽는다', '나무를 헤치면 산에서 길을 잃는다' 등등 아마도 나이드신 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안듣고 자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들을 때는 섬뜩하고 무섭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문에 행동을 제어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미신이라고 치부했지만, 오히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 인연으로 얽힌 생명을 살피고 자연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비심이 담긴 지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오늘날은 '금기'가 없는 사회다. 금기가 없는 사회는 두려움이 없는 사회이다. 모든 것을 함부로 하고 막대하는 것이 익숙해져 자연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더 많은 살림의 지혜들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것이 환경보전이라면 이것에 더하여 인간끼리의 협동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태주의'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전통 속에는 마을사람들끼리의 공동노동인 '두레'는 대단히 중요한 생태적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어려운 사람이나 과부나 노인의 집안일을 마을공동체가 돕고 협력하며 살았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품앗이와 계도 농사를 잘 짓고, 마을의 공동체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훌륭한 전통이었다. 장례를 위해 갑계,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금란계, 전쟁의 복구를 위해 만든 동계, 또 소나무를 심기 위한 송계, 어장관리를 위해 어촌계등은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자연과 생활을 위한 공동체적 지혜였던 것이다.

또한 늦가을 감을 딸 때, 몇 개는 따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를 까치밥이라고 한다. 까치만이 아니라 겨울양식이 부족한 직박구리, 멧비둘기, 박새등을 위해 먹을거리를 남겨두는 생명에 대한 배려였다. 이뿐아니었다. 농부들이 콩을 심을때도 땅에 구멍을 파고 콩 세알을 심었다. 하나는 땅속의 벌레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먹이고, 나머지 한알로 싹을 틔워 사람이 먹겠다는 생각에서이다. 모기를 에프킬라를 뿌려 박멸하겠다는 현대와는 달리, 모깃불로 그저 '쫓으려'했을 정도로 우리의 전통을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과거 땅을 기반으로 한 사회와 기계를 기반으로 한 시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땅을 기본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근본적으로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르호지 여사가 쓴 베스트셀러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미래는 과거의 전통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1인용 : 58만원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2인용
1인용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크리스탈 인등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화엄사상에 정통…역경史에 남을 선지식”

方山老의 無影樹 〈1〉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각성 스님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한암 대종사의 법을 이은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았다. 문도회와 월정사는 40년에 걸쳐 〈신화엄경합론〉을 번역하는 등 역경과 교육 등 한국 현대불교사의 외연을 넓힌 스님을 기리는 증언집 〈방산굴의 무영수 · 方山窟의 無影樹〉의 발간을 앞두고 있다. 책은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법제자를 비롯한 스님의 생전 지인 62명을 만나 그들로부터 들은 스님의 고뇌와 행보, 사상, 가르침, 인연담 등을 기록한 것으로, 본지에 먼저 책의 신간(身幹)을 정리해 연재하기로 한다.

제호인 ‘방산굴의 무영수’에서 방산굴은 스님의 생전 조실채의 당호로, 이통현(635~730)이 〈신화엄경론〉을 지은 장소인 중국 북경의 ‘방산토굴’에서 가져온 것이며, 무영수는 그림자 없는 나무란 뜻으로 불교의 공(空) 사상을 뜻하는 것이다. 제호의 ‘방산굴’은 스님의 친필 현판에서 가져왔다. 결국 ‘방산굴의 무영수’는 스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탄허’를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안표(眼標)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각성 스님 (해인사 · 통도사 승가대학장 화엄사(부산) 회주, 화엄학연구원장)



탄허 스님이 주석했던 월정사 방산굴 전경

– 각성스님은 탄허 스님의 강맥 제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인연의 출발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나요.

1957년, 저는 관응 큰스님에게 구사론과 유식을 배우려고 대구 은적사에 가 있었어요. 한 달을 지키고 있었는데, 관응 스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 스님이 어디에 계신가 알아보니 예천 연방사에 계셨습니다. 관응 스님은 은적사 주지 발령은 받았지만 은적사에 오시지 않고, 당신에게 전강해주신 법사 스님인 최취허 스님과 인연이 있는 연방사에 계셨어요. 그래 저는 연방사로 관응 스님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거기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깐 관응 스님이 탄허 스님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을 써주시면서, 여기 있지 말고 오대산수도원으로 가라고 해서 탄허 스님을 찾아 월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허 스님은 강원도 종무원장, 월정사 주지를 겸하면서 전국의 수재를 모아 놓고 수도원의 강의를 직접 지도하셨어요.

– 스님은 1969년 부산 송정의 삼덕사라는 곳에서 탄허 스님의 화엄경 교열 작업에 참여하셨지요. 그 참가 과정, 내용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작업에 참가하기 전에는 김천 개운사에 있으면서 종단에서 만든 역경원의 번역을 했어요. 그 무렵 수원 용주사에 역장(譯場)이 생기고, 거기에 역경사 양성소가 생겼지만 저는 역경사 양성소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해서, 심사를 해서 바로 합격하고 번역을 했어요. 무비, 통광, 정안, 성파 스님은 용주사와 봉은사의 역경사 양성소 과정을 거친 원생 출신들이지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무 스님이 영은사에를 가니깐 큰스님(탄허)께서 8년간 번역한 원고의 수정 작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같이 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드라는 것을 나한테 와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나는 정무 스님에게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자천하는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면 된다고 큰소리를 쳤어요. 사실 그 당시까지는 화엄경론을 안 보았지만 자존심이 강해서 대장경을 볼 때와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는냐고 했어요. 정무스님이 내가 한 말을 영은사로 가서 큰스님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탄허 스님께서 “각성 수좌가 수도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는 하였는데 그 이후로 대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느냐?” 하시면서 “그러면 같이 해보자, 일단 와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산 송정의 삼덕사라는 절에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림 사장인 우담이 삼덕사로 스님의 번역 원고를 담은 캐비넷을 실어오고 자리잡고 있게 되었죠. 거기에서 꼬박 6개월을 작업했어요. 인허 스님은 기도를 했고, 윤창화는 시봉을 했고, 대외적인 일은 우담이 담당했어요.

그때의 작업은 주로 내가 하고,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무비, 통광, 성일 스님이 있었고 자민 스님은 가끔 오고 그랬죠. 그 분들은 누가 낭독하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읽다가 틀린 것이나 이상한 것을 내가 지적하면은 큰스님이 직접 고치십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 진언을 드리면 큰스님이 고쳤지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냥 듣고 공부한거지.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참가했어요. 나갔다가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오고 그랬죠. 나는 증의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작업을 했어요. 꼼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잠이 부족해서 간혹 졸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문장은 제대로 교열, 증의를 못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 탄허 스님은 수 많은 고투를 이겨내고 1975년 여름에 〈신화엄경합론〉을 발간하였어요. 그 서문에 수고한 대상자에 각성 스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탄허 스님이 그 책을 펴내고 나서, 나에게는 책 한질을 주셨지. 그런데 그 서문에는 나와 다른 스님들과 똑 같이 교정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난 원래 증의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탄허 스님이 프라이드가 쎄어서, 내가 증의한 것을 밝히면 스님의 위상이 격하될까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교정한 것이 아니고 증의를 한 것입니다.

현장 법사의 제자로 원측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원측스님은 신라출신 승려로 범어에도 능통한 스님인데 이 스님이 현장스님이 번역한 것을 증의했어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나도 탄허 스님의 것을 증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교정한 것으로 기술한 것은 잘못되었어요.

– 탄허 스님은 화엄경 발간 이후에도 사교, 대교과정의 경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을 번역하고 펴내셨는데, 그런데에는 참여하지 않았나요.

그 이후의 다른 경전의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했어요. 그때에는 거사들이 했고, 난 안했어요.

– 탄허 스님은 화엄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탄허 스님이 화엄사상을 강조하시게 된 발단은 일제시대 때에 한암스님이 상원사 수련소에서 수련생들을 가르칠 때에 탄허 스님이 중강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암스님의 입회하에 탄허 스님이 석사를 하셨어요. 그때 한암스님이 탄허 스님에게 화엄론과 화엄경을 현토, 번역할 것을 부촉한 것이 큰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큰스님께서 화엄경을 보시게되니까 자연 화엄사상에 정통하시게 된 것이죠. 화엄경은 부처님의 최고 경전으로 더할 나위없이 진지하고 풍부하게 부처님 사상을 설명한 것이죠. 탄허 스님께서는 화엄경은 일승원교로 보시고, 부처님 사상의 최고의 경전으로 그리 생각하셨죠. 그러나 스님은 법화경과 열반경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번역도 안하셨어요.

– 각성스님은 통화불교, 통화사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설명해주시지요.

통화불교 이것을 말하라면, 저는 우선 현시점에서 본다면 공산주의이니 자본주의이니 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인간들의 분열,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일, 화합이 돼야 한다고 보고 우리의 남북관계도 통일, 화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불교 전체가 법성원융 무이상이라는 그 말씀처럼, 부처님의 원융법에서 본다면 통화 아닌게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지역별, 나라별의 특성이 관습에 의해서 다른 면이 있지만, 그 부처님 법에서 본다면 통일, 화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자백가, 인도의 부파철학, 제가의 외도, 중국불교의 다양한 철학 이런 것들도 근본은 하나다, 그것도 통화아닌게 없다는 그런 뜻을 제가 외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주장을 담은 책을 별도로 쓴 것은 없지만, 강의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제가 내는 책은 통화불교 시리즈, 통화총서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 스님의 통화사상과 탄허 스님의 유불선 회통 사상과 같은 점, 다른 점이 있나요.

한암 스님, 화엄경 현토 번역 부촉
각성 스님, 〈신화엄경합론〉번역 증의
통화사상과 회통사상 일맥상통
월정사, ‘오대산 수련원’ 계승해야

물론 제 주장과 탄허 스님의 주장과 같은 점이 있어요. 사실은 원효의 화쟁사상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을 확장을 하고, 넓혀서 말들을 하고 있지만. 통화사상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동서양과 동서고금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통화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통화는 탄허 스님의 회통사상에게서 받은 영향이 있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뜻은 서로 통하지요.

– 탄허 스님의 정체성을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스님을 강사, 선사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탄허 스님의 정체성, 성격은 복잡해요. 사실은 김선생의 말씀처럼 탄허 스님은 전통적인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방에서 장좌불와를 한 선사도 아닙니다. 그냥 보면 석학, 학자이면서 유불선 삼교에 능통한 특이한 분이시지요. 그리고 유불선을 회통하시면서 이것만이 최고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아이디어를 갖으셨지요.

– 각성스님의 삶에서 탄허 스님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로서는 탄허 스님을 처음 공부를 할 때에 만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는 유불선을 재확인하였고, 내가 미쳐 보지 못한 것을 혼자 읽어서 보게 되었고, 회통하는 것에 영향받아서 나도 모든 것을 내것으로 만들 수 있었죠.

나는 명안존자, 석학들의 저술을 보면 그것들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내 속에서 소화를 시켜 버립니다. 탄허 스님의 영향, 가르침은 내 마음에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받들고 인정하지요. 저는 탄허 스님과는 다른 저대로의 길, 지향, 노선이 있어요.

– 탄허 스님은 선지로써 경전을 해석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불교를 깊이 알고 보니 교를 제대로 알려면 선도 알아야 하고, 선을 제대로 알려면 교도 알아야 합니다. 한쪼가리, 반쪼가리만 알아서 교와 선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의를 해보면 교와 선은 둘이 아니고, 교가 선이고 선이 교입니다. 선교가 같은 것입니다.

– 탄허 스님은 역경사에 한 획을 그으셨지요. 혹시 탄허 스님의 위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가요.

한국 역경사에 위상은 분명하지요. 한동안은 역장장(譯場長)도 하셨지. 현대불교에 위상은 있지만 세월이 가면 점점 잊혀지고, 스님의 책과 문헌만이 남아서 전해지는 것이지.

– 성철 스님과 같이 활동하셨는데 성철 스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에 비해 탄허 스님은 잊혀진 것 같습니다.

성철스님은 부산, 대구, 창원 등 남쪽 지방에 신도수가 많았죠. 그리고 해인사라는 배경과 종정을 하신 파워가 있었습니다. 큰스님이 되려면 재력, 인력, 힘 이런 것들이 겸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탄허 스님은 많이 약하시지.

– 탄허 스님의 정신, 사상 이런 것이 계승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탄허 스님을 계승하려면은 내 생각으로는 월정사 도량에 강원이 만들어져야지 않을까 봅니다. 탄허 스님이 지향하신 소수 정예의 엘리트를 길러내는 오대산수도원 정신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는 10년은 해야 됩니다. 불교를 포함한 동양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어서 아쉽지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추대(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요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733-5671

추위 뼈에 사무쳐야 매화 향기를…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



배휴거사 묻고 황벽선사 답한 돈수의 길

〈전심법요(傳心法要)〉는 배휴(797~870)거사가 황벽희운(?~850)선사에게 법을 묻고 이에 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황벽스님의 어록은 보리달마의 '일심법'과 육조 혜능의 '돈교법문'을 투철하게 설파했다고 평가될 만큼 선문의 귀한 자료이다.

황벽스님은 육조-남악-마조-백장-황벽-임제로 이어지는 당대(唐代) 조사선의 황금기에 선풍을 크게 드날렸던 분이다. 이 조사들께서는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간단명료하게 불법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선의 대중화에 크게 성공했다.

당대 일류의 지식인이었던 배휴는 842년 강서의 종릉에서 관찰사로 재임할 때, 스승인 황벽스님을 가까운 용흥사에 모시고 시간 날 때마다 참배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6년 후 안휘의 완릉에서 관찰사로 재임할 때도, 스님을 개원사에 모시고 법을 물었다. 거사는 스승의 소중한 어록을 기록해두었다가, 선사께서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에게 증명을 얻어서 세상에 공개했다.

종릉에서의 어록을 '전심법요'라 하고 완릉에서의 어록을 '완릉록'이라고 했으나, 일반적으로는 둘을 통칭하여 〈전심법요〉라고 부른다. 오늘날까지 많은 선수행자들이 이 책을 통해 중도정견을 확립하였는바, 황벽스님의 심요를 세상에 전한 배휴 거사의 공이 크다 하겠다.

이 책은 원래, 임제종에서 종지종통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조-백장-황벽-임제선사의 어록을 모아 펴낸 〈4가어록〉에 실려 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허스님이 편집하여 1908년 범어사에서 간행된 〈선문촬요〉에 포함되어 있다. 서양에는 1958년 영국인 존 블로펠드의 번역으로 소개되었다.

배휴가 황벽스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은 기연은 〈완릉록〉에 전해오고 있다. 스님께서 회창법난을 만나 홍주 땅의 개원사에 은거하고 있을 때였다. 상공 배휴거사가 어느 날 절에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안내 하던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고승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승들의 겉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지스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배휴가 "이곳에 선승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 분이 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상공은 마침내 황벽선사를 청하여 뵙고, 주지스님에게 물었던 일을 선사께 여쭈었다. 그러자 황벽선사가 불렀다.

"배휴!" "예!" "어디에 있는고?"

배휴는 이 말 끝에 깨치고 선사를 청하여 개당설법을 하시게 하였다.

배휴는 이전에 규봉종밀의 여러 책에 서문을 쓸 정도로 도연이 깊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황벽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바로 깨달음의 기연을 얻게 되었다고 〈완릉록〉은 전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일은, 배휴거사와 황벽선사의 문답이 갖는 의미다.

비록 배휴가 황벽선사의 말끝에 대의를 알아챘지만, 그 후 스승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아직 상을 여읜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돈오'를 체험했지만 아직도 '점수'의 입장에 있는 수행자에게 선지식께서 '돈수'의 길을 제시하는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고위관료인 배휴가 정중하게 여쭤본 덕분인지 몰라도, 황벽스님은 이 책에서 격외의 게송이나 선문답을 제시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간명 직절하게 대답해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조계 정전(正傳)의 정통 선사상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벽스님의 '박비향' 게송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절창이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은 예삿일 아니니[塵勞逈脫事非常] 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緊把繩頭做一場].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不是一番寒徹骨]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爭得梅花撲鼻香].

수불 스님은…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사미계를 197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후 1979~1989년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스님은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사단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불교언론문화상 대표 등을 맡고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으로 활동하며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⑤①



보살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배울 때, 마치 허깨비가 배우는 듯 해야 한다.

〈소품(小品) 반야바라밀경〉

2012년에는 초기경전의 구절을 발췌해 연재했다. 이번 호부터는 대승경전인 〈화엄경〉〈금강경〉〈유마경〉등에서 각 3회씩 구절을 발췌해 연재하기로 한다.

얼마 전의 일이다. 박사논문 심사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화제가 '비유(譬喩)'로 옮겨갔다. 우리 불교학자들 중에서 누가 비유를 잘 하는가에 하는 이야기였다. 저마다 자기가 들은 기막힌 비유이야기를 공개했다. 몇 몇 교수님들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사실 내 마음 속에서 가장 강력한 '비유제일(譬喩第一)'로 남아있는 분은 (부처님을 제외한다면) 원효 스님이다.

"허깨비 호랑이가 허깨비 술사를 잡아먹다." 이 비유는 원효 스님의 참회록이라 할 수 있는 〈대승육정참회〉라는 책에 나온다. 술사(術士)는, 지금 말로 하면 마술사이다. 이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들어 냈는데, 그만 이 허깨비 호랑이가 자기를 만들어준 마술사를 잡아먹고 말았다. 참, 기가 막히지 않는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허깨비 호랑이를 만들어낸 마술사는 허깨비가 아니다. 진짜 사람이지, 그는 결코 허깨비가 아니다. 한편 그가 만들어낸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가 아니다. 허깨비 호랑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깨비가 아닌 사람(마술사)은 허깨비인 호랑이를 만들었다가 사라지게 했다가 할 수 있지만, 허깨비로 만들어진 호랑이는 그냥 허깨비일 뿐이어야 한다. 잡아먹는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허깨비로 된 호랑이를 과연 호랑이라 할 수 있을까? 있다고 할 수도 없을 터이다. 없다고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는 허깨비인 자기(호랑이)를 만들어준 마술사를 잡아먹고 말았다 하지 않는가. 잡아먹는다, 라는 행위 속에서 이미 허깨비는 허깨비가 아닌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빨로서 물어야 하고, 씹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아닌가.

이 비유를 통해서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 부처님의 마음(佛性)을 다 갖고 있으므로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쁜 일을 많이 하고서, 그 과보로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불성의 소유자로서 불성을 잘 지켜가지 못하고서 나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의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것과 같으며, 그 과보로 지옥을 가는 것은 자기가 만든 허깨비 호랑이에 잡아먹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비유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친구를 만나서 함께 영화관에 가는 것도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일이고, 그 친구랑 다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찜찜해 지는 것도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일과 같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그림 · 박구원

것은, 다 허깨비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놓고서 자기가 잡아먹힌다.

이런 허깨비 이야기는 대승경전에서 자주자주 만나게 된다. 특히 반야부 경전에서는 단골 메뉴다. 다만, 〈소품 반야바라밀경〉에서 등장하는 이 허깨비는 원효 스님의 비유에서보다 훨씬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원효스님에게서는 허깨비를 만드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소품 반야바라밀경〉에서는 우리 모두 허깨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뼈도 없고, 이빨도 없는 허깨비! 우리 스스로 허깨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나 자신을 허깨비, 즉 있지만 있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나는 저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이 되리라. 그 면허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6〉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② 사정근(四正勤)

사념처 지혜로 수행하는 바른 노력

언제나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아쉬워하기 마련이다. 그 동안 세운 계획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미련이 남아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한 숨 내쉬며 후회해도 시간은 이미 지났다.

과거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다가온 새해를 희망차게 보낼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자. 그런데 단지 계획만 세운다면 예전처럼 용두사미,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잘 실천하는 길일까? 불교에서는 이를 사정근(四正勤)으로 설명한다. 특히 불자들은 이 사정근을 바탕으로 새해의 좋은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자.

사정근은 '바른 노력'의 방법론이다. 원시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도인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중에 사념처가 몸[身]·감수작용[受]·마음[心]·마음의 대상[法]에 대해 주의 깊게 통찰함으로써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정근은 이러한 사념처의 지혜를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의(四斷意)·사의념단(四意念斷)·사의단(四意斷)·사정단(四正斷)·사정승(四正勝)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달라도 모두 팔정도의 정정진과 같이 '바른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정단의 단(斷, 끊음)은 게으른 마음을 끊는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사정근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있어서 노력은 증장하고 나태함은 끊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수행은 모두 번뇌를 여의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근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식적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실천윤리를 제공한다. 즉 선법 (善法)은 증장시키고 악법(惡法)은 끊어 없애는 것이다. 〈중아함경(中阿含經)〉 및 〈잡아함경(雜阿含經)〉 등은 사정근의 기본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절대로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한다[律儀斷], (2) 이미 일어난 악은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斷斷],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善)은 생겨나도록 노력한다[隨護斷], (4)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修斷].

여기에서 선이란 깨달음을 향해가는 수행에 있어서 점점 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쪽의 노력이고 악이란 그와 반대로 방해가 되는 쪽의 행위를 말한다. 즉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악이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윤리·정치·경제·건강 등의 모든 면에 해당된다. 예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악을 절대 행하지 않는 것이 율의단(律儀斷)이고 이미 악한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단단(斷斷)이다. 또한 자원봉사나 선의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호단(隨護斷)이고 이미 자원봉사나 기부 등을 실행했다면 그것을 일시적인 행사로 끝내지 않고 더욱 많이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단(修斷)이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노력이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노력,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노력,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 등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바른 노력'을 권한다. 바른 노력이란 개인의 영달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남과 내가 모두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도록 돕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실천행으로서의 노력을 말한다.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라고 하는 경전에서 과거 일곱 부처님의 입을 빌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諸惡莫作] 여러 선을 받들어 행하여 [衆善奉行]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自淨其意].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是諸佛教]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바른 노력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뜸,침술,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최 신 판"
띠별(十二支神像型) 삼재풀이 용봉



※ 속지 6장식 들어있음!
2013년(계사년)부터 들어오는 삼재해당자(돼지, 토끼, 양띠) 들께서는 본인의 띠와 같은 봉투에 속옷하나 넣고, 이수에 따라동전을 넣고 스님들이나 법사, 보살님들에게 전달한 후 삼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청담아트월드 社 www.cdsa.co.kr
주문전화 : 031)912-7114
◆ 90부 이상 우송!
(일반 신도분들은 개별적으로 근처 불교 만물상에서 구입하시오!)
계좌번호 : 638701-01-163513 (국민은행) 예금주 : 청담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안반수의경을 얻었습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오가는 세월에 대한 회한은 예나지금이나 같은 듯. 병신(1836)년 새해,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禪榻茶煙又是一年 年去年來之中 能有不去來者在否 其間 魚鴻之誤千里遠塗 亦復無怪 世諦人事尙有藉是而印照遠心 在師不滿一呵 在我寔不勝其低回惘悵也 卽見來槭 又是拙書以前出也 未知卽收耶 春風漸邐 禪誦近復何如 獨居無伴否 有勝侶否 世間每易萍散蓬轉 有能住定 不爲此障 亦佳甚也 賤狀依舊插脚於紅塵中而已 近得安般守意經是禪藏之所希 有禪家每以盲捧瞎喝 做去黑山鬼窟不知此無上妙諦 令人悲憫 恨不如與師天機淸妙者一爲對證可歎 維摩經鐵衲 遂食言耳 比與師無來往否 漠然無聞何至此甚 爲我轉致也 姑留不式

참선하며 차 마시며 지내던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해가 가고 오는 중에서도 오고 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사이 천리 먼 길에서 편지가 잘못된 것도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세속에서 사람사이의 일은 오히려 이것을 빙자하여 멀어진 마음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에게는 한바탕 웃음거리도 아니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머뭇거려지고 서글퍼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곧 그대가 보내온 편지를 보니 (이 편지는) 제 편지 이전에 보내신 것이라 바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봄바람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그대(禪誦)는 요즈음 또 어떻습니까. 홀로 계신 것은 도반이 없어서인가요. 훌륭한 도반은 있습니까. 세간에 사는 것은 매번 부평초처럼 떠돌고, 다북쑥처럼 흩날리기 쉽습니다. 머무는 곳이 안정되어 이러한 장애가 없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나 같이 천한 사람은 여전히 홍진 속에 두 다리를 들여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근래 안반수경을



〈완당전집〉 여초의 7신

“세간의 삶은 부평초처럼 떠돌고…” 당시 불교계 현실 비판도 엿보여

얻었습니다. 이것은 선가에서도 보관하기 드문 책입니다. 선가에서는 흔히 현실성 없는 할과 갈로서(盲捧瞎喝) 어두운 산의 귀신 굴(黑山鬼窟)로 가서, 이러한 최상의 진리(妙諦)를 모르니 사람(의 마음)을 슬프고 비통하게 합니다. 그대와 天機의 淸妙한 세계를 논증하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유마경은 철선 스님이 끝내 식언하고 마는군요. 요즘 그대와는 내왕이 없습니까. 막연히 소식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나를 위해 (철선에게) 전해 주세요. 이만 줄입니다.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 7신에 수록된 것으로, 최근 발굴된 〈벽해타운첩〉에 의해 병신(1836)년 2월5일에 쓴 편지임이 밝혀졌다. 실제 이 편지를 쓴 2월 5일은 새해가 된지 한 달이나 지난 후이지만 초의의 답신이 늦었던가보다. 어김없이 가고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가고 오지 않는 것도 있느냐는 추사의 반문은 바로 초의의 답신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을 이리 표현한 것. ‘천리 먼 길에서 편지가 잘못된 것도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세속에서 사람사이의 일은 오히려 이것을 빙자하여 멀어진 마음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 한 그의 엄포(?)는 초의의 답신이 늦어진 전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추사였기에 이 희언(戱言)이 더욱 살가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간의 삶을 뿌리 없는 부평초나 바람에 흩날리기 쉬운 다북쑥에 비유했던 추사였고, 번뇌가 사라진 초의의 수행자다운 삶을 홍진 속에 빠져 있는 자신과는 다른 차원임을 인정했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당시 불교계의 현실을 준엄하게 비판한 측면도 엿 보인다. 이는 그가 ‘현실성 없는 할과 봉(盲捧瞎喝)로, 어두운 산의 귀신 굴(黑山鬼窟)로 들어가 이러한 최상의 진리(妙諦)를 모르다’ 고 지적한 것. 이런 불교계의 현실이 ‘사람(의 마음)을 슬프고 비통’ 하게 한다는 추사였다. 밝은 지혜의 수행자인 초의와 ‘천기(天機)의 청묘(淸妙)한 세계를 논증하지 못함이 한스럽다’ 는 것은 아마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특히 그가 〈〈안반수의경〉〉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수식관의 수행법에 깊이 천착했음을 드러낸다. 초의가 남긴 태식(胎息)에 관한 글은 추사의 수식관에 대한 관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선택한다!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정직한 행복학 강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생각들……
이 생각들 속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가만히 내게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 있다.
그 속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최신간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과
홀가분하게 이별하기

심리학자 김정호 지음 | 224쪽 | 13,000원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읽기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여는 글〉 중에서

서광 스님 지음
288쪽 | 14,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반야 참회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룡 스님 지음
288쪽 | 13,000원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아이들 미래가 불교의 미래”

어린이 포교 30년 송묵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2013년 새해 아침 공기가 차가운 1월 2일 조계종 포교원을 찾았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송묵 스님은 남양주 봉선사 포교국장 등 국장직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등을 맡아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다.

스님을 만났을 때 스님은 막 라오스에서 귀국한 터였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이사로서 파라미타(이사장 정여)가 구랍 24~31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외곽의 참파마을과 사방마을에서 진행한 의료봉사 및 교육지원사업에 참가했다. 스님은 여기서 직접 학교보수를 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 학생 50명에게 각각 매년 장학금 150불을 5년동안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왔다. 직접 책상과 의자를 고쳐주며 고됐을 텐데도 스님은 밝은 웃음으로 취재에 임했다.

천진불 아이들, 불자로 키워내야 불교 미래 밝아

“아이들은 천진불입니다. 어렸을 때 받은 도움과 사랑은 이 아이가 컸을 때 더 큰 사랑으로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따르던 송묵 스님은 아이들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자 말을 쏟아냈다. 스님과의 대화는 차를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교육과 어린이 포교는 100년 대계입니다. 1,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50~100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비사상을 잘 가르쳐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송묵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교육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새해에는 희망이 보인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웃종교를 보면 100년 전 고통을 감내하며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이웃종교의 성장세를 보며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많은 스님들이 포교는 미래며 특히 어린이 포교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묵 스님은 자살, 폭력, 왕따 등 문제는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분야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포교와 교육에 재가불자들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법회를 하는 사찰이 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도들이 경내가 소란스러워 진다고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신도들 중에서도 조용히 기도하러 온 분들은 아이들이 뛰어노는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신도들이 많은 사찰은 어린이 법회를 하려다가도 접는 경우가 많아요.”

스님은 어린이법회는 신도 대중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어린이들을 불자 중고등학생으로 이끌어가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신도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력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신도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송묵 스님은 종단 소임 중에도 어린이 법회는 빼먹지 않고 법사로 나서고 있다.

“불교계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불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도가 천명이면 어린이 청소년은 수백은 돼야 하는데 어머니는 절에 오면서 아들딸은 절에 안보내요. 전 가족을 불자로 만드는 포교가 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불교는 심각한 문제에 처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함께 절에 오는 포교가 돼야 합니다.”

스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초하루?지장재일 등 재일 위주의 법회에서 탈피해 주말 법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아이 챙기는 보육원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배워

송묵 스님의 열띤 포교론을 듣고 있으니 문득 스님이 어떤 계기로 포교원력을 세웠는지 궁금해졌다.

“스님, 스님은 어떻게 포교활동에 나서게 되셨습니까.”

스님에게 전법과 포교의 사명을 물으니 우문이었다. 스님은 빙긋 웃으며 운허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강사로 살려던 스님의 진로가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출가한 봉선사는 운허 스님이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역경, 교육도량입니다. 운허 스님은 항상 아이들이 오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탕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이 ‘너희들이 부처님 같이 되라’ 는 말이었습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강당에서 강사를 하려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불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

스님의 포교원력이 꽃을 피운 것은 1994년 ‘자비와 행함이하나되어회’ 를 조직하면서 부터다. 스님의 주석처인 남양주 동원정사를 중심으로 250여 명이 활동중인 ‘자비와행함이하나되어회’ 는 봉선사와 본말사, 그리고 화계사 등의 신도들을 비롯해 천주교 신부, 수녀들과 인근교회의 목사들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야말로 범사찰, 범종교계 사회봉사단체다.

스님은 자행회를 통해 매월 1만원 씩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200여 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했다.

“고아원, 보육원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만으로 적성 개발이 됩니까. 하지만 일반 가정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피아노 공부 등은 꿈도 못꿀 일이에요. 더 큰 문제는 대학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가 지원금은 턱이 없고 보육원에서 부담하기에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송묵 스님은 그로인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공고나 상고를 선택해 학업의 길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위하는 마음을 보육원 아이들에게서 느끼고 오히려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100년 내다보는 인재불사 해야
라오스 학생 50명 5년 후원 약속
‘자비와 행함 하나 되어 회’ 이끌어
불교 스카우트 등 인성교육 앞장

“안산 송암보육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부에 적성이 있는 남학생이었어요. 보육원에서 대학을 보내줄 방법이 없어 학비를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2학년 때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스님, 저에게는 학비 안대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힘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 저보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세요. 큰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그 남학생이 백화점, 마트에서 새벽에 짐 배달해주며 스스로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일이라면 화주자리 마다 안 해

그로부터 스님은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력에서의 다양한 회장직은 사실 상 화주자리였다. 3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보람된 일도 많았다.

“마석의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도법사로 있었는데 아이들끼리 대판 싸워서 경찰서에 아이들이 잡혀간 겁니다.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싸움 주동자인 학생이 있더군요. 사춘기 때는 욕구불만이 감정으로 쉽게 표출됩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 부모님에게 바른 학생으로 이끌어보겠다고 하고 절로 데려왔어요. 졸업할 때까지 매일 108배를 같이 하고 한방에 자면서 등산도 하고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도 같이하고 했습니다. 한때 싸움만 하던 그 아이가 육군사관학교에 갔어요. 육군 소령이



2012년 제5회 불교 어린이 청소년 지도자 연수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화이팅하는 모습.

세속화에 흔들거리는 태국 불교계

英 스콧맨닷컴, "현대화, 사찰과 스님 벼랑으로 밀어내"

태국의 사찰들이 지역 사회의 세속화 물결에 밀려 그 전통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 대중매체인 스콧맨닷컴(Scotsman.com)은 최근 "태국의 사찰들, 특히 북동쪽에 위치한 사찰들이 지역 사회에서 전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할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현대적 삶의 방식이 태국의 사찰과 스님을 벼랑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북쪽 치앙마이(Chiang Mai)에 위치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이른 새벽마다 마을 곳곳을 돌며 봉행하던 탁발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사찰 주지 스님은 인근 레스토랑이나 배달 전문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대중 스님들의 아침 식사를 챙긴다.

프라 니판 마라위차요(Phra Nipan Marawichayo) 스님은 "스님 대부분 사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전과 비교해 사찰에 상주하고 있는 스님의 수도 줄었고,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사찰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 가치도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라위차요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체디 루앙사(Wat Chedi Luang · 치앙마이 소재)에는 스님을 비롯해 단지 2명의 스님이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단기출가 중인 '소년 스님'들 뿐이다. 이는 옛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태국에서 사찰은 논과 야자수와 함께 가장 친밀한 풍경이었다. 스님은 항상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며 지혜를 주는 스승이자 갈등을 막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했고, 사찰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마을을 찾은 다른 지역 사람이 편하게 묵었던 곳이다.

그러나 스콧맨닷컴 보도에 따르면, 태국 사찰에서 재적 승려가 줄어들고, 심지어 스님으로서 권위와 역할은 퇴색한 채 행사를 주재하는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

"스님의 삶은 아이폰 세대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전제한 프라 파이산 비살로(Phra Paisan Visalo) 스님은 "이제 태국의

대중스님, 배달음식으로 식사챙겨

사찰 재적 승려 줄고 권위 퇴색돼

여과없는 스님 스캔들 보도가 문제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소비"라고 꼬집으며 "과거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날을 맞으면 어김없이 사찰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같이 쇼핑몰을 향한다"고 지적했다.

동시대 태국 불교계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인 바실로 스님은 또한 "태국에서 내국 · 외국불자들이 명상에 몰두하고 서점에서 불서가 팔리고 있지만, 승단의 정식 교육을 밟은 출가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 수와 자질로는 태국 불교 전통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콧맨닷컴은 태국불교 전통인 단기출가 제도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속적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태국



태국의 북쪽에 위치한 치앙마이(Chiang Mai) 체디루앙사(Wat Chedi Luang)의 '소년 스님(단기출가)'들이 연못에 등을 밝히고 있다. 태국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단기 출가 대신 태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체 교육에 참여하는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태국 스님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스님의 수를 29만여 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평생 출가자이길 서원한 스님은 7만여 명이며, 그마저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콧맨닷컴은 인류학자 윌리엄 클라우스너(William Klausner) 교수의 말을 인용, "태국 언론에서 사찰과 스님 관련 스캔들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도 태국 불교계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클라우스너 교수는 치앙마이의 북쪽 마을 반 파 치(Baan Pa Chi)에서 사찰과 지역 사회의 역학 관계를 1년째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사회의 첨단화에 맞춰 불교계도 그 방향과 보폭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태국 불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스콧맨닷컴은 태국 종정 스님의 차관보를 수행하는 중임을 맡고 있는 프라 아닐 샤카야(Phra Anil Sakya) 스님의 말을 인용,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첨단화 된 것을 좋아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패스트푸드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사찰에만 있다고 강조하는 하는 게 아니라, 대형 쇼핑몰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첫 불자 의원 탄생

일본계 미국인 히로노… 소수 종교, 여성 약진



프로테스탄티즘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첫 불자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미국 제113대 의회는 1월 3일(현지시간) 2년간의 일정으로 개원을 선언했다. 이번 제113대 의회에는 다채로운 이력과 소수 종교을 가진 의원들이 대거 약진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교 신도가 상원 의원에 이름을 올린 점이다.

주인공은 민주당 마지에 히로노(일본명 히로노 게이코 · 廣野慶子, 사진). 그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 린다 링글 前 하와이 주지사를 25% 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미 상원에 입성했다.

후쿠시마(福島) 현 출신인 히로노 의원은 8세 때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한 후 가난을 이겨내고 변호사가 된 후 하와이 주 하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어 온 그는 상원에 진출한 최초의 불교신자이자 이민자 출신의 아시아계 여성 의원으로 기록됐다.

또한 미국 제113대 의회는 여성과 종교적으로 소수계가 약진했다. 불자인 히로노 의원과 함께 힌두교도인 툴시 가바드(민주, 하와이주) 의원도 미 하원에 입성했다. 또한 여성 의원이 상원에만 20명, 하원에만 8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수가 100명이 넘게 됐다.

신중일 기자

티베트, 中 대화 제의

티베트 위기문제 해결 위해 中지도부에 요청, 中 묵묵부답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티베트인의 분신 증가로 고조된 티베트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새 지도부에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티베트 망명정부는 최근 롭상 상가이 총리 주재로 중국과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대화만이 티베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롭상 상가이 총리는 성명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우선이며 과정은 그 다음"이라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중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 대변인 툼텐 삼펠은 "회의에서 중국 새 지도부를 상대하는 전략적 접근 방안이 논의됐으나 아직 협상 대표는 임명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오는 3월까지 기다린 후 태스크포스 회의를 다시 열고 협상 대표단 인선과 협상 전략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1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특사와의 협상을 끝으로 대화를 중단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중심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총서기의 부친 시중쉰(習仲勛) 전 부총리와의 인연을 강조해 새 지도부의 티베트 정책 변화에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2〉

암베드카르는 누구인가 ㊦



불가촉천민 극복한 인도 최고 지성… '신불교' 운동가

인도 내에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극단적 차별이 19세기 까지 성행하던 당시 암베드카르 역시 불가촉천민으로 1891년에 태어나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떨어진 구석자리에 앉아야 했으며 산스크리트를 배우는 것이 수드라계급과 불가촉천민에게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던 산스크리트 대신 페르시아어를 배워야 했다.

또한 학교에서 목이 마를 때도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그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오염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그는 학교 급사가 와서 수돗물을 틀어줘야만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은 어린 암베드카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특정한 직업에만 종사해야 했던 불가촉천민들은 영국의 인도지배를 계기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암베드카르의 아버지도 영국군대에서 근무하게 됐다. 자식교육에 열의가 대단했던 암베드카르의 아버지는 누이의 귀금속을 저당잡혀서라도 아들의 책을 사주곤 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는 불가촉천민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어서 축하모임이 열렸다. 열심히 공부하던 암베드카르를 눈여겨보고 있던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 모임에 참석해 한 주정부의 장학금을 주선해주었다. 이 장학금으로 그는 대학을 졸업했고 해외유학까지 떠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공부하던 1917년에 그는 장학금을 지금한 주정부의 부름을 받고 귀국하여 주정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인도 델리대학교 교정에 있는 암베드카르 동상

그 당시 인도에서 드문 박사학위 소지자였지만 불가촉천민이라는 신분은 그의 학력과 경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그는 사무실에서 물을 마실 수 없었으며 사무실의 사환조차 그와의 신체접촉을 꺼려 서류를 건네야 할 때는 멀찍이 떨어져서

신분때문에 박사학위 무용지물 되기도

美 · 英 유학, 변호사 · 인도 초대 법무장관

던져주곤 했다.

또한 불가촉천민에게는 누구도 방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화교도((拜火教徒)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숙을 얻었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분노한 배화교도들에게 폭행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에 좌절한 그는 결국 몇 달만에 주정부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암베드카르는 그 이후 봄베이에 있는 한 상과대학의 교수로 임명됐다. 그러나 상황은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그는 교수 휴게실에 놓인 주전자의 물을 마실 수 없었고 동료교수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못다한 공부를 마치러 다시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에서 그는 다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서른 두 살의 나이에 암베드카르는 두 개의 박사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최고의 지식인이 되어 인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인도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불가촉천민들을 고통에서 구하려는 활동을 시작한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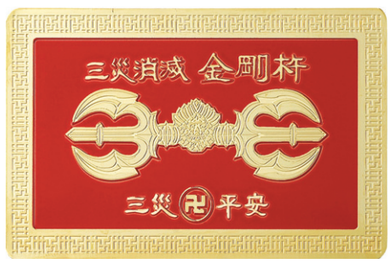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경전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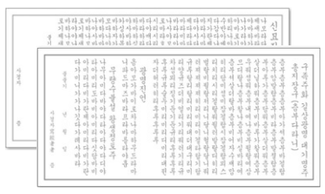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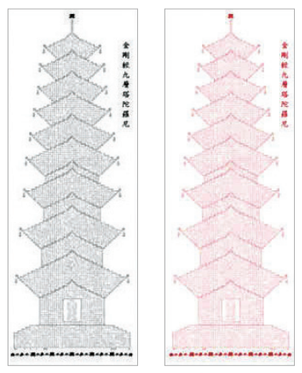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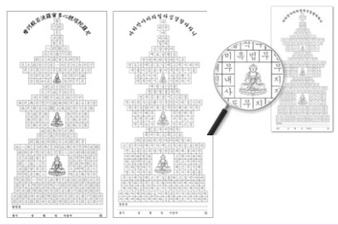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435㎜×300㎜

사경지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8,000원(20장이상) 정 가 10,000원
- 종이 케이스포함 / 한지낱장
- 75cm×210cm (먹색,적색)
- 손으로 직접 뜬 전통 재래 한지



★반야심경 탑사경(한문 · 한글)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한지낱장 / 63.6㎝×31.3㎝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 가 1,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 가 25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 가 6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님의침묵〉 초간본 역사박물관 전시

한용운 스님의 흔적 느낄 수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왕식)에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초간본이 전시됐다.

1926년 출간된 시집 〈님의 침묵(沈?)〉은 한국 근대시사에 있어서 기념비적 시집 중 하나다. 〈님의 침묵〉은 이 땅에서 근대적 자유시가 창작되기 시작한 이래 형이상학적 사유를 자유시라는 형식 속에 녹여낸 최초의 시집이다. 또한 심오한 불교적 사유에 시적 인식이 닿아 있어, 우리의 근대 자유시에 철학적이며 명상적인 깊이를 불어넣어 주었다.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초간본

한용운 스님은 관념적인 철학과 사상을 예술적 형상으로 미학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사상의 정서화라는 근대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2008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총 44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8층 건물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상설전시실 4개와 기획전시실 2개를 비롯해 수장고, 세미나실, 강의실, 카페, 문화상품점, 옥상 정원 등을 갖췄다.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연대순으로 보여주는 상설전시실 4개는 3층에서 5층까지의 공간에 배치돼 있다. 3층의 제1전시실 '대한민국의 태동(1876~1945년)'을 시작으로 4층 제2전시실 '대한민국의 기초확립(1945~1960년)', 5층 제3전시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1961~1987년)'과 제4전시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1988~)' 순으로 마련됐다. 정혜숙 기자

"박물관서 탑이야기 들어봐요"

경주박물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진행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겨울방학을 맞아 '경주박물관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주박물관은 2월 24일까지 박물관 전시품을 주제로 강의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좌는 '탑 이야기', '십이지와 올해의 띠', '비단길 따라 온 문화재'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주말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박물관 여행'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불상의 얼굴을 주제로 교육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문화재 달력 만들기를 체험 △단소를 직접 만들고 배울 수 있는 '박물관 단소 교실' 등도 진행된다.


경주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현장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 '교육 및 행사(신청가능교육)'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일주일 전부터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054)740-7500 정혜숙 기자

한국예술원 동양문화예술과 개설

담원 김창배 교수로 임용

Kac한국예술원에서는 선묵화·차문화 예술·서예·문인화·현대 미디어를 융·복합하는 동양문화예술을 전공과목으로 신설하고 2013학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세부 선택 전공으로 불화·캘리그래피·민화·동양화·전각·서각 등의 과목을 학습하는데 졸업 후 예술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임 교수로는 담원 김창배 작가가 임용됐다. 김 작가는 선묵화와 차문화를 접목으로 선묵화법, 달마화법 등으로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입학 가능하며, 서류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특별 전형으로, 서·화계, 차문화계에서 인정하는 각 협회의 공모전 입상자와 협력기관장의 추천에 의한 전형자에게는 입학 우선권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02)736-7445 정혜숙 기자

함께 읽고 '法' 나누다 보면 불심 '성장'

불서 모임은 바른 신행의 길잡이

"'벗이여 고따마시여,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입니까? 또는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것입니까?' 자, 이 구절에서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동산반야회 니까야독송반 회원들의 목요일 저녁은 이렇게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북칼럼니스트이자 동국대역경위원 이미령 씨의 지도로 20분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니까야〉 구절을 독송한다.

7년 결사로 진행되고 있는 니까야 독송반이 요즘 읽고 있는 경전은 〈맛지마니까야〉다. 회원들은 이렇게 경전을 함께 독송하고 배우며 부처님의 말씀을 익히고 몸으로 체득하며 수행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불서를 함께 읽으면 혼자 읽을 수 없는 책도 읽게 되고 서로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독서모임이 주는 혜택이다.

불교계에도 다양한 독서모임이 있다. 북칼럼니스트 이미령 씨가 이끄는 '붓다와 떠나는 책여행'과 동산반야회의 니까야독송반, 일산 정토법당의 암바따, 재가자들의 모임 불력회, 정운 스님이 운영하는 니련산하, 부산 연천사 독서 모임 등은 불서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불서 독서모임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매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카페 '붓다와 떠나는 책여행' 불서모임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 모임은 8년째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다. 불서는 물론 생태 인문학 서적도 읽으며, 중간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내고 대답해 주며 모임을 진행해 나간다.

'불력회'·'붓다와 …' 등
다양한 불서 모임 곳곳서
니까야독송반 7년 결사 발원
암바따…성경 읽기도 시도


교계에도 다양한 독서 모임을 통해 꾸준히 불서읽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동산반야회의 니까야 독송반 모습.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미령 씨는 "불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불서를 읽고 불교에 귀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불서의 역할은 크다. 불서를 꾸준히 읽는다는 것은 수행과 같다. 자신의 목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가 안정을 찾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불서 모임은 또다른 하나의 법회와 같다"고 전한다.

정토회 일산법당 회원들로 구성된 암바따 독서모임은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독서회다. 암바따라는 모임의 명칭은 경전 속에서 분별심이 많은 바라문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는 수행의 과정에 있는 회원들 스스로를 가르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수행을 책찍질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이 주부들이지만 가벼운 책보다는 〈금강경〉 〈대승기신론소〉 〈화엄경〉 등 묵직한 내용의 불서를 고집한다.

회원 임원영 씨는 "대부분 불교서적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함께 모여 불서를 읽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다보니 어느새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다. 회원 중에는 같은 주제의 책을 여러 종류 읽고 오는 분들도 몇 명 있을 만큼 열의가 대단하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내용을 경전에 대입시키다보니 더 풍부한 이해력이 생긴 거 같다"고 전한다.

불력회 역시 월 1회 독서 모임을 갖는다. 99년도부터 시작해 매월 종로 3가 아미타사에 모여 달라이라마, 틱낫한, 법정 스님, 법륜 스님 등의 책을 읽으며 신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니련선하원은 조계종 교수 아사리 정운 스님이 이끄는 독서 모임이다. 2003년부터 시작해 1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불서는 물론 소설,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고 있다. 정운 스님은 "돌아가면서 발표문을 작성해와 읽는 방식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10년 동안 독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여 다양한 책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다. 하지만 불서는 지식을 얻는 동시에 불법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불서모임은 대중들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통불화서 보는 다채로운 '뱀'

핑크붓다 '뱀은…' 전시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Pink Buddha)는 불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결성됐다. 불교예술을 보다 친숙하고 편하게 표현해 대중들에게 불교의 본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핑크붓다의 목표다.

뱀의 해를 맞아 핑크붓다가 1월 11~20일 종로구 가회동에 자리한 갤러리한옥에서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획자 조수연(동국대대학원 불교미술전공 박사과정) 씨를 주축으로 핑크 이명아, 이정은, 전경희, 정금률, 정윤영, 허효진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불교회화·동양화·서양화는 물론 패션, 불교학, 디자인경영, 사운드아트 등 각각의 전공을 바탕으로 뱀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작품으로 펼쳐낸다.

다양한 전공의 작가들로 구성된 핑크붓다(Pink Buddha)는 '뱀은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 그리고 탈피하지 못한 뱀은 생명을 잃고 만다'는 점에 착안해 첫 전시를 기획했다.

기획자 조수연 씨는 "작품 또한 회화, 공예, 의상, 설치, 음향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자 불교적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한 실험적인 전시다. 또한 관람객이 종교예술이라는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감을 갖고 접근하게끔 유도한 관객 참여형 전시"라고 설명한다.

뱀에 대한 다양한 생각 표현
11일~20일까지 갤러리한옥서

조수연의 '마음의 정돈'은 선정에 든 평화롭고도 자비로운 부처님 뒤로 나비가 날고 황금색 뱀이 환희롭게 솟아오른다. 모시바탕에 수간안료로 작업한 작품으로 내면으로의 여행을 통해 고정된 '나'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이정은의 '자개 뱀의 행복한 가치관'은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꽃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도라지꽃 등을 어우러지게 표현했으며 뱀의 형상에 자개의 아름다움을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조 씨는 "종교예술의 형식적 탈피가 아닌 진정한 불교적 의미를 되찾고자하는 점에 뜻을 두고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대중과 작가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열린 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조수연의 '마음의 정돈'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오방색으로 치유의 만다라 표현

김인섭 만다라전-오행상생 I
16~22일까지 경인미술관서

전통의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방색이 불교와 만나 만다라로 태어났다. 김인섭 작가의 만다라展-오행상생 I 이 1월 16~22일까지 경인 미술관에서 열린다.

김 씨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만다라는 물론 불교의 사물을 응용한 작품 20여 점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김 씨는 다섯가지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색을 통해 작품을 표현했다. 오방색은 청, 홍, 황, 백, 흑 다섯 가지 색으로 방위를 나타낸다. 또한 이는 나무, 불, 흙, 쇠, 물 기운의 움직임인오행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청은 땅을 뚫고 솟아나와 끊임없이 생장하는 나무의 기운을 △홍은 스스로를 남김없이 태워 빛과 열을 사방으로 발산하는 불의 기운을 △황은 만물을 품어 터전을 이루는 흙의 기운을 △백은 발산하던 힘을 안으로 수렴하여 알차게 열매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씨는 이런 오방색의 의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싶었다고 전한다.

"건강이 안 좋았던 제가 만다라를 그리며 많은 안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이 관람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가 오방색을 메인 테마로 불교적인 부분을 접목시켜 표현하고자 했죠"

작가는 이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양에서 색채 심리학을 통해 심리를 치유하듯이 오방색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품에 임했어요. 대중들이 제 그림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형화된 만다라에서 벗어나 한국 불교의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래서 노란색 흑색 백색 바탕 위에 목어와 범종이 나란히 배치돼 있는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티베트의 만다라는 정형화 돼 있는 것이 많아요. 원은 우주를 상징하고 사각형은 지구 삼각은 인간을 나타내죠. 이런 문양들의 반복이 만다라로 표현되지만 한국의 만다라는 큰 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찰의 가람 배치, 탱화 등을 응용해 저만의 만다라로 표현해봤죠"

김 작가는 이런 일련의 작품활동 모두가 포교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산수화 작품을 그려오던 작가는 90년대 후반부터 동산불교대를 다니면서 불법을 공부하고 참선 등을 통해 꾸준히 수행을 해왔다. 이후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법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포교당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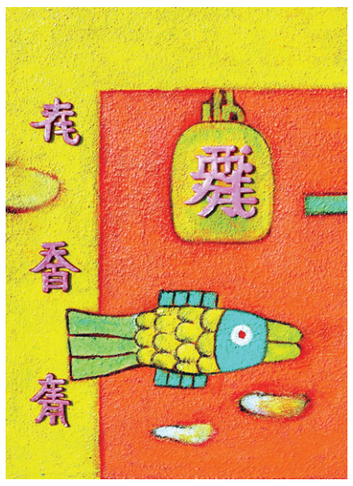
오방색 마음의 안정 찾아줘
한국형 만다라 표현도 눈길
포교당 열어 그림지도 발원

"모태 신앙이었지만 불교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했어요. 90년대 말부터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 법 만난 기쁨을 알았죠. 이런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만다라 그림도 그리게 되었어요. 앞으로 포교당이 마련된다면 불법 강의는 물론 만다라 지도를 하며 많은 이들에게 제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김인섭 작가는 동국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을 졸업했다. 동산불교대를 거쳐 불교연합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개인전으로는 길상만다라전(불일미술관) 코스모스 갤러리 기획 초대전 등이 있다.

제 3회 관악 현대 미술대전 특선, 제 36회 경기도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한 바 있다. (010)4928-254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김인섭 작가는 오방색을 응용한 만다라 20여 점으로 관람객들을 찾는다.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1. 꽃병→만병(상)

생명력 가득찬 꽃병은 '만병'이었다

조형언어 해독 다시 문자언어로

불교미술사는 한국미술사이다. '불교미술'이라고 왜 스스로 한정짓는가! '한국미술'이라고 불러야 한다. 건축(사찰건축, 궁궐건축)-조각-회화-공예(도자공예, 금속공예) -복식 등 한국 조형미술의 모든 조형은 고차원의 불교미술 아닌 것이 없다. 사상과 문학도 마찬가지다. 원효는 불교사상가인가. 아니다. 한국사상가이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불교용어가 없다고 해서 불교문학이 아니라 하겠는가. 그 시집은 한국문학의 금자탑이다. 왜 항상 불교만 찾아서 불교미술이란 용어로 접두어로 붙여서 스스로 작게 한정시키는가. 불교계는 불교문화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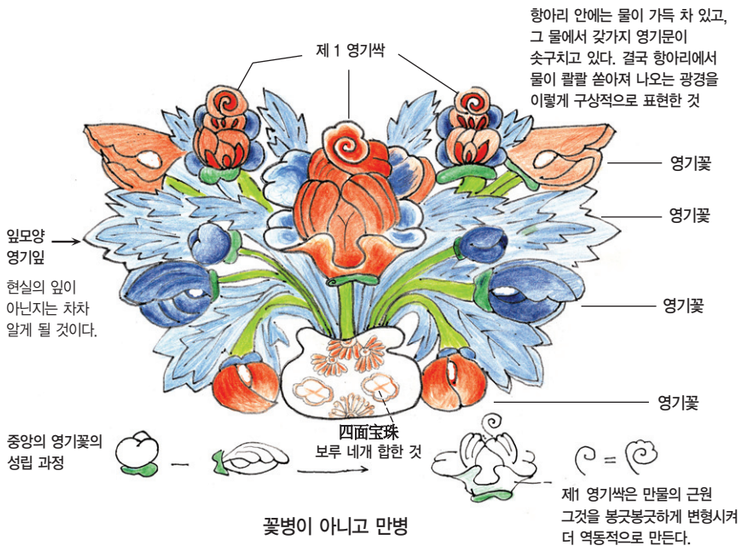
대학시절 25세부터 미술사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반세기라는 긴 세월 50년 가까이 공부를 해온 셈이다.

그동안 논문도 많이 썼고 저서도 열 권 이상을 펴냈다. 모든 논문의 주제가 불교미술, 특히 불교조각이지만 나 스스로 불교조각전공자로 인식한 적은 없다. 요즈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불교전공자로 알고 있다. 나의 학문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이화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이다. 그 학문의 대전환이란 것은 서서히 이루어졌는데 대전환의 계기는 고구려벽화의 암호 같은 조형들을 기적적으로 해독하기 시작한데서 비롯한다. 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2년이 흘렀으며 그동안 정립한 이론은 〈영기화생론 靈氣化生論〉이란 방대한 것으로 인류 보편적인 이론으로 정립하여 가는 도중에 있으나 뼈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나의 연구대상은 갑자기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로 무한히 확장되었으며, 영기화생론은 조형미술뿐만 아니라 언어학-사상-종교-문학-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인 것은 인류가 이루어온 무량한 조형미술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진실에 도달하고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단지 빙산의 일각만 보인다는 것에 놀란 것보다 더 경악한 것은, 그나마도 용어들이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문적 대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 자신도 그런 진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릇된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용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예술작품의 여러 개념들을 요약한 것이고 그 용어에 의하여 뜻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바다 밑의 거대한 빙산을 발견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생이 보이게끔 해야 했으며, 보이지 않았던 조형이므로 이름이 없어서 신(神)이 아닌 내가 조형들의 이름들까지 부여해야 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수많은 새로운 조형들의 상징을 밝혀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런 조형의 구성 원리와 상징구조를 밝힌 다음 만든 용어들을 만들었으므로 나름의 근거가 있는 용어들이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니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때때로 중국이나 서양의 예도 들게 될 것이다.

내가 밝힌 것이란 한 마디로 '조형언어'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독해낸 것이었으며, 문자언어에 문법이 있듯이 조형언어에도 문법이 있어야 하므로 그것을 정립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해독한 조형언어를 다시 문자언어로 바꾸어 써야 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결국 조형언어는 문자언어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연재에는 작품 사진과 작품을 채색분석(彩色分析)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도 여러분은 종전의 안목과 사고력과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가 생소한 조형이고 모두가 낯선 이야기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소리이므로 그 조형이 보이고 상징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조건이 있다. 이 연재는 여러분이 눈을 떠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내가 해독한 조형언어 문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조형들이 새로이 풀리게 된다. 앞으로 잘못된 용어, 아무 의미 없는 용어들을 낱낱이 증명해가며 올바른 용어로 바꿀 것이다. 그 수많은 용어들 가운데 우선 '꽃병'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꽃병이 아니고 만병

왜 꽃병이 '만병'인가

사찰건축에 가보면 법당과 누각의 안팎에 꽃병 그림이 매우 많다. 뿐만 아니라 궁궐이나 문루 등 한국건축에도 많다. 한국건축은 불교건축을 올바로 연구하지 않으면 풀려지지 못한다. 꽃병을 조각하여 화반을 삼기도 하고, 포벽에 그려 넣기도 한다. 화반이란 포와 포 사이에 놓여 장혀와 창방 중간에 놓인다. 이러한 화반을 주로 개방적인 건물 즉 누각이나 문루(門樓)의 건축에서 볼 수 있어서 화반 양쪽으로는 터져 있다. 개방적이 아닌 법당인 경우에는 공포와 공포 사이를 벽으로 막고 회를 바른 다음 그 포벽(包壁)에 꽃병을 그린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개방적인 누각인 경우에는 반드시 용의 얼굴(龍面)을 조각한 것과 꽃병을 조각한 것을 교대로 배치하여 화반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풍남문 만병 화반

그러면 그 꽃병들은 과연 말 그대로 그저 단순한 꽃병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왜 꽃병을 그토록 많이 조각하여 용면과 한 세트를 이룰까? 어떤 분은 공양화(供養花)라고 한다. 요즈음 사찰건축에 관심이 많아 건축학회에서 여러 주제들을 발표하고 학술지에 싣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건축 의장(意匠)에 우리나라 사상과 조형의 본질이 오롯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았다.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꽃병의 비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일체의 전통미술에는 중요한 우주관이나 인생관이 반영되지 않은 조형은 없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장식으로만 알고 지나치니 전통미술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창작행위도 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더 나아가 서양의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나 일반 대중들은 모두 꽃병이라 부르고 있다.

전주 풍남문 화반 꽃병
꽃 아닌 영기문 발산

그러던 가운데 7년 전 어느 날 밤, 조명을 받으며 뚜렷하게 보이는 전주 풍남문(豐南門)의 화반에서 꽃병을 보았는데 그 꽃병에서 나오는 것이 꽃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사진을 찍어서 돌아와 그려보고 채색분석하여 보니 놀랍게도 영기문(靈氣文)이 발산하여 나오는 광경이었다. 영기문이란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가시화한 갖가지 조형을 나는 영기문이라 이름지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이름이 없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조형에 내가 이름을 붙여나갈 것이니 여러분은 정독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이나 '우주에 충만한 성령(聖靈)'이나 '삼천대천세계[우주]에 가득 찬 여래' 등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여래는 한 마디로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어서 만물을 생성시킨다. 바로 그 갖가지 영기문이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그 때부터 나는 꽃병이 아니고 다른 성격임을 짐작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점차 '대생명력이 가득 찬 병' 즉 만병(滿甁)이라는 만물생성의 근원이라는 도상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우선 풍남문의 꽃병을 그려서 채색분석(彩色分析)한 것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함께 할 것이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버렸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최초 '무문관' 수좌 제선 선사 재조명



무문관 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 선사
박부영, 원철, 김성우 공저
비움과 소통 펴냄
1만5천원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문관 수행의 창시자인 제선 선사(1912~? 사진)의 탄생 100주년(2012년)을 맞아 스님의 구도 행적을 정리한 책이다. 그의 행장을 소상하게 찾아내 써내려가고 있다. 제선 선사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 무문관 수행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

제선 선사는 도봉산 천축사 좁은 토굴에서 6년간 폐관 수행을 한 뒤,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생사여부가 불확실 하고, 선사의 높은 경지를 활자로 옮길 엄두를 낸 이가 없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다가 이 책을 통해 그의 삶과 수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1942년 늦가을, 백련암에 안거하며 정진했던 제선 스님은 공무로 관청에 갔다가 밤늦게 백련암으로 돌아오던 길에 호랑이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었다. 잠시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다가 바로 정신을 가다듬고는 호랑이와는 불과 한 칸을 사이로 마주 앉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가야산 주인이 너인가, 나인가!' 좌선삼매에 몰입하였다. 한참 뒤 살펴보니 앞다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잡아먹을 듯이 무섭게 앉았던 호랑이가 참회하듯 앞 다리를 꾸부리고 꿇어 앉아 있었다. 스님의 수행력에 축생의 사나운 짐승도 감화되어 심성이 맑아진 것일까! 호랑이의 선근을 확인한 스님은 가까이 가서 호랑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발보리심하라.'는 설법을 하고는 유유히 백련암에 도착했다."



'무문관' 수행을 열고 홀연히 사라진 제선 선사

머물던 천축사 토굴 '무문관' 효시
홀연히 사라져 전설로만 회자
호랑이에게 "발보리심하라" 등 일화 소개
무문관 수행의 의미와 역사 점검 기회



일제시대 백련암 시절(앞줄 오른쪽 끝이 제선 선사)



천축사 무문관 개원법회서 테이프컷팅하는 제선 스님(오른쪽 두번째)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석영당과 제선 선사의 수행과 삶'에서는 스님의 삶과 수행을 적고 있다. 일타 스님께서도 생전에 법문과 책자에서 자주 인용했던 제선 선사의 가야산 호랑이를 감회시킨 발보리심 이야기, 개가 아들로 태어난 인과응보, 출가인연 이야기 등 불자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도 들어있다. 이처럼 비범하면서도 도전적인 제선 선사의 구도심과 인과응보, 출가인연, 초인적인 수행이야기가 다양한 수행현장 탐방과 증언 채록,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2부 '무문관의 관점에서 바라 본 조주무자'와 3부 '생사해탈의 관문, 무문관 현장 엿보기'에서는 前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을 통해 문을 자물쇄로 채우고 수년간 독방에서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하는 전통적인 무문관 수행의 의미와 역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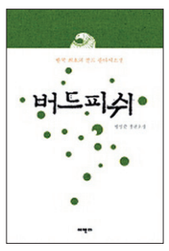
저자 박부영은 "올해(2012년) 탄신 100주년을 맞아 제선 선사의 삶과 행적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는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의미에다 선사의 삶을 문자로 남김으로써 공부하는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발전은 수많은 고승들의 생사를 건 공부와 끝없는 정진 덕분이다. 그 가운데서도 제선 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의심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을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품게 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경지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희망과 등불을 밝혀준다."며 출간의 취지를 적고 있다.

한 구도자의 목숨을 건 구도행이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인생관과 세계를 향한, 일체 중생을 향한 큰 원력과 도전정신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 녹아 있는 최초 골프소설

버드피쉬
방민준 저 | 어젠다 펴냄 | 1만2천원



한국 최초의 골프 판타지 소설이다. 골프 기술을 소개하는 책이나 골프 관련 에세이는 많이 있지만 골프소설은 없었다. 책은 저자 방민준이 직접 체험한 골프 세계의 감동과 경이를 새로운 장르 소설로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저자는 골프와 조우한 뒤 골프의 밀림에 묻힌 정신세계를 더듬으며 체험한 감동과 경이를 한 편의 소설로 그려냈다. 골프가 서양에서 발원한 스포츠지만 골프 자체에 깃든 정신과 골퍼에게 요구되는 동양의 사유를 새롭게 발견한 저자는 동서양의 교감을 통한 골프의 완성을 꿈꾸며 한 편의 소설을 완성했다. 소설 중간에 등장하는 삽화는 골프의 동양사상에 몰입한 저자가 그린골프 수묵화로, 새로운 볼거리다. 저자에 의해 창조되어 제목으로 쓰인 '버드피쉬'는 새의 머리와 날개에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한 상상의 동물로, 창공을 날고 싶은 새와 깊은 바다를 유영하고 싶은 물고기의 꿈을 함께 담고 있다.

인도, 티베트, 네팔, 중국, 일본 등지를 3년 여간 떠돌던 주인공 존은 선(禪) 사상을 찾아 한국의 사찰 순례에 오르고 우연히 지리산에서 막걸리 도사를 만난다. 그는 그를 걸리도사라 부른다. 걸리도사와 지리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존은 걸리도사로부터 선과 골프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존이 지리산에 머문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걸리도사는 처음으로 존을 데리고 읍내 5일장 나들이에 나섰는데, 그곳 초등학교에서 골프를 배우는 어린이들을 보고 존은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골프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침을 느낀다. 걸리도사 역시 과거에 골프에 애정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둘은 골프를 통한 정신적 교감을 쌓아간다.

어느 날, 걸리도사는 존을 데리고 송광사로 간다. 그곳에서 심우도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며,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서 소를 찾아 돌아와 끝내는 소와 자신마저 잊는다는 심우도에 얽힌 내용을 가르쳐 준다. 지리산에 겨울이 찾아오고 존은 영국으로 돌아간다. 걸리도사는 존과 헤어지기 전, 존에게 동양적 사상에 입각한 골프의 진수를 전해주며 자신이 깍아 만든 '버드피쉬'라는 목걸이를 선물한다. 영국으로 돌아간 존은 세인트앤드루스 디 오픈에 참가하는데 아마추어 선수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된다. 소설은 존이 우승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한국에서 체험했던 불교적인 정서와 선사상 등이 소설속에 그려진다. 한국 최초의 골프 판타지소설이다.



저자 · 방민준

저자 방민준은 30여 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골프의 정신세계를 조명한 에세이집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등을 펴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6~1/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기도	법륜	정토출판
8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9	왜 선문답은 동문서답인가	이은윤	동아시아
10	반야참회	혜룡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배움에 들어선 이에게

초발심자경문
화령 옮김 | 불교총지종 법장원 펴냄 | 1만2천원



출가하여 발심하는 학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가르침들을 모은 〈초발심자경문〉이다.

〈초발심자경문〉은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과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조선시대 때 합본된 것이 분명하나 언제, 누가 합본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무릇 처음 불문에 들어온 자는
모름지기 악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이를 친하고 가까이해야하며,
오계와 십계 등을 받아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음을 잘 알아야 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에 의지하되
어리석은 무리들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계초심학인문-처음으로 배움에 들어선 이에게 훈계하는 글〉은 지눌 스님이 조계산 수선사에서 대중을 인도하고 교화시키기 위하여 지은 기본규율서로, 1397년 흥천사 초대 주지였던 상총 선사가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왕지를 받들어 이 〈계초심학인문〉을 전국의 청규로 선포한 이래 한국불교의 청규로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 주요 내용은 행자의 마음가짐과 지켜야 할 규범, 일반대중이 지켜야 할 준칙, 선방에서 지켜야 할 청규 등이다.

"무릇 모든 부처님이 적멸보궁을 장엄함은
수 겁 동안 욕심 끊고 고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마다 불타는 집 끊임없이 윤회함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탐욕 끊지 못함이라."

〈발심수행장-발심하여 수행하라〉는 신라의 원효대사가 지은 것으로, 서산 대사 청허의 법손인 월담선사가 사미과 교재에 편입했다고 한다. 4·4구의 게송 형식으로 된 〈발심수행장〉은 발심 수행의 중요성과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적혀있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 보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문에서 도를 이루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오래도록
고취에서 헤매고 있는가?"

〈자경문-스스로 경계하는 글〉은 고려 때 야운 선사가 스스로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내용이 좋아 후학들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하여 함께 묶어 전해져 온다. 내용은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을 10가지로 분류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말 것을 스스로에게 경계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초발심자경문〉은 이처럼 그 내용이 모두 출가 수행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처음 출가하여 불도를 이루고자 발심하는 학인들이 가슴에 새겨둘 가르침들이다. 때문에 〈초발심자경문〉의 가르침들은 출가자가 아니더라도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가까이 두고 가슴에 새겨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가능한 쉽고 간명한 번역으로 원문의 뜻을 전하고자 했으며, 불필요한 주석들을 생략해 간단하고 명료하다. 역자는 독자들이 책을 통해 옛 스승들이 불도수행에 임했던 투철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책을 수행의 좌표로 삼을 수 있다면 역자로서 기쁠 것이라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탑 부조상 작가적 상상력 동원해 조명



솔도파의 작은 거인들

글 주수완
사진 유남해
다할미디어 펴냄
2만8천원



사진은 원종대사(869~958) 탑비의 귀부와 이수. 이 거대하고 넓게 퍼진 귀부는 지금의 자리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사찰에 가면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반기는 것이 바로 탑이다. 하지만 왜 탑이 절 마당에 세워져 있으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히 답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풀릴 것 같다.

이 책은 한마디로 탑을 장식하는 부조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불교미술에서는 불상과 보살상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탑에 새겨진 금강역사, 십이지, 사천왕과 같은 수호신상들은 그저 보조적인 존재로서만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불상이든 보살상이든 혹은 이렇게 탑에 새겨진 수호신상이든 모두 독자적인 의미와 스토리가 담겨있다.

탑에 새겨진 부조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도상학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의 장점은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준다는데 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시 여겨 한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마저도 허를 찌른다. 예를 들어 금강역사가 부처님을 호위했다는 이야기를 보자. 저자는 실제 불교경전을 살펴보면 금강역사가 부처를 위기에서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불교미술적 측면에서 불교교리에 무지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아무리 불교 미술을 뒤적거려도 엘리트조차 그 내용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근거 없는 상식들이야말로 불교미술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그만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장으로 나뉜다. 앞장의 '싯달타 가시니 불타가 오고'는 불탑에 관한 것이고, 다음의 '고승이 가시니 산문이 열렸네'는 승탑에 관한 것이다. 종횡무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

각각 10개의 불탑과 승탑을 다루고 있는데, 불탑 이야기는 가장 단순한 금강역사부터 시작해서 점차 탑의 부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면 승탑 이야기는 구산선문의 대표적인 승탑에서 시작해 고려와 조선의 승탑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화엄사 사사자석탑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사사자석탑이 어떤 경전에 근거한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예를 들어 사자빈신사지에 있는 탑과 비슷해 〈화엄경 입법계품〉의 사자빈신 비구니의 삼매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하고, 〈화엄사사적〉에 등장하는 연기조사의 설화라고도 해석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경전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불탑을 보면서 붓다를 보고 싶어했던 당시 불교도들의 열렬한 염원을 반영해 사리로 압축되던 붓다가 탑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는 극적인 장면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일신라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현대의 우리들이 염원하는 바와 고대인들이 염원했던 바가 다르지 않았음을 명쾌히 그려내고 있다.

그렇다고 저자가 그저 보고 느낀 대로만 주장을 펼치는 것만도 아니다. 저자는 학부 때부터 미술사를 공부해 불교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자다. 따라서 불교미술에 교리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는 저자의 주장은 아이러니 하게도 철저히 교리에 근거한다. 밀교와 선종을 비교하면서 "밀교는 즉신성불(即身成佛), 선종은 즉심시불(即心是佛)로서 모두 대승불교의 극단적 형태"라고 풀이하는 부분은 간단하지만 교리에 정통하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는 명쾌한 답이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은 경전 어디에도 '즉심시불'을 어떻게 표현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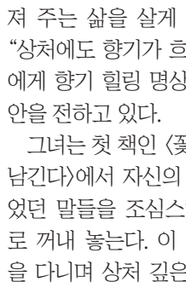
그런 보이지 않는 추상의 개념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 몫이다. 저자는 불교미술을 통해 옛 선인들의 상상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특히 승탑을 다룬 글에서 승탑 주인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그들의 이념과 승탑의 예술적 특징을 연관지어 설명한 것은 경전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자만의 독특한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 그에게 제자리를 떠난 불상과 보살상보다는 압축된 이야기를 담는 탑에 새겨진 부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도상학 연구에 있어 최상의 소재가 될 듯하다.

이런 저자의 이야기 전개에 더욱 깊숙히 빠져들게 만드는 가장 큰 매개체는 바로 이 책에 담긴 주옥같은 사진들이다. **김주일 기자**

심신 통증 치유하는 명상에세이

꽃은 져도 향기를 남긴다

김윤탁 지음 | 미르북컴퍼니 펴냄
1만4800원



물욕을 위해 발버둥치는 현대인이나 더 열심히 뛰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뜻을 전하는 에세이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명상치유센터인 '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산속옹달샘' 인기 강사 '김윤탁'이 펴낸 〈꽃은 져도 향기를 남긴다〉이다.

저자는 이 시대가 더 많이 가지라고 할수록, 더 바쁘게 움직이라고 독려할수록 나를 비우고 돌보고 내려놓으라고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일상에 평온이 찾아오고 마음이 치유된다. 이 책의 저자 김윤탁은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이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저자는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어쩌다 자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함께 울어 주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매만져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는 "상처에도 향기가 흐른다"며 사람들에게 향기 힐링 명상으로 평안과 위안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첫 책인 〈꽃은 져도 향기를 남긴다〉에서 자신의 내면에 담아 두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글로 꺼내 놓는다. 이 책을 통해 전국을 다니며 상처 깊은 사람들에게 소녀 같은 표정과 따뜻한 음성으로 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린 향기명상의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는데, 햇빛을 받으며 걷거나 운동 등을 하면 세로토닌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세로토닌을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뇌에서 활발하게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기쁨으로 작용하고, 몸과 마음에서 생동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즉 결론은 자비심을 베풀고 이타행으로 살면 우울증에도 안걸리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마치 당장이라도 나비가 날아올 듯한 은은하고 신비로운 꽃그림도 가득하다. 이는 그녀의 편안한 글과 어우러져 읽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킨다.

덕분에 이 책은 바쁘고 정신없었던 일상에 쫓겨 허덕대고 앞만 보며 달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 준다. 그녀의 글과 꽃그림에 취해 마음에 일어난 물결을 받아들이다 보면, 매우 편안해진다.

저자 김윤탁은 목소리 하나만으로 향기명상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웃고 울리기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도 향기명상에 대한 얘기도 빠트리지 않는다. "누워 있기만 하는 어르신의 방에 발향하면 향기는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거의 누구나 좋아하며 살균 효과도 좋은 레몬향기를 아로마램프로 발향하거나 스프레이로 분무하면 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유칼립투스 형기를 섞어 아침저녁, 계절에 따라 향기로 변화를 주면 좋습니다."라고 향기 요법의 효과를 주장한다.

즉 어르신들이 겪는 고통이나 부조화는 대개 불안감이나 우울증같은 정신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혼자

상처치유 강사의 심신치료법
자비심내면 세로토닌 증가
향기명상 효과도 설명해

방에만 있어야 하는 분에게는 매일 아침 인사 드릴 때, 향기 나는 손으로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아드리라고 말한다. 이 책은 그런 저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초판 한정판매로 제작된 그녀만의 향기명상 CD를 눈감고 차분히 들어 보자. '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산속옹달샘' 향기명상 강의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 명상 CD에는 21가지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향기 이야기가 담겼다. 맑고 청아한 저자의 목소리를 타고 전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

저자 김윤탁은?

일본 문학 박사, 일본 아로마테라피스트, 일본 지키덴 레이키 마스터이다. 상처가 많은 자신을 치유해 준 향기에 매료되어 향기와 명상을 접목시켜 향기명상법을 개발했고 지금껏 그 신비를 널리 알리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부와 여성부의 '건강한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치유 방안'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노인복지 요양원, 장애인 재활센터, 호스피스 단체, 위안부할머니들의 '나눔의 집'에서 강의 및 봉사활동을 해 왔다. 한국향기명상협회 회장, 명상센터 「작은명상원」 원장, 인터넷 쇼핑몰 「숲속향기」 대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명상치유센터 '고도원의 아침편지 깊은산속옹달샘'의 전임강사로 활동 중이다.

본질 알면 깨달음 어렵지 않다

깨달음, 이것이다

김종흥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2천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깨달을 수 있다고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꿈도 꾸지 않으려 한다. 이 책은 이 같은 통념을 뒤집어 엎는다. 깨달음이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진정한 참나를 알아차리는 것이므로 정말로 쉬운 것이 깨달음이라고 역설한다. 참나가 참나를 찾고 있으므로 한번 초점만 바로 맞추면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저자 자신의 실존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선언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과 통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의 본질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해 그릇된 방향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깨달음에 대한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와 통념들, 그리고 그릇된 선입견들이 깨달음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안내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는다. 따라서 깨달음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바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만 하면 깨달음은 어렵지 않고 쉬우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난해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120여 편의 글들은 쉽고 명쾌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소재들을 예화로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따라서 수행자이든 아니든, 존재의 실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가 있다. **김주일 기자**

심인성질환 치유 사례 한데모아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BG북 갤러리 펴냄 | 1만3천원



심인성질환의 치유 전문가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모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지난 살아온 과정과 전생에서 잠재되며,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고 담아냈다.

요즘은 특히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더구나 그 증상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서 생활할 수 없는가 하면, 또는 대중탕에 갔을 때 물이 두려워 탕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못 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신이상자로 취급받으며 병원에 갇힌 환자들 중에는 빙의된 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저자는 본문 제 3장에서 접신(接神)되어 무속인의 길을 가는 무당들의 실태를 밝히고 무당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무당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태도 꼬집고 있다. 마지막 제 4장에서는 사주팔자란 무엇이며 사주팔자를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풀어썼다.

끝으로 저자는 "심인성질환들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게 되면 얼마든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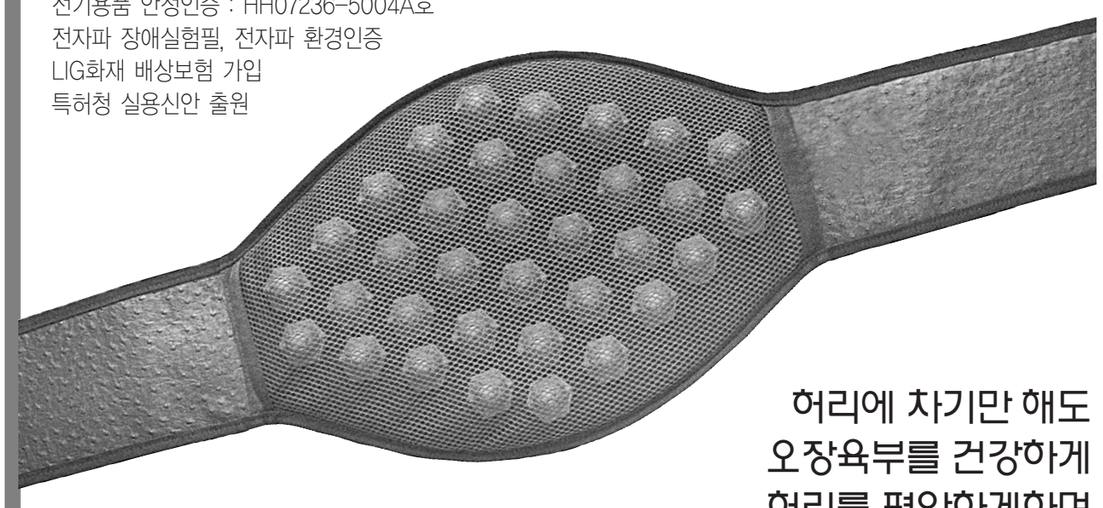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융천사가 「혜성가」를 지은 까닭은?

오해로 인한 민심 불안 향가로 해소



진평왕 16년 혜성이 나타나 신라의 상징인 심곡성을 범하자 왕실과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다. 융천사는 혜성가를 지어 혜성이 흉조가 아님을 알렸다. 사진은 혜성 모습

향가부른 이들은 주술가이자 승려
혜성 나타나 민심 흉흉…백성 불안
왕은 화랑도의 산행 금지 등 계엄령 선포

융천사 흉조를 없앨 수 있는 묘안
'혜성가' 작사… '길쓸별'로 이름
신라왕실과 백성불안에서 건져

1.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천지자연의 변화무쌍함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존재보다도 무서움으로 다가왔다. 특히 평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일식과 월식을 비롯하여 수시로 나타나는 태풍, 벼락, 홍수, 가뭄, 지진, 벌레떼 등의 출현은 커다란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해서 고대인들의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책은 과학적이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인들은 노래의 효험을 오랫동안 귀중히 여겨오면서 이러한 천재지변조차 향가를 지어 물리치고자 하였다. 월명사와 충담사와 함께 등장하는 융천사 역시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삼국유사』「감통」편의 '융천사 혜성가' 조목은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노래의 효험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제5 거열랑(居烈郎)과 제6 실처랑(實處郎 혹은 突處郎)과 제7 보동랑(寶同郎)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산(금강산)에 놀러가려는데 혜성(彗星)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했다. 낭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여 그 여행을 그만두려 하였다. 이때 융천사(融天師)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예전 동쪽 물가/ 건달파(乾達婆) 놀던 성 바라보니/ 왜군 왔다는/ 봉화 올린 곳도 있구나./ 세 화랑 산으로 간단 말 듣고/ 달도 부지런히 밝혀/ 길 밝히는 별 보고/ 혜성이여! 라고 알린 사람 있다./ 아! 달 아래로 떠가더라./ 이와 어울릴 무슨 혜성 있을꼬."(양주동 역) 혜성의 변괴가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도 자기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화랑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놀게 하였다."

여타의 조목에 견주어 이 기록은 매우 짧지만 여기에는 향가의 기능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 경덕왕에게 "신승은 단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어 향가는 알아도 범성(梵聲)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한 「도솔가」와 『제망매가』의 작자 월명사나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은 충담사처럼 융천사는 승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주술사(呪術師)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월명은 '피리를 잘 불어 밝은 달을 멈추게' 했던 이므로 '월명'(月明)이라 하였고, 충담은 '백성의 안녕을 직언한 충언의 담론을 제기' 하였기에 '충담'(忠談)이라 하였던 것처럼 융천은 '천기나 천체의 운행을 조절하고 융화하였다'는 의미에서 '융천'(融天)이라 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이름 뒤에 '사'(師)를 붙이고 있어 이름 앞에 '석'(釋)자를 붙이는 승려들과 구분되고 있다.

아마도 이들은 풍월도의 샤먼과 승려를 결합한 특별한 집단 계층의 일원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범성(梵唄)을 부르는 정통 승려와 구분되는 특수 집단 계층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재앙과 국가적 혼란을 물리치는 치리가(治理歌) 혹은 주술가(呪術歌)적 성격을 지닌 향가를 부르는 가인(歌人)들이자 풍류객이었다. 또 월명사와 충담사와 융천사는 14·15세~17·18세의 미소년들로 이루어진 화랑들을 보좌하는 승려 낭도의 일원이었다. 융천사의 이름이 암시해 주는 것처럼 그는 '하늘과 소통하여 하늘의 운기를 주재할 힘을 가진 이'였다. 그가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써 혜성의 변괴가 사라지고 일본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처럼 융천사는 염력과 주력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승려이자 주술사였다.

2. 혜성의 등장 사례

방위상으로 보면 신라는 중국의 동쪽에 자리해 있으며 창천(蒼天) 아래에 자리한 나라이다. 때문에 신라인들은 동쪽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심대성(心大星)을 신라의 상징 또는 국왕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들은 심대성에 어떤 조짐이 일어나면 이를 국가의 안위나 국왕의 신변과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해서 재앙의 별인 혜성이 국가와 왕을 상징하는 심대성을 범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변고의 조짐으로 보았다. 심대성은 우주 전체를 중앙과 8방위로 나눌 때 동방 즉 창천의 방성(房星)과 심성(心星)과 미성(尾星) 세 별의 하나로서 동방에서 가장 중요한 별이며 천왕(天王)이라고 불렸다.

반면 혜성은 장성(長星), 패성(孛星), 소성(掃星) 등으로 불린다. 고대인들이 매우 꺼리는 별로서 재앙의 별 혹은 불길의 별로 여겨졌다. 이 별이 천공에 나타나게 되면 전쟁의 발발과 국운의 쇠미 그리고 왕권의 위축 등의 조짐으로 보았다. 그런데 진평왕 대에 긴 꼬리를 그리는 별로 불리는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진평왕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는 청소년 수양단체인 화랑들의 풍악산 유람을 금지시켰다. 『삼국사기』를 통해 융천사가 부른 「혜성가」의 작사 시점인 진평왕 대를 기준으로 고대사국에 혜성이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자. 진평왕 원년에 해당하는 백제의 위덕왕 26년 조에는 "장성(長星)이 출현하여 하늘에서 마치고 20일이 지나서 사라졌다"고 적혀있다. 위덕왕 41년(진평왕 16년)에는 "패성이 각항(角亢)에 나타났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각항'은 28수(宿) 중 동궁의 별자리를 가리킨다. 천궁을 360도로 잡을 때 심대성과는 45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다. 천문학에서 말하는 핼리혜성의 76년 주기설에 의하면 607년(진평왕 29)년에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평왕 재위 54년 기간 동안에 원년과 16년과 2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28수(宿) 중 가장 중심자리에 있는 별인 혜성이 나타났다. 각항이란 별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 왕은 매우 두려워했고 융천사를 불러 「혜성가」를 짓게 한 것이다. 「혜성가」의 삼화(三花)는 세 화랑을 가리킨다. 그리고 화랑도를 구성하는 여러 부대가 단체 유람하던 풍악산의 유람단에 의거해 보면 제5, 제6, 제7과 같은 차례 숫자는 부대이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몇 가지 정보와 이해 위에서 이 조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흉조를 상징하는 혜성 즉 일본이 동방의 큰 별인 심대성을 범하자 신라 왕실은 큰 혼란에 직면했다. 다시 말하면 붉은 줄을 그리며 나아가는 혜성이 동방의 큰 별을 상징하는 신라와 진평왕을 범하자 왕은 나라의 위기임을 직감하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지닌 화랑도들의 산행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하나로 보았던 신라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방관할 수 없었기에 취해진 조치였다. 융천사는 천체의 일종인 혜성을 인정하면서도 흉조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서 그는 혜성의 이름을 바꾸어 '길쓸별'이라고 불어주었다. 당시의 사용례를 보면 혜성을 '소성'(掃星) 즉 '빗자루' 또는 '빗자루 모양의 별'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혜성이 불길한 별이 아니라 '화랑이 가는 길을 쓸어주는 길한 별'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작명(作名) 속에는 신라인들의 탁월한 현실감각이 반영되어 있다.

3. 「혜성가」의 해석

이 노래의 맥락과 해석에 대해서는 양주동과 김완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의 주장들이 있다. "옛날 동(東)쪽 물가/ 건달파(乾達婆)의 논 성(城)을 랑 바라고,/ 왜군(倭軍)도 왔다/ 횃불 올린 어여 수플이여./ 세 화랑(花郎)의 산(山) 보신다는 말씀 듣고,/ 달도 갈라 그어 잦아들려 하는데,/ 길 쓸 별 바라고, 혜성(彗星)이여 하고 사뢴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彗星)을 함께 하였읍니까."(김완진 역) 「혜성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혜성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와 함께 '건달파'와 '건달바성' 그리고 '왜군'의 의미이다. 심대성을 범한 혜성은 왜군일 수도 있고 왕실의 적일 수도 있다. 살펴본 것처럼 혜성은 국가의 안위나 국왕의 변고일 수 있다. 그렇다면 건달파와 건달파성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건달파는 불법을 지키는 여덟 명의 호법중인 팔부신(八部神將)의 하나이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하는 자리에 나타나 불법을 찬탄하고 불교를 수호하는 제석(帝釋)의 음악을 맡은 천락신(天樂神)이다. 지상의 보산(寶山) 중에 있으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으므로 식향(食香), 후향(?香)이라고 하며, 생명이 탄생하는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인 간다르바는 중음신이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냄새를 찾아다니므로 심향행(尋香行), 심향(尋香)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악인(樂人) 또는 배우(伎樂)를 가리킨다. 그는 음식의 향기만을 찾아 그 문 앞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여 음식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건달바성은 늘 천상에 있는 건달바가 실체 없이 공중에 나타내는 성곽 또는 바다 위나 사막 또는 열대지방에 있는 벌판의 상공에서 공기의 밀도와 광선의 굴절작용으로 일어나는 신기루(蜃氣樓) 혹은 해시(海市)를 일컫는다.

신라인들은 예로부터 신라가 불국토이고 왕은 전륜성왕이며 화랑은 미륵의 현신이라고 여겼다. 해서 이곳 신라를 과거 장엄겁의 비바시불-시기불-비사부불로부터 현재 현겁의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로 이어지는 불연국토(佛緣國土)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불국토의 동쪽 앞바다에 불법을 수호하는 건달바성이 생겨났다. 건달파는 불교 우주관에서 보면 사천왕천 가운데 동주(東洲)인 지국천(持國天)의 다라타천왕(多羅?天王) 아래에서 그를 지키는 일을 하는 호법신장이다. 그런데 불국토인 신라의 동쪽 앞바다에 성 모양의 신기루가 생겨나자 동해가의 봉화지기는 이 신기루를 왜군의 선단이 신라를 공격해 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봉화를 올렸다. 설상가상으로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조짐이 일어났다. 신라 왕실은 전 국토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군인 화랑도의 금강산 유람을 중지시켰다.

그런데 융천사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은 왜군의 선단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해가의 신기루가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해서 그는 "옛날에도 동쪽 물가에/ 건달파가 놀던 성이라고 생각하고/ 왜군이 쳐들어온다고/ 봉화를 올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세 화랑이 풍악산에 오른다는 말씀 듣고/ 달도 부지런히 밝히려는데/ 길쓸별을 바라보고/ 혜성이라고 사뢴 사람이 있구나/ 아, 아, 달 아래로 떠가버리더라/ 이와 어울릴 무슨 혜성이 있겠느냐"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융천사는 이 노래를 불러 어지러운 신라 왕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해 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의 질서에 대한 신라인들의 오해를 융화시켜주고 바로잡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편안히 해 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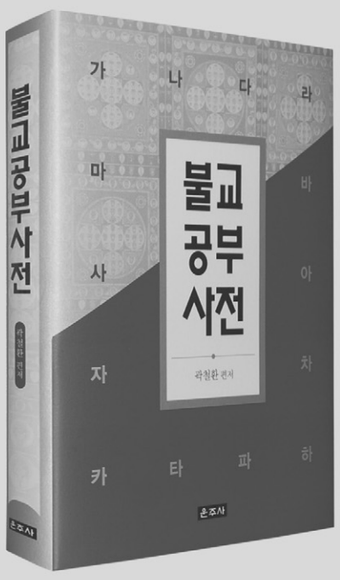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신호열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교공부사전



곽철환 편저/국판 양장/404쪽/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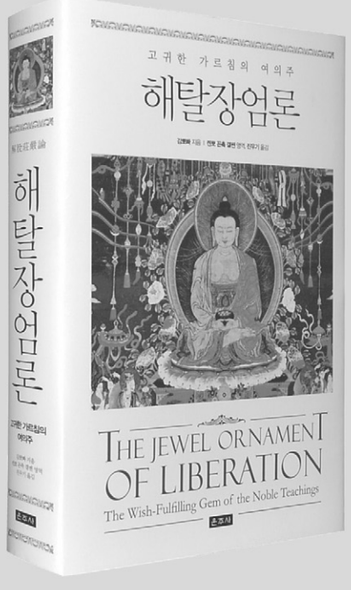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해탈장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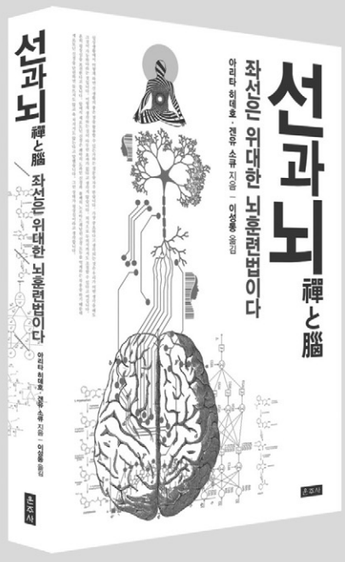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감뽀빠 저, 진우기 역/ 신국판 양장/ 628쪽/28,000원

선과뇌



아리타 히데호·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개 도道를 구하고자 하면 깨끗한 행行이 있어야 한다. 네가 속세의 때를 지니고 도를 들어보았자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익혀 외우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돌보고, 나쁜 일을 짓지 않고, 말이나 행실을 삼가고, 마음을 잡아 하나를 지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 행하면 곧 도를 얻을것이다.

– 법구비유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실전 강의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 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빙의,영가,영적장애 몸, 마음, 영혼 치유 해 드립니다
용음사
010-5538-5570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031)642-6011
011-729-6011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염불CD판매
〈 우리말 예불1집 〉
한문예불을 우리말로 변역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용스님의 우리말 예불
〈정토선음악염불〉
극락세계 염불방법을 통해 쉽게 염불삼매를 성취하는 선용스님의 수행용 염불
구입처 : 전국불교용품점
010-8108-0715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 신병, 우울증, 틱장애, 병명없이 아픈 분, 가정우환, 엑소시스트도 치료못한 환자도 치료상담
금 강 사
010-2418-6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개인지도 (나이 관계없음)
스님특별지도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강의함
대학교 강의중. 사찰 무료로 보시함
010-4014-88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경북 김천에 1천년 조계종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1분을
모십니다.
010-7178-0700

종무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동래)
– 40대 전후
–컴퓨터 사용 가능하신 분
051)558-8830

국민의 건강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礎石)입니다!!
불자님들의 건강 지킴이 생체자기장氣기
이제는 신도님들의 건강 증진에 神秘한 도움을줄 時期가 到來했습니다.
전국 그린 회원가입 지사 모집.
대상 : 전국 사찰(寺刹)
자세한 문의는 6gold@hotmail.co.kr
비영리법인 삼봉 명상 문화 대학
www.from7.net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제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34-2198
010-8721-2198

조용한 사찰 스님 공부 하실 분
(만년 나이제한 없음)
051)721-0449
010-3579-6444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암역리원 동작구청(우리은행)옆
02)597-1101 / 011-9150-2284

행 자 모 집
(예비 비구스님)
연령 40세이하,
학력 고졸이상.
순수 종교신앙 지도자의
길을 가고자 발심한 분
051)558-8830

스님이 없는 절을 구합니다
대작불사를 통하여
절을 발전 시킬 수 있는
60대 비구승입니다
010-8934-284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북갤러리출판
값 13,000원 (전국서점판매)
전화 주문 031-842-8023. 011-772-4606
농협 552-01-047918(대한불교비룡정사)
내용 (1)마음의 치유 (2)빙의퇴마 (3)무당 (4)사주팔자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미타정사
• 주 지 : 법만 (김종만)
• 주 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105-1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제 2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승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범패단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으로 이름 짓고 창단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먼저 청강해 보시고 접수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분은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 단원으로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향수해례, 사성례,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사물.
2. 중급 : 주 둘째시간 ~셋째시간 : 천도재의식,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 (짖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 귀명정례긴소리, (짧은소리) 화청
3. 상급 : 매주 넷째시간 : 범패의식-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4. 고급 : 2년이상 된 자로서 시다림, 다비, 점안식, 방생, 생전예수재, 종사이운, 불상이운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1년 선불 10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원에 비치)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석, 쇳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법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무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 강 일 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오후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불자정보 26 | 922호 | 전면광고

2013년 1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7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금산
- 법당 : 20평
- 요사 : 40층
- 총 : 560평
- 가액 : 1억8천
- 최고 보시면OK

- 위치 : 서울
- 인법당 : 25평
- 가액 : 1억 3천
- 전세. 월세 급구 연락 주세요.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기타건물 : 60평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4(목)
- 요사 : 45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3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대지 : 385평, 건평175평(2층건물 2동)
- 법당 52평, 종무소 52평, 요사채 71평
- 4차선 국도인접, 전망좋음
- 가액 : 6억 5천만원

016-874-8885 / 053)853-5539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시 묘현면 에버랜드 근처
- 대지 100평, 건물 45평, 화장실2, 방3
- 법당, 삼존불, 산신각, 소불, 지장 등 16나한, 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5000만원 (절충가능)

010-4732-484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100평, 방4개, 화장실, 남 · 여 스님용 공양실 등
- 아미타4자, 관음, 지장, 순금개금, 삼존불 및 법당, 신중탱화, 산신각
- 에어컨80평, 용등3대, 온풍기80평 외 시설완비
- 보증금 4천만원 / 월 85만원
- 시설비 8,000만원

010-4719-5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중부동 부근
- 평수 55평, 4층 건물중 3층
- 법당 넓고 편리함, 시설완벽, 스님방1, 방2, 화장실 겸 욕실, 공양간
- 도심지역, 시장근교, 교통편리, 지하철 도보로 5분거리
- 가액 : 3천만원에 40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시설비 없음)

010-2483-3037
010-4583-30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IC 10분거리
-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
- 가액: 2억 5천만원

010-4910-6358
010-8612-6914

포교원안내

- 대구 도청옆 대구역 5분거리
- 평수: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
- 불교대학 최적지
- A/V有. 냉난방시설,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아미타삼존불, 지장, 삼성, 신중
- 사천왕탱화, 500인등, 영가단
-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갖춘 법당

010-9598-91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황금동에서 차편 약 15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8백만원

054)435-125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동래전철역 도보 5분거리 대로변 아파트 단지 및 금정시장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극락전, 지장전, 나한전, 시왕전, 산신용왕전. 시설완벽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또는 전월세 가능

010-2531-19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시내IC10분거리
- 대지 : 500평. 등기필
- 주변 산세좋음
- 대웅전, 요사채, 황토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8천만원

054)337-3687
017-517-36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불심이 깊은 대구(송현동) (남대구 IC에서 10분거리. 주차장완비)
- 2층 중 2층 70평, 옥상 70평 사용가
- 법당, 방 3개, 화장실 3칸,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
- 큰병원 및 시장, 서부정류장 (유동인구 많습니다)

010-3672-8424
010-9431-4959

터 (전)

- 경북 영양읍 상원리
- 계획관리지역. 남향 한적한 곳
- 산및전.옹벽도로계곡 최상의땅 637평 다목적 터를
- 가액 6300만원 급 양도
- 주인직 양도
- 야간 통화 가능 (친절안내)

010-7621-7621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수정부분)

010-3732-52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3662-55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상가건물 4층 전체 약 42평
- 법당1, 방2, 화장실, 엘리베이터
- 시설 살림살이 일체 3500만원
- 보증금 1500만원, 75만원
- 최고시설
-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010-6674-135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포교원안내

- 위치: 구미시 원평2동
- 중앙시장 입구
- 평수 20평정도
- 방2, 법당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010-2418-6222

사 찰 안 내

- 위치 : 하남에서 남한산성 가는길
- 부지 : 130평, 건평 95평
- 가액: 9억
- 뒤는 산이고 그린밸트
- 국도변에서 가까움

010-3117-66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안지랑 우체국 뒤
- 단독 : 43평
- 법당, 방3, 주방, 창고, 다용도실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 모든 시설 양호, 몸만 오실 분
- 시설비 1200만원

011-458-29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 24평
- 양도가액 4천 5백만원
- 포교원 했던 자리

010-6880-8803

포교원(급)안내

-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리
- 역전 앞 위치 상권 좋음
- 평수 : 5평 2층
- 보증금 +시설비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급한 사정으로 급양도함

054)972-4442
010-6325-20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275-79
- 평수: 30평
- 보증금 : 일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천오백만원
- 아미타, 약사, 천수관음, 지장보살 종까지 일체 있는 그대로 양도함

011-590-575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 149평, 법당 20평 단청
- 요사 1동 : 17평 • 요사 1동 7평
- 소불 : 500불, 인등 400개
- 가액: 5억 7천만원
- 아파트 밀집단지 보이는곳
- 야산아래 있는 전망좋은 위치

011-811-546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주시 중앙시장입구
- 4층건물 3층
- 80평. 시설완벽
-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도보 5분
- 소임으로 급양도
- 1000-35-1300

010-5214-787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7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80평
- 양도 : 18억8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氣가 있는 월출산 명당터
- 부지 16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채, 문간채
- 산신각, 화장실, 공양간, 창고, 주차장
- 가액: 3억 (답사후 조정가능)
- 주지스님 지병으로 급 안내

010-3640-1494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 시장입구, 버스정류장앞
- 유동인구 많음. 건물 뒤 공용주차장
- 평수 : 2층 70평
- 찜질방 • 3층 70평
- 법당. 관음전, 산신각(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현지답사 후 절충가능

010-4001-39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2동
- 독채: 임법당(18평), 방 4개, 창고 1
- 80년 이상된 사찰 아미타불(동불석자)
- 후불탱화, 신중, 칠성, 영단탱화
- 인등 100등 이상, 1년등 150등 이상
- 산신각, 용왕당, 법당집기 일체 • CCTV 4대, 에어컨 3대 (지하철, 시내버스 1분거리) 현재 법회중(포교의 최적지)
- 시설비 2천 5백만원 (절충가능)
- 보증금 천오백만원 월 35만원, 불사 관계로 양도

010-3783-3606

포교원이 꼭 있어야 할 곳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헌화리
- 평수 : 108평, 3층 상가 건물 3층
-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되어있고 초, 중, 고 학교가 주변에 다 있음. 포교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 주변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 아파트 만여세대와 인구 7만이 거주하고 있음
- 포교원이 꼭 있어야 할 곳입니다

011-9254-2353 원호

수련원이 꼭 있어야 할 곳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 평수 : 106평, 3층 상가건물 3층
- 21세기 서해안시대 (안중)삼성반도체
- 국제자유무역도시 평택 국제 항구도시 국가포승공단 배후 도시입니다. 요지임
- 심신이 엄청나게 피곤하여 각종질병 성인병 스트레스 고질병이 난무하는 이때 몸과 마음이 꼭 필요로 하는 수련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011-9254-2353 원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구청 건너편
- 4층 전용면적 45평
- 교통편리, 주차가능
- 올수리, 즉시 입주가능
- 보증금 : 5,000만원(조정가능)
- 관리비포함 월 150만원

010-3772-751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훨훨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 숫타니파타 –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

마크 네포 (미국 철학자 · 시인)

"당신은 지구를 거니는 가장 존귀한 생명체"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흐름출판 刊)은 자각을 위한 책이다.

철학자이자 시인인 저자 마크 네포(Mark Nepo)는 1년 365일 형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진정한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글들을 담아냈다.

본지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눈과 가슴을 확장 시켜주며, 매일 매일 영감을 선사하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격주(3회)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인생, 얻기 힘든 소중한 기회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지 말라는 것도 있다. 이 더없이 아름다운 시각은 의식이 충만한 영혼으로 태어나 물마시고 장작 패며 살아갈 수 있음에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

개미나 영양, 벌레, 나비, 강아지, 거세된 황소, 독수리, 야생의 외로운 호랑이, 백 살 먹은 떡갈나무, 천년을 흘러온 바다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우리가 특권처럼 누리는 의식이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없음을 일깨워준다. 지구의 수많은 식물과 동물, 무기물 중에서 아주 적은 수의 생명체만 의식이 깨어 있음을, 이런 존재가 인간임을 일깨워준다.

내가 영혼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이 순간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귀한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개미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나는 개미핥기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당신은 비가 되고, 나는 한 줌 소금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시간 이곳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삶을 당연하게 여긴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이 지구를 거니는 가장 존귀한 생명체 가운데 하나임을 깨달은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두 손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겠는가?

내일이면 죽어 개미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 우리를 잡기 위해 덫을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어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깨달음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 망설임이 쓸모없음을 일깨워준다. 바로 지금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사랑하라.

고통을 담는 그릇

제자의 끊임없는 불평에 신물이 난 힌두교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다. 제자가 소금을 갖고 오자, 그는 우울한 얼굴의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했다.

"맛이 어떠냐?"

"죽을 맛입니다."

스승은 낄낄거리면서 제자에게 다시 소금 한 줌을 근처 호수에 집어넣으라고 했다. 둘은 말없이 호수가로 갔다. 제자가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휘휘 뿌리자 스승이 말했다.

"이제 호수의 물을 마셔 보거라."

제자가 턱 밑으로 물을 뚝뚝 흘리면서 호숫물을 떠 마시자 스승이 물었다.

"맛이 어떤고?"

"시원합니다."

"소금 맛은 나느냐?"

"안 납니다."

스승은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제자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두 손을 맞잡으려 말했다.

"삶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양은 똑같아. 정확히 똑같지.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져.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넓은 마음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뿐이야. 유리잔 말고 호수가 되어야 해."

어둠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 그 자체든 두려워하는 대상이든, 회피할수록 두려움은 더욱 강해진다. 뒤에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이 숨어 있을 것만 같던 그 공포의 다락문이나 벽장문이 기억나는가? 두려움에 외면할수록 문은 더욱 열기가 힘들었다.

소년 시절 나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다. 그 무서운 문을 피해 다니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게 됐다. 이젠 정말 그 미지의 세계와 직면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두 방망이질치는 가슴을 붙잡고 다락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여린 내 마음의 힘을 전부 끌어내야만 다락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문턱에서 잠시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으로 살짝 발을 들이민 다음, 호흡이 차분해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서있었다. 놀랍게도 어둠에 눈이 익숙해졌다. 잠시 후 곰팡내 풍기는 오래된 상자들을 탐험하다가 상자 안에서 나와 유



빛은 깨진 병에도
다이아몬드에도 존재
"현재의 자리 기꺼이 받아들이면
삶의 모든 것에서 기쁨 맛본다"

일하게 닮은 식구,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사진들을 찾아냈다.사진을 보자 내 영혼의 단면들이 비로소 이해됐다.

어떤 문 어떤 두려움이건, 사랑이나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건,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건, 누구나 몇 번이고 이런 선택 앞에 놓인다. 무서운 곳을 계속 피해 다닐 것인가? 문을 열고 어둠에 눈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인가?

저절로 알게 되는 길

앞이 보이지 않아도 먹을 줄은 안다.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심장은 변함없이 고동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공기는 여전히 폐 속으로 들어왔다 나간다. 구름이 갈수록 두터워져도 태양은 변함없이 지구를 향해 햇살을 퍼부어댄다.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나이지리아 이도마 족의 속담은 이런 사실을 일깨운다. 우리 내부의 반사 능력은 우리를 계속 살게 하고, 뿌리 깊은 존재 욕구는 우리가 고난과 싸울 때도 밑바닥에서 꿈틀댄다.

손은 어둠을 제거하지 못한다. 하지만 입으로 가는 길은 찾아낸다.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믿음으로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가슴을 살찌우는 길은 찾아낼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

겪을 만큼 겪어보면 누구나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타인들과의 모든 갈등을 피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지독한 갈등이 일어난다. 반면에 내면의 삶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를 무언가 다른 존재로 만들려는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본래의 자신으로만 살면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적인 갈등에 직면한다. 이것이 개성 강한 존재들이 감당해야 하는 불화다. 반면에 본래의 자신으로 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만 급급해서 자기 내면의 소중한 부분을 죽이게 된다. 이때는 내적인 갈등과 맞닥뜨린다. 개성 약한 존재들이 감당해야 하는 불화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본래의 나로 존재하지 않는 편이 훨씬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49년의 생에서 30년을 들이고, 이 깨달음을 실천하기까지 다시 19년의 세월을 바쳤다. 매일같이 진실해야 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타협하고픈 충동을 물리치려 했다. 타인들이 불편해하거나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한 내 모습과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았다.

넬슨 만델라나 간디, 토머스 무어 경, 로자 파크스 같은 인물들은 좋은 본보기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처럼 위대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저녁에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보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비범과 평범

자신이 원하는 것에 까다롭게 구는 것은 취향이 고급스럽다는 증거다. 자신의 입맛에 맞아야만 만족을 느끼는 것은 세속적이면서도 세련됐다는 신호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도록 길들여졌다.

어느 파티에서 만난 여자가 기억난다. 그녀는 특정 브랜드의 베르무트(와인에 여러 가지 약재를 첨가해 만든 혼성주로서 칵테일의 재료로도 쓰인다)로 만든 술만 마시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녀는 이 문제로 화를 내기도 했다. 또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 한 동료가 스테이크를 아주 복잡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익혀달라고 주문하는 걸 본 적도 있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픈 이 까다로운 요구가 그에게는 공증서와 같은 의미인 듯 했다. 또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클럽에 등록하면서 친구 자격으로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들을 적는 걸 본 적도 있다. 내 경우에는 인정해줄 만한 예술작품을 고르는 데 높은 평가기준을 적용하곤 했다.

사람들은 이런 분별을 흔히 기준이 높은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이런 분별은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훨씬 특별하다고 합리화하면서 삶의 감흥을 스스로 차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 어떤 특출함도 밤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투병 중에 내가 깨달은 것처럼 까다로운 요구나 고상함은 생존에 도움이 안 된다. 물을 못 마셔 죽어가는 사람은 물에 독성을 지닌 염소가 들어 있는지, 프랑스의 작은 언덕에서 퍼낸 물인지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주어지는 삶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환멸과 고난들에 대한 도전을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한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언제 어디에서나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요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모든 것을 특별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신의 바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중요성과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호를 발달시킨다. 실제로 좋고 싫음이 전혀 없는 사람,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히 숙맥이나 시골뜨기 취급을 당한다. 하지만 현자와 아이들은 매일의 삶이 선사하는 모든 것에서 쉽게 기쁨을 맛본다. 그들의 심오함과 순진무구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현재의 삶에 깨어 있을수록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평범함의 외피 속에 비범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빛은 깨진 병에도 다이아몬드에도 존재한다. 음악은 바이올린 소리에도 하수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에도 존재한다. 정말이다. 신은 현관 아래에도 산꼭대기에도 존재한다. 기쁨은 맨 앞줄에도 외야석에도 존재한다. 우리가 현재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다.

마크 네포(Mark Nepo; 1951~)는



미국 출신으로 30년 넘게 영성과 시 분야에서 강의를 한 철학자이자 스승이다. 암을 두 번이나 겪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후 내면의 변화에 대한 글을 쓰거나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Spiritually& Health Magazine〉에 의해 최고의 영성 관련 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마크 네포는 2010년과 2011년에 〈오프라 윈프리 쇼〉의 '소울 시리즈'에 두 번이나 출연했다. 오프라는 그녀의 고별 시즌에서 이 책을 '가장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으며, 이를 계기로 〈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글은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흐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돼지 태에 들지 않으려면 삼귀의를 외워라"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2)

도리천인이 죽으려 할 때 부처님을 만나 인간으로 태어나다

옛날 도리천궁에 한 천인이 있었는데, 수명이 다하려는 일곱 가지 조짐이 나타났다. '수명을 마친 뒤에는 내려가 구아나갈국의 옴딱지 붙은 어미 뱃속의 돼지가 되겠구나.'

천인은 자신의 내생이 축생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리 걱정하고 괴로워 했다. 이를 본 다른 천인이 걱정스러워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부처님만이 그대의 죄를 벗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부처님께 가 보십시오."

천인은 곧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였는데, 묻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천인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만물이 모두가 무상하다 함을 그대는 평소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육도의 윤회 또한 알고 있음인데 그대는 무엇을 걱정하는 것이냐?"

천인이 자세히 부처님께 고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돼지 몸을 여의려면 삼귀의를 외워야 하리라."

그렇게 사흘 동안 천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밤낮으로 귀의하였는데, 그로부터 7일만에 수명이 다하면서 유야리국으로 내려가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에도 날마다 삼귀의를 외웠고, 처음 태어나며 땅에 떨어질 때에도 무릎을 꿇고 삼귀의를 외웠다. 그 어머니는 제 스스로 힘을 썼고 오로(惡露)까지도 없었는지라, 어머니 곁의 시비들도 두려워서 버리고 도망갔다. 어머니 또한 매우 괴이하게 여기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바로 말을 함은 재앙이라 하더구나."하며 아기를 죽이려 하다가 물러나 생각하기를 '내가 철이 없구나, 만약 이 아이를 죽이면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벌하리라. 천천히 장자에게 알리고서 죽여도 늦지 않으리라.' 하고 바로 아이를 안고 장자에게 가서 말했다.

"낳은 사내아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삼보에 귀의하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괴이하게 여기면서 재앙이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였다. "그런 말을 하지마라. 세상 사람은 백 살이 되어도 삼보에 귀의할 줄 모르는데 하물며 처음 땅에 떨어지면서 '나무불' 하고 일컬음이겠는가? 잘 기르면서 살펴볼 것이지, 삼가 경망하게 굴지 마라."

아이는 자라서 일곱 살이 되었다. 어느 날, 또래 아이들과 길가에서 놀다가 마침 사리불과 목련을 만나게 되자, 그 앞에 가서 절을 하였다. 여러 성인들은 어린데도 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신이하게 여겼는데 아이가 말하였다.

"도인이시여, 저는 본래 천상에 있었으나, 나쁜 길에 가서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자비로 귀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컨대 나의 말로써 세존과 모든 보살승과 아울러 당신들을 청하여 공양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청을 받아들이자, 아이는 돌아가서 부모님께 아뢰었다.

"그 공양을 마련하되 고루 맛있게 해주십시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말한 대로 따랐는데, 그 어린 나이에 큰 뜻을 내는 것이 신이하고, 숙명을 알고 하는 바가 기특해서 매우 보배롭고 이름 있는 세상의 묘한 맛을 다 마련하고 공양거리도 정세하게 아이 뜻보다 더 뛰어나게 하였다.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은 저마다 신족(神足)으로 아이 집에 와서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경을 말씀하시니, 아이와 그 부모와 친속들이 모두 아유월치(阿惟越致 · 성불이 결정됨과 동시에 보살의 지위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얻었다. (〈절복나한경 · 折伏羅漢經〉에서 전한다.)



삽화 · 강병호

삼십삼천인이 돼지로 태어나야 했는데 인간으로 나다

삼십삼천인이 수명이 다하려는 다섯 가지 징후가 나타나자 걱정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제석이 알아듣고 물었다. "저 천궁에서 어떤 천자가 걱정하며 신음하는가?" 곁에 있던 한 천자가 대답했다. "한 천인에게 다섯 가지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제석이 연유를 알아차리고 그곳에 나아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에 천인가 대답했다. "저는 곧 돼지의 몸이 될 것을 알고 있기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석이 게송으로 말했다.

'온갖 행은 덧없어서 / 나는(生) 것은 반드시 다함이 있고 / 대개가 나는 것은 문득 죽게 되니 / 이 사라짐(滅)이 최상의 즐거움이라네.'

"저는 그런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천궁의 갖가지 5욕(欲)을 모두 이별해야 하며, 수명이 끝나면 바로 나열성의 돼지 태 안에 나게 됩니다. 먹는 것은 바로 똥이요, 그러다 도살장에 가서 죽게 될 것이므로 저는 지금 이것을 근심할 뿐입니다." 천인이 법을 들은 적 없어 아는 바가 없으니, 제석이 천인에게 다시 말했다. "온갖 은애와 사랑에는 모두 이별이 있다. 그대는 이제 불 · 법 · 승에 귀의하여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누구나 부처님께 귀의하면 / 3악도에 나아가지 않고, / 천상 인간에게 복을 누리다가 / 뒤에는 열반의 경계에 이른다.'

이에 천인은 합장하고 "세존이시며 일체지(一切智)이시여, 밝게 살피시어 구제하여주소서. 저는 이제 귀명불 · 귀명법 · 귀명비구승 하겠습니다"고 했다.

마침내 천인은 돼지 태 안에 나지 않고 나열기성 첫째가는 장자 집에 태어나게 되었다. (〈증일아함경 제19권〉에서 전한다.)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②



법계의 모든 생명 행복한 삶 누리소서

2013년 새아침 축원

내가 30대에서부터 늘 지켜온 일이 있다. 우리 내외는 어린 아이들과 새해 1월 1일 0시가 되면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인사와 무사한 지난날들에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새날을 동시에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집 부처님 방에서 기도를 올린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자라 가정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으니 각자의 집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를 올리고 마치면 서로가 휴대폰 문자로 메시지로 신년 인사를 나눈다.

가족들의 진심어린 축원으로 새로운 한 해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길 기원한다는 아름다운 글들이다. 조용한 새벽의 기도는 지극한 마음의 약속과 진실한 서원을 발원함이니 지난날의 삶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다.

지난해에도 오늘과 같은 기도였는데 왜 그리도 허물이 많은 지 참회로 마무리를 해야 했다. 그래도 새해가 있고 새날을 만날 수 있으니 새롭게 출발하는 기대와 스스로의 약속을 다짐함이 있어 고맙기 그지 없다.

경 읽고 경 쓰고 절을 하면서 정근도 한다. 이때만은 내 속에서 나를 보며 나를 채운다. 기도를 마칠 때 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뵐 수 없는 지난날 스승님들을 생각하며 그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본다. 그리고 양가 조상님들께 감사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약속드리는 절을 하고는 새벽잠을 잔다.

날이 밝아 햇님이 동쪽 산위로 오를 때면 두 손 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세상을 밝혀주는 당신을 뵐 수 있어 감사드리며 천지 만물 우주조화 공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우주 법계의 모든 생명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아침은 새롭고 감사하기만하다. 우리 내외 금정산 산님께도 새해 인사를 간다. 걸어가면서 천수경을 큰 소리로 외운다. 관음정근도 하고 맑은 공기에 마음의 향을 올린다. 싱그러운 솔의 향기가 바람결에 더욱 신선하게 코끝에 와 닿는다.

거북등처럼 투박한 옷을 입고 서 있는 큰 소나무를 두 팔 벌려 안고는 나무님께 속삭여본다.

"나무님! 정말 멋지십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때라도 한 결 같이 청정한 바람으로 맞이해 주시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나도 닮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산을 내려온다. 좋은 새해 새 아침이었다. 종일 덕담이 담긴 메시지가 오고 가고 올해는 더욱 더 행복할 것 같다. 2013. 1. 1.

나목(裸木)은 부끄럽지 않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마당을 내려갔다가 화단의 나무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늘 무심코 지나던 내가 오늘은 이 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 추위에 겹겹이 입고도 날씨가 춥다고들 호들갑을 떠는데 이렇게 발가벗은 나무들이 한 결 같이 외소한 가지들로 팔 벌려 서있다. 대추나무도 매실나무도 감나무도 목련도 이 추위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금 이렇게 나목으로 서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엄마나무이기 때문에 강한 것일까.

새봄이 오면 더 충실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굳건함으로 이 추위를 받아들이며 점점 몸을 키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본래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 해 보았다. 옷이 아닌 이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내 본성의 모습을. 나무는 정직하다. 자기모습은 다시 또 그 모습으로 내년에도 그 후 내년에도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추위도 막지만 정작 내 속에 간직되어있는 나는 떠돌이 마음인 것만 같다. 오늘 내가본 나목들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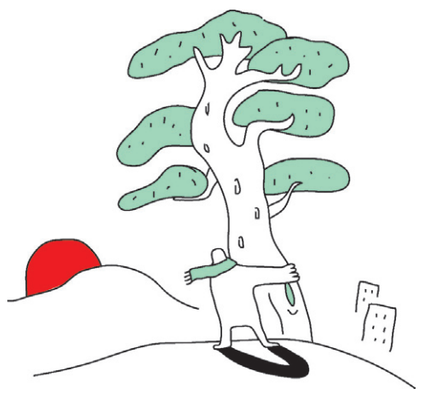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나는 그 나무들을 스승으로 삼았다. 2012. 겨울

방송국 연말 시상식을 보다가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다. 연말 방송국 연기자들의 시상식이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연예인 중에는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소감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불자는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불자임을 숨기는 것일까. 어쩌면 이 모습을 내가 샘을 내고 있는 것일까. 불자 연예인이 없는 탓일까."라고 생각했다. 우리도 부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다. 방송국의 연말 시상식을 보면서 왜 불자들은 불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지 조금 속상했다. 곳곳에 우리 불자들을 잘 키워 어느 곳에서건 불자들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많던 청년회가 자리를 잃고 학생회가 자꾸만 무너지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금 골짝마다 절의 모습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다. 그런데 50년 후 그곳의 주인이 누구일지 한번쯤 고민해야 할 것 같다. 2012. 12.

부산 연꽃모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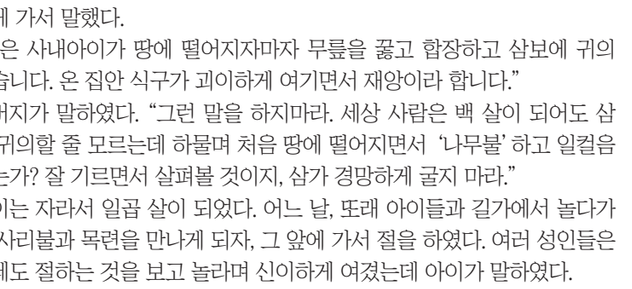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 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참된 부처님 제자는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실력 갖춰야!"

한국 무문관 수행의 효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후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선사禪師를 박부영 기자가 발굴 · 추적하다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선사》

박부영 · 원철 · 김성우 공저
신국판 · 양장 | 흑백
256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구두선口頭禪을 떠난 실참 강조한 수행자의 사표師表

제선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의심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경지는 모든 수좌들에게 희망과 등불을 밝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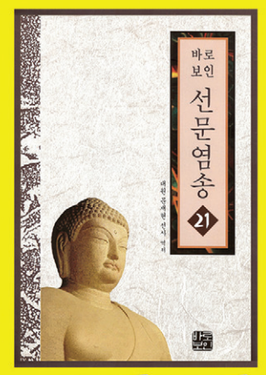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대행 스님

자기를 이끄는 원동력인 자기 뿌리를 믿고 의지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습으로는 한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어 가신다면 나도 또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도, 만불(萬佛)이 일불(一佛)이고 일불이 만불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불성 자체, 주인공에 한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즈음…, 이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새 법당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지붕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흐뭇하시죠? 나도 여지껏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지붕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집은 그렇게 짓고 산도 또 저렇게 있는데 사람이 인생 길을 걷고 또 걷고, 그래도 그 집은 남아 있고 그 산은 남아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청법가에도 있었지만 '새 인연을 이어서 해 달라' 고 그랬죠? 그것은 항상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먹고 그 이듬해에 씨앗을 또 심어서 먹듯이, 그것이 끊임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즘 조계종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고 계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지혜를 넓히고 공부를 하는 뜻이니까 그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고 상대가 없다면 우린 발전을 못합니다. 차를 아무리 새로 사 놔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는 차가 되구요. 그와 같이 인간은 부딪침에 의해서 다 커지고 발전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으로써 '스님네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아서 그럴까. 다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발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두를 보고서 우리가 공부하니 그분들도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장마가 드는 걸 봐도 스승이요, 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돌이 있는 걸 봐도 스승이요, 꽃이 피는 걸 봐도 스승이요,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체 만물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넓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잘못 나가느냐 잘 나가느냐 하는 양면의 문제가 있죠. 참답게 물리가 터져서 잘 나갈 수 있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나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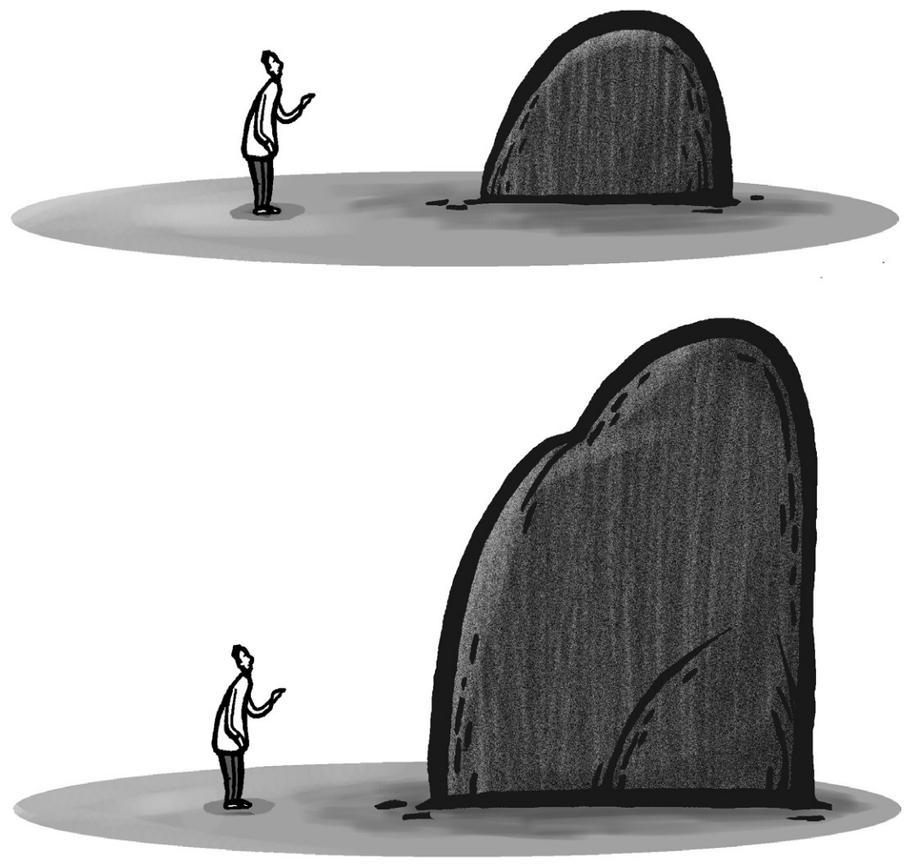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사고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다든가 또는 너무 실직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옷은 누더기를 입었어도 먹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그 원인이 어딨느냐? 이것은 우리가 자기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느라고 이렇게 이 말 저 말 끌어다 대는데요, 자기의 뿌리를 의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 자기가 자기 불성이니까요. 그것은 한 해 두 해, 또 한 생 두 생만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나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수억겁 전으로부터 이끌어 온 장본인인 바로 근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세하게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느냐. 이런 게 아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업보가 '있다' 고 한다면 업보가 있게 되고 소멸이 안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을 그냥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에서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다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거를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쌓은 습을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킵니까? 참회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또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쌓은 습관과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걸 갖다가 관하고 놓으면 그거는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영가 천도를 하러 와도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숨어 있을 경우 그 숨어 있는 거를 다 끄집어 내서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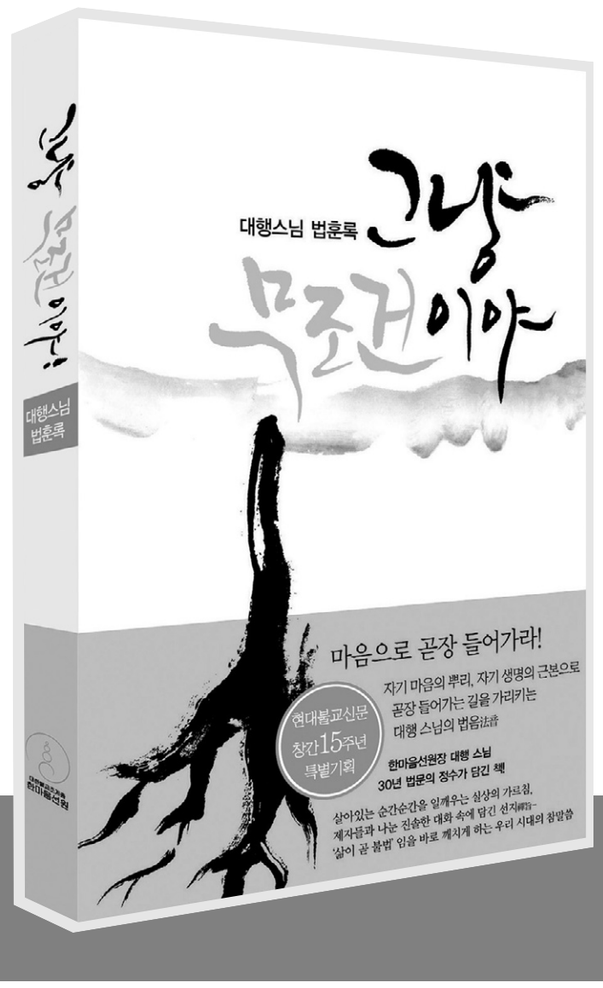
그런데 부모의 천도, 이것은 부모의 업장을 모르고 그대로 하면 빠진 게 많아서 그 업장의 요소들이 다 녹아지질 않죠. 그러니까 그 조상님들이 제대로 천도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마저 해 달라' 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다.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당신네들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보현신이고 그대로 부처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다. 보현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모든 걸 감싸고 움죽거려 주는 게 보현신이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신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한 생에 빨리 깨쳐서 다 소멸시키자.'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데 소멸이 되면서도 또 공덕이 되는 것은 뭐냐. 거기다 자꾸 입력하면 소멸이 되니까 공덕이 되는 거죠. 업식과 업보와 업력이 다 소멸되니까, 자꾸자꾸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부처님 법이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세상 일체 만물의 부처님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일체 만물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알고 보면 아주 요만큼도 에누리 없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죠. '야호' 하면 자기가 '야호' 한 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한테 들리듯이, 내가 마음을 냈을 때,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대에게도 다 퍼져서 알게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갖다 주니까 받지 않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좀 받으시지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빨리 지혜롭게 공부하시려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점프해서 넘어가도 된다.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첨보해서 원심으로 만들어라." 첨보하면 그거를 다 뛰어넘는 거죠. 원심이란 쉽게 말하자면 공식(共食)이죠. 한데 합쳐진 한마음을, 의식을 말하는 거죠.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살아나가는 것을 한데 합쳐서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를 대처해 나가는 거를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상행식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업보도 있고, 잘못하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내 마음을 항상 보살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이러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저지를 줄 알기 때문에, 또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슬픈 걸 알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잡아먹고 먹히고 이러는 거나 안다면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등 동물입니다. 그렇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 아픔을 겪어 온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거쳐 왔기 때문에 인간은 감수성도 빠르고 상상력도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 빠른 감수성과 상상력이 그대로 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질하는 그런 감수성 말고요. 도둑질하는 그런 상상력은 말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저거를 대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좀 잘되게 할 수 있나, 이런 거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전체가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마음공부 하는 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물에 가면 바로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들에 가면 지신이 되고, 또 아프다고 하면 약사 보살이 되고, 누가 명이 짧다 하면 바로 칠성 부처로 화하고, 또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으로 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남들처럼 다, 손 달리고 귀 달리고 눈 달리고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상상력, 감수성으로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뭘 수 있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뛰나 하시겠지만 급해 보세요. 여기서 천리는 못 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천리도 마다 안 하고 만리도 마다 안 하고 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심성(心性), 무(無)의 축지법이죠,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자기가 그냥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다가 남이 죽은 데 가서 영계성과 만났을 때 바로 거기다가 놓고 관하세요. 지금 그거를 다 아는 사람들은 관하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대로 보는 순간이죠.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관하고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하면 그 영가는 바로 화해요. 좋은 마음으로 화해서 천도가 되고 그 아픈 사람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보살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각양각색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그 모습으로 되는 율이 많지,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들어오는 율은 아주 드문 일이죠. 내가 주는 것이 많지 받는 것은 드물다 이런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한테로 들어오는 것은 보살이 거반 다 된 사람들이 그 도리를 알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리를 몰라서 나한테 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 쪽으로 같이 해 주죠. 그래서 화해서 차원에 따라서 진화되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아리송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참 이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뒤바꿔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힘들어요. 무지 힘드는 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해서 "야, 마음이 여기 있다. 이게 이거다." 이러고 해 줄 수가 있나, 또 어디가 참 괴롭다거나 아주 쓰라리다고 할 때에 "네 마음을 내놔 봐라. 그럼 내가 쓰라리지 않게 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물체가 없는 마음이고 물체가 없는 바로,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옛 인연을 새로 이어서 가는…,' 하고 아까도 청법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마음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 가는 거예요.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듯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씨앗을 잘 심어서 더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서 또 심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난 업보가 많아서 이래." 이러면 업보가 많은 것이고 "난 업보고 뭐고 없다. 내가 없는데 뭐가 있으랴. 내가 공했는데 뭐가 있으랴." 하면 업보가 붙을 리가 없죠.

그리고 공한 이유는 항상 얘기해 드리죠. 고정됨이 없다.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고, 움죽거리는 것도 없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형이 되고, 때로는 할아버지도 되고, 때로는 동생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러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있나, 또 형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있나? 나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그와 같이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고정된 게 없이 찰나찰나 바뀌면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또 금방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누가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스럽게 아버지 노릇하고, 자유스럽게 남편 노릇 하고, 또 자유스럽게 아들 노릇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이해가 산뜻 산뜻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뜻이죠. 함이 없이 한다. 때로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노릇만 한다면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매사 것이 다 바뀌니까, 바뀌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한데 합쳐서 더불어 '함이 없이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함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 함이 없이 사는데 업보가 거기 붙을 리가 없죠. 함이 없이 사는 공한 이 시자일 뿐인데, 공한 모습일 뿐인데 말입니다. 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보가 붙을 리가 없죠. 업력이 주둔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법이다, 이런 소리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의 법을 가르치고 무의 법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법화경』을 설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두를 그렇게 일일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따져서 말을 한다면,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고, 요거는 어떻게 심어서 요렇게 해 먹고, 저거는 어떻게 심어서 이렇게 해 먹고, 어떤 거는 물을 줘야 하고 어떤 거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천년 만년이 가도 나를 뛰어넘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하나 속에도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들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먹어도 내가 먹었단 말을 못 한다. 내가 했어도 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함이 없이 했는데 내가 업보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쉴 사이도 없고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금강 석수봉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봉이 돼 있죠? 그게 금강 같은 석수봉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지금 말로 한다면, 아주 자동적이고 영원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입력된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하면 모든 게 소멸된다 이 소립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말한 것을 한데 합쳐서 자동적이고 영원한 컴퓨터라고 하면 되죠.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 입력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자리에다 되입력을 해서 그 근거를 말살시키면
그게 소멸이 됩니다.
하나하나 소멸시키다 보면 전체가 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스러워집니다.
점차적으로 자유로워지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 입력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거 없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근거가 있어서 나왔으니까 나온 자리에다가 관해서, 입력을 해서 그 근거를 말살시키면 그게 소멸되죠. 하나하나 소멸시키다 보면 전체가 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스러워지죠. 점차적으로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릇들을 보세요.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큰 다라이가 있고 이렇죠, 모두가. 그거와 같아요, 사람의 차원도. 그래서 얼른 그것을 납득하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들었는데도 똑같이 납득을 못하고 중간쯤 가는 분이 있고, 또 아주 맹문이로 가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게 업보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날까지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습 말입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렇게 살던 습 말입니다.

그 습이 어떻게 금방 그렇게 없어지겠습니까마는 그 쌓이고 쌓인 습이 녹아지려면….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당나귀를 얼마나 때리면서 부렸는지, 죽어서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린 주인은 바로 부인이 돼 가지고, 항시 업보가 입력이 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노상 때리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못 견뎌서, 지나가는 스님의 바지자락을 쥐고선 그냥 살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당나귀를 부릴 때 너무 때려서 그 대신 맞는 건데 뭘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도 살려 달라고, 이젠 다시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니까 "그러면 돗자리를 도르르르 말아서 꼭꼭 묶어 가지고 당신을 때리기 쉬운 자리에다가 놓아 두어서 그걸로 때리게 해라. 돗자리의 엮어진 줄기 수효대로 때린 게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돗자리를 똘똘 말아서 놔두고 있으니까 한 사나흘 그걸로 때리더니 한참 자고 일어나서 "당신을 왜 내가 때렸지?"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누리가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죠. 에누리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에누리가 없고 말고 간에 그냥 그냥 소멸된다 이거죠. 이 소멸되는 공부는 나오는 데다가 되놓는 이 공부밖엔 없어요. 이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지나오면서 너무 해이해진 것이죠. 학으로만 공부하는 분들,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분들은 아는 건 많지만 아주 극한 마음을 낸 그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장대로 습관대로 그냥 막 튀어 나와서 싸움들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몸통 안에서, 네 자체 근본, 네 마음이 벗어나야 네 몸을 자유스럽게 다스리고 맘대로 굴릴 수가 있느니라." 즉, 몸이 통이죠. "네 마음이 네 몸속에서 아주 꼭 잡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네 몸을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두 하시겠죠. 그런데 몸 바깥으로 내가 벗어나서 내 몸을 굴릴 줄 안다면 그건 뭐 모든 것으로부터 거침없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끔 다 분리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정신계에서 보이지 않게 나오는 거는 그 정신계에서 대책을 세우고, 보이는 데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의리와 도의를 지키면서 말을 지혜롭게 해 나가면 그대로죠,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는 마음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계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지금 어느 학교에서도 물질계와 정신계를 한데 합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8년 12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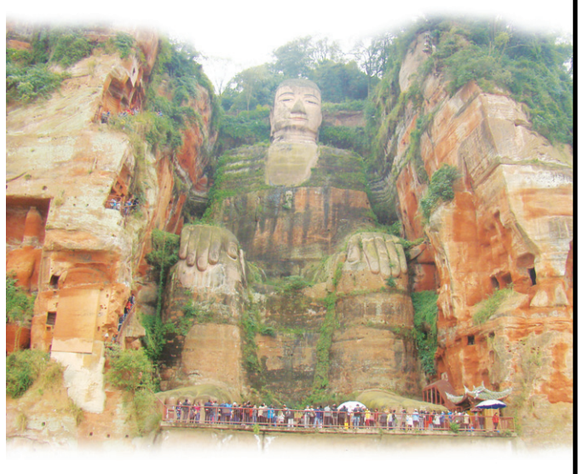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3/29, 금)	북경, 성도
2일(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4/ 3, 수)	북경, 부산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2013년
마음다이어리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2013년도 '마음 다이어리'는 대행 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 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2013년 한해 마음의 길 환히 밝혀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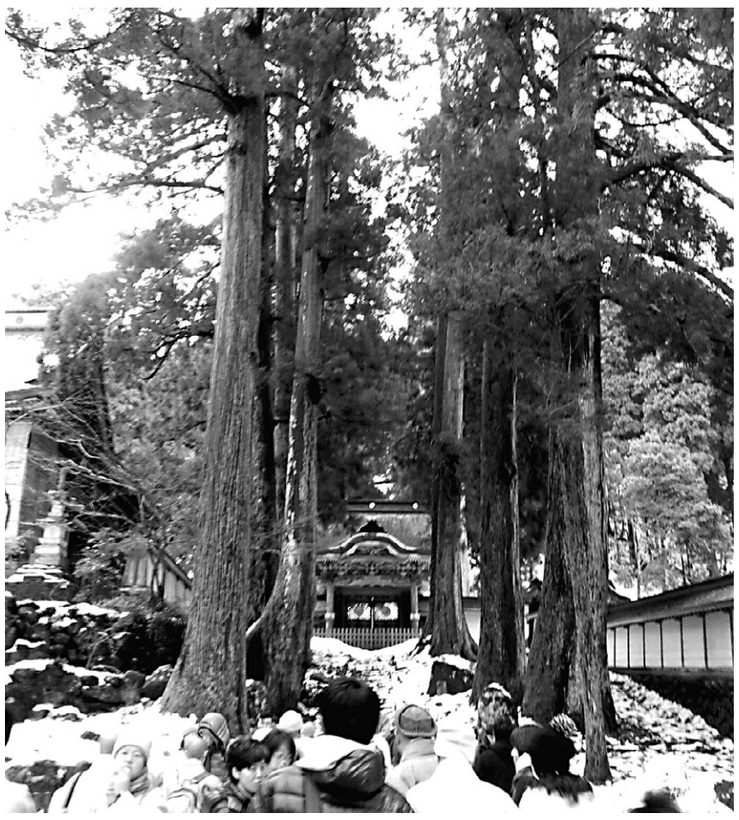


구입문의 :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템플스테이 일본 연수 체험기

진정한 감동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지난해 12월 14~18일 일본 일원에서 템플스테이 지도자, 실무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생활불교가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일본 불교의 실상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본지는 연수에 참가한 관음종 묘각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여 스님의 연수 체험기를 정리했다.



일본 조동종 영평사를 찾은 템플스테이 연수참가자들. 일본불교 특유의 절제미를 느낄 수 있었다.

절제미 돋보인 조동종 영평사 수행자적 삶 느껴
동대사 등 일부 사찰 자유 견학은 아쉬움 남아
템플스테이는 휴식형보다 체험형으로 진행해야

잠시 소임을 놓고 마음 편히 길을 떠나본 게 언제였던가. 낙산 묘각사의 템플스테이를 10년을 운영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여유를 찾아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일원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실무자 연수는 내 수행생활에 쉼표를 찍는 여정이기도 했다. 당연히 오래 전 일본인들의 생활로 자리잡은 일본불교의 면모를 알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였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젠(Zen)' 열풍을 일으킨 그 저력을 알고도 싶었다.

이번 연수는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영평사와 천태종 총본산 연력사, 진언종의 성지 고야산 등 일본 불교의 정수가 담긴 사찰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곳은 첫날 묵었던 영평사다. 일본 조동종 시조 도원(道元)선사님이 개창했으며, 가람은 산문, 불전, 법당, 승당, 고원, 욕사, 동사의 7당 가람으로 잘 구축돼 있다. 무엇보다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영평사 스님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했다. 특히 요소요소에 스님들이 배치돼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정진요리의 서빙도 스님들이 했다) 생활이 곧 수행이라는 시조의 수행 가풍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영평사 역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유사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질은 한국불교가 더 높았다. 사실 체험이라기보다는 견학에 가까웠다. 한국 템플스테이의 경우 운력, 예불, 108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지만 영평사는 일본식 차수와 합장을 가르쳐 주고 새벽 예불은 참관하게 한 것이 전부였다. 이를 볼 때 한국불교의 템플스테이는 세계의 관광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함의하고 있음을 새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찾은 연력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태종 총본산의 유서 깊은 고찰이다. 일본불교의 모든 시작이 이곳 연력사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화경 수행도량이기도 한 이곳의 수행방법은 독특하다. 산 하나에 걸쳐 펼쳐진 광대한 연력사의 사역 내에 있는 동서탑을 왕복하며 도량석을 도는 것이 이들의 수행법이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만 반 나절이 걸린다.

법화경 수행도량인만큼 이들은 '선교일체'를 중요시 하고 있었다. '경(經)과 선(禪)을 나란히 하라'는 이들의 수행가풍에서 일본불교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저력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교리를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대인들이 공감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3일째에는 나라의 동대사를 들렸다. 남도(南都) 7대사의 하나인 동대사는 745년에 성무왕(聖武王)의 발원으로 창건됐으며, 본존은 비로자나불로 앉은 키 16m, 얼굴 길이가 5m나 돼 속칭 '나라 대불'이라고 한다.

중심인 금당(金堂)은 에도(江戶)시대에 재건된 것으로서 높이 47.5m나 되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이다.

이곳은 40분 정도 자유 견학을 했다. 대략적인 역사와 의미는 가이드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심층적인 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식의 관람은 연수가 아닌 여행자에게도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국의 템플스테이 역시 외국인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휴식형을 지양해야 한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게 하기보다는 한국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한다. 무엇보다 템플스테이는 그 사찰에 묵는 동안 사찰과 불교의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동대사를 뒤로 하고 찾은 곳은 일본 진언종이 태동한 고야산이었다. 고야산에는 일본불교의 성지인 금강부사(金剛峯寺)를 중심으로 117개 사찰이 있으며,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일본의 국보 중 2%가 이곳에 있다.

고야산 일대를 둘러보고 일행이 들린 곳은 적송원이라는 곳이었다. 사찰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웠다. 위생상태도 영평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비슷한 사찰 요리였지만 영평사와는 달리 대부분의 스님들이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워낙 유명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인들 많이 찾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불교에 대해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었다.

연수는 사천왕사와 천수각 견학을 끝으로 4일 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돌아오는 길, 10년 간 운영했던 묘각사 템플스테이가 떠올랐다. 첫 해 한명의 외국인도 오지 않았던 사찰이 이제는 매년 1천여 명이상의 외국인 참가자가 드나드는 곳이 됐다. 단순히 묘각사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통과 현대의 사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통에 매몰되면 고루해지고 현대에 치우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불교는 '감동'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감동이 없는 불교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이는 현대인이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설 수 있는 하심(下心)도 필요하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지도 법사와 실무자들이 매일이 감동이고 환희이어야 한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 삶에 환희심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매일을 부처님 가피를 받아 감동할 수 있는 삶을 내 자신이 먼저 사는 것이 다른 이들 감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진정한 감동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이번 연수의 교훈이었다.



여여 스님
(관음종 묘각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社說

전통문화 발전 예산 올바로 집행해야

2013년도 정부 예산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예산을 살펴보면 전통불교문화 전승, 보존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105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110억 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20억 원) ▷가산불교대사림 편찬(5억 원) 등이 편성됐으며, ▷불교전통문화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억 원) ▷호국불교 의승군 연구 및 서산대제(3억 원)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1억 2천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의 2013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역시 2,13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30억여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불교계에 대한 올해 국고 지원은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건물 불사가 아닌 아카이브 구축과 가산대사림 편찬, 의승군 연구 등 전통불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올바르고 투명한 집행이다. 실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심사에서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27.5%의 낮은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현재 67%의 계약률과 38%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낮은 준공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삼보 정재와 같은 국민들이 혈세가 십시일반 모인 것이다. 이유가 어찌됐던 국고가 투입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낭비되는 것이다. 예산만 놓고 보면 전통불교문화 발전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불교계의 몫이다.

장학 불사에 불자들 적극 동참하자

젊은 동량들을 키워내는 불교계 장학 사업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한 인재불사중 하나다. 현재 불교계서 운영하는 장학단체는 대략 50개 정도다. 대표적인 곳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성준장학재단, 행원문화재단 등이다.

불교계 장학사업은 1964년 故 이한상 씨가 설립한 삼보장학회가 출발점이다. 이후 1970년대에 서울 도선사와 봉은사, 부산 내원정사 등 대형사찰들을 중심으로 장학단체들이 생겨났다. 이후 1990년대까지는 장학사업이 명맥만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대형 장학재단이 속속 설립됐다. 재가불자 신행모임인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회비로 조직한 길상화장학금도 이때부터 운영됐다. 특히 길상화장학금은 신도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매년 6500만 원씩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운 총 450여 중고생에게 총 6억 여원이 전달돼기도 했다.

90년대 이후 소장 학자들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는 장학금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특히 행원문화재단은 올해로 22년째 행원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시상금액만 6억여원에 달한다. 1978년 화엄승가장학재단으로 출발해 1992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화엄종장학회도 매년 4800만원씩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5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 장학사업은 우리 사회에 동량을 키우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특히 불교계 사찰 장학금의 특징은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지역 인재들을 양성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장학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대형재단 외 대부분의 장학재단 자산이 저금리,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수익 규모가 줄어 외부 후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럴때일수록 불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교육 불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22-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금강경과 일상 둘 아닌 하나… 핵심 가르침 정리

새로운 해석으로 돌풍을 일으킨 금강경 해설서 15년만에 재탄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하여 돌풍을 일으켰던 금강경 해설서가 우여곡절 끝에 소생되어 15년 만에 다시 나왔다.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경전 구절과 함께 108가지의 다양한 실생활의 시례를 들었다. 이를 통해 금강경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생활을 통해 금강경의 내용을 풀어주는 일종의 강의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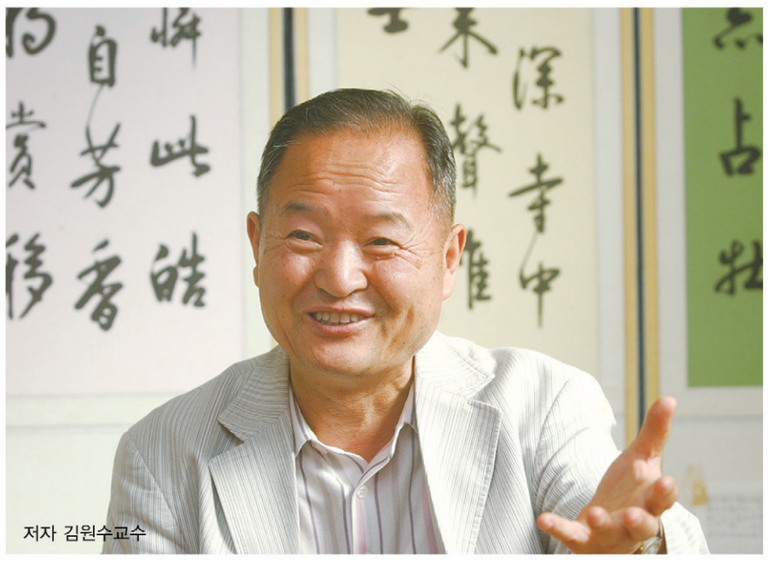
저자인 김원수 홍익대 명예교수(재료공학부)는 지난 40여 년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전해주신 스승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도량을 세웠으며, 자택마저 무료급식원으로 내놓아 무주상 보시행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실천하였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불교복지식당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저자는 금강경 구절이 도저히 해설되지 않을 때마다 금강경을 독송하며 "이런 경우에 스승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의문을 되풀이 하는 기도,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 동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얻어지며 난제가 종종 해결하는 기도를 통해, 금강경에 나타나는 핵심 진리 4 가지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모든 세상의 현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② 공(空)의 가르침(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번뇌나 고통은 참이 아니요 착각임을 알자) ③ 불이(不二)의 가르침(내 번뇌가 착각임을 알게 될 때 나와 부처는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④ 구족(具足)의 가르침(내가 없으면 부처님과 같은 구족한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이다.

이 가르침들이 금강경에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으며, 이 네 진리에 입각하여 금강경을 해석하려 할 때에만 비로소 금강경이 제대로 해석 될 뿐 아니라 실천 가능한 해석, 알기 쉬운 해석, 실생활에 응용하여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살게 하는 해석이 됨을 알게 된 것이었다.

금강경을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금강경을 오직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지 현실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던 분들, 불법(佛法)은 부자(富者)가 되고 유능해지는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책에 소개된 대로 금강경을 실천해 보면 공(空)과 불이(不二) 그리고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깨쳐서 ① 무소유 불자(佛子)가 아닌 큰 부자(富者) 불자, ② 세상을 외면하고 조용히 사는 불자보다는 유능하며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지는 불자, ③ 역경과 재난을 피해 사는 불자보다는 역경을 감사하게 알고 재앙을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아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는 참다운 불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부처님의 참뜻을 잘 받들고 무량대복(無量大福)을 누리며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대승보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저자 김원수교수

이 책의 4대 특징

(1)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습니다.
홍익초등학교 6학년 김모란

'금강경은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설법(說法)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경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에는 머리 아프다며 설설 피해갔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음을 밝혀주는 주옥같은 108가지 이야기로 엮어진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란 책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금강경과 그 외의 부처님 가르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2) 세상의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우만동 서원행 보살

절에 다닌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기복으로 믿다보니,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실패, 엄마의 고관절 수술과 위암판정, 아들의 병원 입원, 본인의 디스크와 심한 위궤양, 남편의 고통사고 등 끝없는 재앙에 오로지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렵다는 금강경이 읽혀졌고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읽다보니 한달만에 만성피부염이 나았고, 1년 만에 재앙이 본래 없음을 깨달아 모든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3) 깨달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경주 함월산 기림사 법희 보살

7년간 이 책을 100회 가까이 읽다보니, 매년마다 영적인 성장이 느껴져 너무나 놀라울 뿐이었다. 라즈니쉬 성자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이 모두 이 책에 들어 있음을 깨닫고 보니, 온 몸에서 전율이 올 때가 많았다. 도반이었던 비구스님의 출가동기도 바로 이 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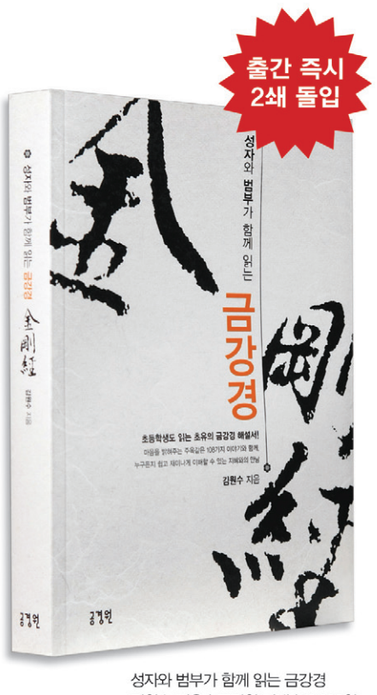
(4) 진리탐구도 가능합니다.
한양대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명예교수 임종록

이 책이 제시하는 명쾌한 금강경 해설은, 이제까지의 피상적이고 실천불가능하게 받아들인 금강경 이해를 말끔히 씻어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어느 듯 금강경 독송이 즐거워지면서 수많은 잡념들이 홀연히 사라짐과 동시에, 원인모를 기쁨이 내면 깊숙이에서 분출되는 신선하고 색다른 체험으로 진리탐구를 하게 된다.

■ 저자 김원수 교수

금강경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저자는, 지난 40여 년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스승 백성욱 박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도량을 세웠다. 그리고 자택마저 무료급식소로 내놓아 무주상 보시행을 9년째 실천한 공덕으로, 지난 2010년에 사회복지대상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하였다.

도서출판 공경원
Tel : 070-7720-6832 fax : 02-303-5811
http://cafe.daum.net/diamondsutra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 공경원 펴냄 | 19,000원

선종 최후의 공안집 '무문관' 48칙의 화두를 설봉 대선사가 평評하고 송頌하다

'선가한화禪家閑話 설봉도인 무문관 평송' 출간

「선가한화(禪家閑話)」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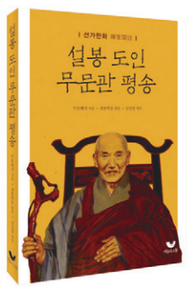
내(설봉 선사)가 소백산 비로사에 있을 때, 선정(禪定)에 전념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 나누지도 않고, 또 경전이나 어록도 보지 않으며, 다만 말없이 나날을 보낼 뿐이었다. 마침 하루는 함께 머물고 있던 벗 최기정 선생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한 번 읽어보라 권하였다. 나는 감사히 받아 책을 펴서 한번 읽어 보았는데 나도 몰래 환희용약(歡喜踊躍) 하였으니, 실로 참선하는 사람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칠백오륙십 년 전인 남송(南宋)시대에 무문혜개(無門慧開) 화상이 지은 『무문관(無門關)』 48칙이었으니, 어찌 어설피 보아 넘기고 함부로 던져 둘 것인가? 본칙과 무문 화상의 각칙에 대한 평(評)과 송(頌)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 자세히 뜻을 음미해 보면 무문 조사를 몸소 한번 보는 것과 매일반이니, 이 또한 숙세의 인연이 있는 바이다.

나는 제방(諸方)의 점검과 꾸짖음을 마다하지 않고 무문 화상의 평송(評頌) 말미에 나 자신의 소견을 평송으로 덧붙였으니, 훗날 벗들과 탁마하여 서로 성장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이다. 만약 긍정치 못하는 사람은 청컨대 일전어(一轉語)를 내려 주기 바란다.

_ 설봉 선사의 '선가한화 연기(禪家閑話 緣起)' 중에서

『무문관』은 송(宋)의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 선사가 1228년에 출간한 공안(화두, 선문답)집이다. 선사가 직접 고른 48칙의 공안에 일종의 힌트와 같은 간략한 평(評)과 송(頌)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선종 최후의 공안집'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널리 유통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근래들어 여러 『무문관』 번역서들이 출판되었는데, 대부분 원문에 대한 번역과 각칙 공안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은 그렇다 치고 그 해설이란 것이 심하게 말하면 창작 소설 수준에서 철학 논문과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중구난방이다.



〈설봉 도인 무문관 평송〉
심성일 역주 | 비움과소통 펴냄
14,000원

그러다 역주(譯註)자인 심성일 선생은 우연히 근세 우리나라의 큰스님 설봉학몽(雪峰鶴夢, 1890~1969) 선사의 법어집인 『설봉대전』에서 『무문관』에 다시 평송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무문관』 48칙 공안에 대해 설봉 스님 나름의 안목으로 평과 송을 붙인 것이었다. 설봉 스님이 남기신 법어와 함께 평송을 살펴보니 역주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큼 선지(禪旨)가 분명한 것이기에 함께 엮어 책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역주자는 자질구레한 군더더기 해설 대신 촌철살인으로 직지인심(直指人心)할 수 있는 기연이 될 만한 설화들을 덧붙여 보았다. 역주자인 심성일 선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설봉 스님과 그 분의 선풍을 제 부족한 솜씨로나마 되살려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제 불찰로 선사의 뜻이 잘못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랑이를 그리려 하면서도 겨우 고양이 밖에 그리지 못하는 저의 미숙함 때문일 것"이라 출간 의도를 밝혔다.

저자 소개

설봉학몽(雪峰鶴夢, 1890~1969) 스님은
1890년 11월 25일 함북 부령(富寧)에서 장영교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02년 한성중앙학교를 거쳐 공업전문학원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고, 1910년 스무 살 되던 해에 조선총독부 문관(文官)으로 취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항일운동에 관련되어 검거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파면된 후 한동안 투옥 또는 도피 생활을 하다 1915년 25세에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釋王寺)로 출가해 참선 공부에 전념한다.
1920년 만공(滿空) 스님 회상에 머물며 더욱 공부를 깊이 하고 만공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어 1925년에는 도봉산 망월사 용성(龍成) 스님 문하에서 정진했다. 이후 20여 년간 오대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등에서 정진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조선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선학원 등에 주석하면서 정화불사(淨化佛事)에 전력을 기울이다, 1955년 불교정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뒤 남쪽으로 주석처를 옮겨 후학들을 제접했다. 부산 범어사와 대각사, 선암사 등에서 머물던 스님은 1969년 4월 17일 선암사에서 세수 80, 법랍 55세로 원적에 들었다.
전법제자로 금산지원(金山智源 ; 1931~2008) 스님이 있으며, 『선문촬요』, 『선관책진』, 『선문염송』 등의 원전을 현토 주석한 저술을 남겼다. 현재 대덕사에는 금산 스님의 상좌인 춘식(春植) 스님이 주지를 맡아 출재가 선객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 051-554-5022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